

학술 담사 보고서

방언반 학술 답사 보고서

남원 방언의 특징

정리: 이혁화, 김옥화

1. 머리말

1999년 국어국문학과 방언반 학술 답사는 4월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읍과 대산면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에 참가한 인원은 총 18명으로, 그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조: 최명옥 교수, 임석규, 윤민

2조: 김현, 서승완, 오민석

3조: 유필재, 이누이 히로시, 홍석준

4조: 송철의 선생님, 이서란, 송정근

5조: 김창섭 선생님, 임근석, 채숙희

6조: 김옥화, 박진호, 김선흐

이 보고서는 이번 답사를 통하여 조사한 남원 방언(이하 이 방언)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방언의 특징은 크게 음운적인 면과 문법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한 지점과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조사 지점: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읍 가산리

(제보자 유기섭 68세, 남궁순이 66세)

전라북도 남원군 대산면 옥천리(제보자 박희명),

율정리(제보자 양병호)

2. 음운적 특징

여기에서는 이 방언의 음운적 특징을 크게 공시적 특징과 통시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공시적 특징은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특징으로 다시 나누며, 통시적 특징은 음소체계 변화와 음운현상의 특징으로 다시 나눈다.

2.1 공시적 특징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음운체계는 모음, 자음, 반모음 그리고 운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음운현상은 몇 가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1.1 음운체계

○ 모음체계

이 방언은 10모음 체계이다. ‘에’와 ‘애’는 어두와 비어두를 막론하고 변별적이며, ‘위’와 ‘외’는 항상 단모음으로 실현되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법이 없다.

분류의 기준은 혀의 고저와 전후 및 입술의 원순성 여부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이	위	으	우
중모음	애	외	어	오
저모음	애		아	

모음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이 방언의 특징은, 고모음과 중모음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점이다. ‘에>이’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와 ‘에’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남부방언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이’와 ‘에’뿐만 아니라 ‘위’와 ‘외’, ‘으’와 ‘어’, ‘우’와 ‘오’ 모두 간격이 좁다. 물론 좁은 간격 때문에 이들이 음소로서의 위치까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동일한 화자의 발화에서도 이들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이는 고모음이 하강한 결과라기보다는 중모음이 상승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1) ㄱ. 했다~혔다, 그릉계~그릉기

- ㄴ. 쉬~쇠, 위양깐~외양깐
- ㄷ. 어리다~으리다, 어디~으디, -더~~드-, 연:치~은:치, 명감~미궁:감
- ㄹ. 못:하다~못:하다

모음의 상승은 음장을 수반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데, 이 방언에서는 (1 ㄱ~ㄷ)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은 예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음성적으로 무성모음의 실현도 목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모음이 무성모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듯한데, 이는 발화상에서 표현적 장음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바:로, 어:찌계

또한 음성적으로 비모음(鼻母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모음과 ‘이’ 사이에서 비음인 ‘ㄴ’, ㅇ’이 약화되어 탈락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3) ㄱ. 많이[mai], 오너라[oíra](오너라, 來)

- ㄴ. 호맹이[home~i], 몸땡이[momt'ŋi](身體)

감탄사라고 볼 수 있는 ‘잉’[i:]에서도 비모음을 볼 수 있다(예 : 잉, 아개미라고 그래요, 요리요리 숨을 쉼서, 벌떡벌떡 인나지, 맞았어.)

○ 자음체계

이 방언의 자음체계는 국어의 여타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음 15개와 공명음 4개가 있음은 공통적이다. 장애음과 공명음의 분류는 조음방식에 따른 것인데, 장애음은 파열, 파찰, 마찰음으로 나뉘고, 공명음은 비음과

유음으로 나뉜다. 조음위치에 따르면,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법		위치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폐쇄음	평음 경음 유기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마찰음	평음 경음		ㅅ ㅆ			ㅎ
	파찰음	평음 경음 유기음			ㅈ ㅉ ㅊ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자음체계와 관련한 특징으로 유기음과 경음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혼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기음과 경음의 비변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으로 유기음과 경음은 대립을 이루고 있고 또한 변별적이다. 유기음과 경음이 음소적으로 별개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일 화자의 발화에서도 유기음과 경음이 혼동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음과 대비되는 긴장음([+긴장성])으로서의 유기음과 경음의 공통성이 화자의 의식에 반영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4ㄱ) 뛰다~뛰다 ; (기름이) 뛰어, 침 뛰어 옹개로, 흑탕물이 뛰어 온다.
 ㄴ. 꼽:고[꾸:꼬~꾸:코](燒), 먹지[먹치~먹찌](食)

(4ㄱ)은 어두 위치에서, (4ㄴ)은 비어두 위치에서 유기음과 경음이 혼동되는 것이다. 특히 (4ㄴ)과 같이 어미의 초성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유기음과 경음의 혼동은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 ㄱ. [꿀코~꿀꼬] ⇒ 꿀- ~꿀-, [끈코~끈꼬] ⇒ 꿀- ~끈- ㅎ-

ㄴ. [불:체 ~불:째], [불:트라 ~불:뜨라] ⇒ 불:- ~불:-

ㄷ. [지:코~지:꼬] ⇒ 징:- ~징:-

ㄹ. 영- ~엿-

뼈를 해 여 갖고(뼈를 해 넣어 가지고)

거림 같은 거를 펴여서 갖고(거름 같은 것을 지게 따위에 펴넣어 가지고)

(5-7)은 후행하는 어미의 초성이 유기음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경음으로 실현되기도 하여, 중앙어의 어간말음과 동일한 ‘ㅎ, ㅋ’ 외에 이 방언에서는 ‘ㅋ, ㄴㅎ’도 인정해야 한다. (5-ㄴ)도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간말음으로 ‘ㅋ’과 ‘ㅎ’ 둘 다 인정된다. 이 방언에서 이러한 활용의 양상은 소위 ‘ㄷ 불규칙용언’ 전반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담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걸-:(步)', '/鬧-:(炒)', '싫-:(得)' 등이 있다('ㄷ 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것은 후술 참조). (5-ㄷ)도 활용양상이 마찬가지이므로 ‘ㅎ’, ‘ㅋ’이 모두 어간 말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사정은 소위 ‘ㅅ 불규칙용언’의 어간말음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외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ㄹ)은 (5-ㄷ)과 달리 여타의 방언에서 ‘ㅎ’ 말음을 가진 어간이 유기음과 경음의 혼동으로 말미암아 ‘ㅅ 정칙용언’인 어간으로 파악되는 경우이다. 이 방언에서 중앙어의 ‘ㅅ 불규칙용언’은 (5-ㄷ)의 ‘짓-:(作)’을 제외한다면 거의 ‘ㅅ 규칙용언’이다. [여코](엿+고, 入)와 혼동되는 [여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서서](잇+어서, 運), [부서](붓+어, 注) 등의 예로 미루어 [여서]는 ‘엿+어’일 것이 분명하다.

자음의 이음과 관련하여서는 ‘ㅅ’과 ‘ㅆ’의 이음이 특기할 만하다. ‘ㅅ’과 ‘ㅆ’은 ‘이’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설모음 앞에서 구개음 [ʃ], [ʃ']로 실현되는데, 아래에 예를 제시한다.

(6) ㄱ. 실:[ʃil], 시방[ʃibag] ; 씨캐[ʃ'ikhe](서캐), 씨끄럼고[ʃ'ik'irək'o]

ㄴ. 새끼[ʃek'i], 새드래[ʃedre] ; 쌩감[ʃ'ɛggam](生柿), 버づ새[p'æk'ukʃ'
ɛ](鳥類)

ㄷ. 세:[ʃe:](三), 세워[ʃewə](使立) ; 쬐[ʃ'e](舌), 췌게[ʃ'ege](強)

ㄹ. 쇠통[ʃöthon](자물쇠), 쇠았다[ʃöat'a](나물이) ; 쇠챙기[ʃ'öjɛŋgi](鐵),

쇠아래[J'öara](바람을)

ㅁ. 쉬[jü](파리알), 쉬야지[jüyají](休) ; (숨을) 뜻: 쉬문[mo:j'ümun]

또한, ‘ㄴ, ㅁ’은 동일한 조음위치의 폐쇄음이 동시조음되는 듯한 이음이 있다. 이러한 이음은 주로 전설고모음이나 원순고모음 앞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7) 뉘에[dnüe](蠶) ; 무누[bmunu](紋), 물팍[bmulphak](膝)

○ 반모음체계와 이중모음체계

이 방언의 반모음으로는 평순의 y와 원순의 w가 있으며, 이와 결합한 이중모음으로는 ‘예(예러, 諸), 애(애:기, 話), 여(여림, 夏), 야(야든, 八十), 유(윳, 隣), 요(요놈), 웨(웬만한), 왜(왜쟁기, 倭), 위(권:힌다, 勸), 와(광알로, 廣寒樓)’가 있다. 다른 방언에서 볼 수 있는 ‘wi’는 없고 ‘ü’만이 있다.

‘iy’를 비롯하여 하향이중모음은 이 방언에 없다. 다만 간간이 움라우트 환경에서 음성적인 하향이중모음을 목격할 수는 있다(두꺼비 [tuk'aybi]).

반모음과 모음의 결합에 있어서 ‘ywa, ywə’와 같은 삼중모음도 발견할 수 있다.

(8) ㄱ. 뚜��:서 [t'kʰə:sə] (뛰-어서, 走)

ㄴ. 도냐:지 [tuya:jigogi](豬), 말로느냐서 [mallywasa:(말류-아서)

음소적으로 (8ㄱ)은 /t'ywə:sə/, (8ㄴ)은 /tywa:ci/, /mallywasa/이다. 음운론적으로 삼중모음이 분명하나, (8ㄱ)은 매우 격식적인 발화에서만 나타나고 보통의 발화에서는 ‘뛰: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8ㄴ)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삼중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언에 나타나는 삼중모음의 실현을 체계적인 현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 운소체계

이 방언의 운소는 음장만이 존재한다(‘일:(事)과 ‘일’(一), ‘벌:(蜂)과 ‘벌’(罰) 등). 물론 이 음장은 국어의 여타 방언과 마찬가지로 한 기식군의 첫 음절에서만 변별적이다.

체계 외적인 것 중에서 이 방언에서 두드러진 것으로는 표현적 장음과 음조를 들 수 있다. 표현적 장음은 화자의 정서적 표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 방언의 일상적인 발화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음장과 달리 어두나 비어두를 가리지 않는다(예 : 어:트게, 새캄:허니).

이 방언의 초분절적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조이다. 이는 이 방언이 성조언어인 동남방언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접촉방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음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2.1.2 음운현상

○ 모음어미의 두음 '아'의 교체

이번 답사에서 확인한 모음어미는 선어말어미인 '-았-', 연결어미인 '-아', '-아도', '-아서', '-아야', 종결어미인 '-아', '-아라', '-아야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선행하는 어간에 따른 어미 두음 '아'의 실현양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활용형은 첫 어간의 예만 제시한다.

(9) ㄱ. '아'로 실현

① 어간말 모음이 '외, 오'인 경우 :

되-(化) [되어], 쇠-, 오-, 꼬-

② 어간말 모음이 '우'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배우- [배와], 싸우-

③ 어간말 모음이 '으'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고프- [고파], 아프-, 소끄-(束)

④ 말음절의 모음이 '아, 오'인 경우 :

갈- [가라], 담-, 말-, 맞-, 빨-, 높-, 등-, 매달-, 연달-,

⑤ 말음절의 모음이 '애'인 경우 :

밸- [배타라], 맵-

⑥ 말음절의 모음이 '으, 우'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맹글- [맹그라], 다듬-, 가늘-

불구- [불파~불가], 당구-, 식후-, 가두-, 거두-, 받추-, 빠수-, 노누-

ㄴ. '어'로 실현

① 어간말 모음이 ‘이, 으, 우’인 경우 :

피-(發) [파어], 지-(落), 크-(人), 뜨-(浮), 누-(牀), 주-(授)

② 어간말 모음이 ‘우’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피우- [피워], 찌우-, 세우-

③ 어간말 모음이 ‘으’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영끄- [영꺼], 풍끄-

④ 어간말 모음이 ‘위’인 일부 경우 :

뛰- [뛰��:서]

⑤ 말음절의 모음이 ‘이, 으, 어, 우’인 경우 :

짓- [지서](哭), 짖-

긁- [글거], 늑-,

걸- [거리], 털-, 썩-, 업쓰:-//업쓰:-

줏- [주서], 춥-,

⑥ 말음절의 모음이 ‘으, 우’인 일부 다음절어간의 경우 :

더듬- [더듬어]

장구- [장궈], 맞추-, 송구-, 어둡-

모음어미의 두음 ‘아’의 이형태는 ‘아, 어’ 이외에도, ‘∅, 애, 에, 외, 위’ 등이 있다. 먼저, ∅는 어간이 ‘아’나 ‘어’로 끝날 때 확인할 수 있다(예 : 가-∅서 [가서], 서-∅야 [서야]). ‘애’는 어간말 모음이 ‘애’인 경우에 나타나고 ‘애’는 어간말 모음이 ‘애’인 경우에 나타나는데(예 : 개-애서, [개:서], 배-였다 [変え:다]), ‘애’는 ‘되-’(化)나 ‘되:-’(硬) 뒤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 : 되-애서 [왜:서]). ‘외’는 위의 ‘되-’나 ‘되:-’를 제외한 ‘외’로 끝나는 어간과 결합할 때 볼 수 있고(예 : 쇠-외서 [쇠:서]), ‘위’는 어간말음이 ‘위’인 어간과 결합할 때 확인할 수 있다(예 : 꾸-웠다 [꺾:다]).

위의 이형태 ‘∅’와 ‘애’는 ‘이’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 ‘이’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뺏기-’(使脫)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10) 뺏기-어 [뺏겨] ; 뺏기-∅ [뺏기] ; 뺏기-애 [뺏개]

이 세 활용형은 동일 화자의 발화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첫번째의 [뺏겨]

유형은 격식적인 장면에서, 두번째의 [벳기]와 세번째의 [벳게] 유형은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나타난다. 출현 빈도 면에서도 [벳거] 유형은 가장 적다. [벳기] 유형과 [벳게] 유형의 활용형이 이 방언의 전형적인 활용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벳기] 유형은 '이'로 끝난 어간 중 거의 모든 어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벳게] 유형은 말음절의 초성이 'ㄱ, ㅊ, ㄹ'인 몇몇 어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갈치-(教), 기리-(畫), 내리-(卜), 대리-(煎), 맹기-(步), 어리-(幻), 올리-(上), 틀리-(誤), 등).

○ 움라우트

이 방언의 공시적인 움라우트는 체언과 용언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언은 뒤에 주격조사나 지정사가 연결될 때, 용언은 명사형어미 ‘-기’가 연결될 때 볼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 확인한 용언의 움라우트는 몇 예밖에 없었다(보-기 [뵈기~배기]). 체언의 경우에도 ‘우→위’의 움라우트는 움라우트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래의 (11-1) 중에는 간혹 움라우트 후에 원순성을 상실하여 ‘애’로 실현되는 예도 몇몇 있었다.

- (11) ㄱ. 으 → 이 : 용모름-이락하고(용마름) → 용모림이락하고, 비듬-이지
→ 비덤이지

ㄴ. 어 → 애 : 밑구멱-이 → 밑구멕이, 친척-이나(親戚) → 친체이나

ㄷ. 아 → 애 : 생각-이 → 생객이, 토종닭-이(鷄) → 토종댁이

ㄹ. 오 → 외(예) : 놈-이(者) → 뉘이, 아구통-이 → 아구텅이~아구텅
이

이 방언에는 움라우트의 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도 발견할 수 있었다. 주격조사 '-이'가 생략된 채 용언 '있-'이 움라우트를 시키는 경우가 그것인데(예 : 잔 냄 있고, 굵은 냄 있고 그러지), 이는 구 경계를 뛰어넘어서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로 보기보다는, '놈-이 있-'의 구성에서 '놈-이 있-'과 같이 움라우트가 먼저 실현되고, '-이'와 '있-'이 축약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격조사인 '-이서'도 움라우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예 : 한 뱃속이서 똑:같이 나와도 달라), 개재자음의 제약조건과 관련하여 [-grave]의 자음이 개재하고 있어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없이 →캡시)

도 있었다.

○ 경음화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나 활용에서 보이는 비음으로 끝난 어간의 경음화는 이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방언의 특징적인 경음화는 곡용에서 보이는 유음이나 비음 아래에서의 경음화이다. 이 방언의 처격조사는 '-에'에서~-이서~-서'인데, 아래의 (12ㄱ)은 '-서'의 경우이다(참조 : 다른 디-서[디서], 동네-서[동네서], 아곡(地名)-서[아곡씨]).

- (12) ㄱ. 서울-서[서울씨], 남안(南原)-서 [남안씨]
 ㄴ. 오늘-부텀[오늘뿌텀], 자네들-보다[자네들뽀다],
 ㄷ. 모판 실로(載) [모판씰로]

(12ㄷ)은 구 경계를 뛰어넘어 경음화가 실현된 예인데, 한 예밖에 발견할 수 없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경음화가 상당히 강력한 규칙임을 알 수 있다.

○ 폐쇄음 뒤의 'ㅎ' 탈락

이 방언에서도 여타의 전라방언 및 경상방언과 마찬가지로 폐쇄음 뒤에서도 'ㅎ'이 필수적으로 탈락한다(아푸다고 허지 → 아푸닥허지[아푸다거지], 닥 한마리[다간마리]).

이러한 경향은 형태소내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라방언의 특징인데, 이 방언에서는 '하다' 복합용언과 관련해서 'ㅎ'이 탈락되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 (13) ㄱ. 'ㅎ'탈락 : 고약허-, 비슷허-, 빤듯허-, 요마씩허-, 합허- 등
 ㄴ. 'ㅎ'유지 : 독허-, 악허-, 약허-, 착허- 등

○ 자음군단순화

이 방언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활용 중 'ㄹ'로 시작하는 일부 자음군 어간의 자음군단순화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 어간 중에서 방언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ㄹ'이나 'ㄹㄹ'을 제

외하고서, ‘**리**, **래**’의 자음군 어간의 자음군단순화 방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는 하나만 제시한다.

- (14) ㄱ. **리** → ㄱ : 읽- [익뜨라], [익찌], [익꼬~이꼬]
 ㄴ. **래** → ㅂ : 뜁- [듭:따고], [듭:찌], [듭:꼬~똑:꼬~뜨:꼬]

2.2 통시적 특징

통시적인 음운론적 특징은 크게 음소체계의 변화와 통시적 음운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음소체계의 변화에는 개별 음소의 변화 및 이중모음의 변화가 포함될 것이다.

2.2.1 음소체계의 변화

○ ‘ㆁ>오’

전남방언과 일부 전북방언 및 서부경남방언의 가장 두드러진 통시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순음 아래에서의 ‘ㆁ>오’일 것이다. 이 방언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단어에 따라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팟(<포ㄱ, 小豆), 박쥐(<붉쥐)’도 보인다. 한편 ‘ㆁ’와 관계가 없는 단어인데 이러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한 ‘바꾸-어(<밧고-), [보꽈~보꿔]’와 같은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 ‘ㆁ>오’를 겪은 예를 제시한다.

- (15) 보듸>보디(簇), 폴>포리(蠅), 뿔>풀(臂) ; 모르->모르-(渴), 물->몰-(捲), 뿔->밟-(踏), 보르->보르-(粉)

○ ‘△, 봉’의 변화

이 방언에서는 ‘△>ㅅ’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다수 존재한다(가실秋, 모새砂, 가세剪, 거:시姻, 구시槽, 여시狐, 나승개齋). 물론 ‘△>∅’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들도 존재하며(겨울冬, 가이剪, 냉이齋, 볶廚), ‘△>ㅈ’의 예도 있다(노란조지, 흰조지).

‘봉’은 소위 ‘ㅂ불규칙용언’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만(자울睡, 까리葉), ‘ㅂ’으로 변화한 예도 보인다(새비蝦).

○ 이중모음의 변화

먼저 상향이중모음의 변화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6) ㄱ. 야 : 앵(羊), 咘(외래어, 뎅 dam), 뺨(面)
- ㄴ. 여 : 폐-(伸), 骨(骨), 멘(麵), 뱕(瓶), 배실(鷄冠), 경기(境界)
- ㄷ. 요 : 회과(效果), 회도(孝道)~혜도, 폐준말(標準), 외뚱~메뚱(墓)
- ㄹ. 유 : 휴지(休紙), 횡년(凶年), 귀모(規模)

(16ㄱ-ㄹ)을 통해서 '야>애, 여>에, 요>외(에), 유>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6ㄱ)의 '땀'은 '야>애'의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형이라 할 수 있다('땀'은 중세어 '땀'의 반사형임).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인 축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 변화의 중간과정으로 'yay, yey, yoy, yuy'를 상정할 수도 있다(최전승,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1986). 물론, 이러한 변화와 달리 'y'가 떨어져 나간 변화를 겪은 예도 존재한다(비로 肥料).

다음은 하향이중모음의 변화이다. 'ay, ey'의 변화는 생략한다.

- (17) ㄱ. 외 : 혜간(會館), 교회(敎會), 예양간(외양간), 예족(外族) 세주(<쇠
쥬<쇼쥬, 烧酒)
- ㄴ. 위 : 바우(巖), 사:마구(사마귀), 갈키(갈퀴)
- ㄷ. 의 : 으학(醫學), 으견(意見), 으논(議論), 조구(石首魚), 모구(蚊),
무누(紋) ; 피-(發), 비-(空), 밉-(憎), 회이(會議)

'oy'는 '외(ö)'로의 단모음화를 거쳐 현재 이 방언에서 대부분 단모음 '외'로 실현되며, (17ㄱ)에서와 같이 간혹 원순성이 없어져 '에'로 실현되기도 한다(부음 'y'가 떨어진 '토비(堆肥)'와 같은 예도 있다). 'uy'는 어두에서 '위(u)'로의 단모음화를 대부분 단모음 '위'로 실현되며, 비어두에서는 (17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음 'y'가 떨어져 '우'로 실현되거나 원순성이 없어져 '이'로 실현된다. 'iy'는 (17ㄷ)에서와 같이 부음 'y'가 떨어져 나가면 '으'로 실현되거나 원순모음화하여 '우'로 실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단모음화한다.

2.2.2 음운현상

○ 전설모음화

이번 답사에서는 치찰음과 유음을 선행자음으로 하는 ‘으’가 ‘이’로 바뀌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형태소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소경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8) ㄱ. 보십(보습), 여립(夏) ; 무리-(軟), 씨-(用), 썰-(卵)
 ㄴ. 앉았-옹개 [안자씽개], 있-옹개 [이씽개], 잣-으먼(紡) [자시먼], 풀-으러 [쪼치려]

(18ㄴ)과 같은 공시적인 전설모음화는 수의적이다. 통시적인 음운현상이 공시적인 음운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 구개음화

‘ㄷ’구개음화는 생략하고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 (19) ㄱ. 지대-(<기대-), 지지개(<기지개), 짐(<김, 蒸), 씨우-(<끼우-)
 ㄴ. 절리-(<결리-), 절(<절, 傍), 쌀제(<쌀계, 米契), 제시-(<계시-)
 ㄷ. 심(<힘) ; 쐐(<혀), 쓰-(<혀-, 燈)
 ㄹ. 시염(水泳) ; 히-(白髮)

(19ㄱ, ㄱ')은 각각 ‘이’와 ‘y’ 앞에서 진행된 ‘ㄱ’구개음화의 예이다. 모두 실질형태소의 제1음절에서만 관찰되며, ‘y’ 앞의 구개음화는 핵모음이 ‘어’인 경우에 한정된다. (19ㄴ)은 ‘ㅎ’구개음화의 예인데, (19ㄱ, ㄱ')과 마찬가지로 환경은 ‘이’나 ‘y’ 앞이며 실질형태소의 제1음절에 한한다(풀심, 아구심).

(19ㄴ')의 ‘시염’은 특이한 경우이다. ‘에(:)>이(:)’의 변화로 구개음화 환경이 형성되더라도 통시적인 현상인 구개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은디-<-은데, 보디<보더, 쟁기<경계 境界), 이 예는 구개음화를 겪은 듯이 보인다. ‘水泳’에 해당하는 문헌 표기는 ‘해염, 해음, 해움, 해움, 해윰’ 등이기에, ‘y’에 의한 구개음화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19ㄴ')의 ‘히-’는 ‘ㅎ’구개음화의 과도교정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중

세어는 ‘셰-’임), 이 방언의 형용사 ‘히-(히)’와 형태가 동일해서 ‘하허-’(하양-) 등과 함께 화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예 : 머리가 했다 그러죠 하해징개 ‘힌다’. 머리가 마이 했었다(히-었다). 자연히 늙으문 머리가 하여진 거 아니요? 하힌 백발이라고도 허고, 머리가 마이 히쳤네 그럴 수도 있고. 하여졌다).

○ 움라우트

앞에서 공시적인 움라우트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시적인 움라우트의 예만 제시하기로 하는데, 형태소내부나 파생어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기로 한다.

- (20) ㄱ. 으>이 : 깊이-(<끓이-), 딜이-(<들이-)
- ㄴ. 어>에 : 베리-(<버리-), 뜰베이(<뜰벽이), 뜰복새
- ㄷ. 애>애 : 잼기-(<잠기-), 빠뿌챙이(<빠뿌장이, 질경이)
- ㄹ. 오>외 : 괴기(<고기)
- ㅁ. 우>위 : 쉼키-(<숨키-), 모튀이(<모튕이)<모퉁이)

○ 용언의 재구조화

이 방언에서 보이는 용언의 재구조화는 논의의 편의 상 중앙어의 소위 ‘불규칙용언’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ㅅ’불규칙 용언은 이 방언에서 대부분 ‘ㅅ’규칙용언이 된다. 아래의 예는 이번 답사에서 조사한 ‘ㅅ’규칙 용언인데, 어간말의 ‘ㅅ’을 확인할 수 있는 활용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 (21) 붓:-으문(睡) [부스문], 낫:-았다(勝) [나사따], 젓-어서(攬) [저서서], 잇:-옹개(繼) [이승개], 붓-어(注) [부서], 잣-으면(紡) [자시면]

‘짓:-’(作)은 ‘ㅅ’규칙 용언으로 변하지 않고 ‘징:-’으로 남아 있는데, ‘징:-’도 같이 사용된다([지어서], [지:꼬~지:코]).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ㅅ’규칙인 ‘짓:-’은 중앙어의 ‘짓:-’에 해당한다.

‘ㄷ’불규칙 용언은 이 방언에서 어간말음이 ‘ㅋ, ㅌ’인 것으로 변하였다. 아래에 활용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 (22) 跛:-(步) [걸:코, 걸:른다], 炒:-(炒) [눌:꼬, 눌:른다], 增:-(增) [불:코~불:꼬], 得:-(得) [실:꼬, 실:른다]

'ㅂ' 불규칙 용언은 변화의 방향이 두 방향이다. 하나는 모음어미 및 매개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의 'ㅂ'을 탈락시키는 것으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환경에서 어간말의 'ㅂ'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의 변화이다. 주지 하다시피 전자는 전라 방언의, 후자는 경상 방언의 특징적인 변화라 할 것인데, 위 두 변화 방향이 혼재하는 남원 방언은 접촉방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예는 대표적으로, 한 화자의 발화 중에서 '무겁-'과 '개롭-' ~ '개굽-'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23ㄱ)과 '더럽-'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23ㄴ)을 제시하도록 한다.

- (23) ㄱ. 큰 독은 무거웅개 들기가 힘들고. 작:웅개 들기가 개롭제. 개굽다고 도/개굽지/개금다 그래. 무겁고. 무겁지요. 개분 놈은 보드롬헝개 (들고). 개구붕개 들기도 수월하고. 무건 놈은 아무래도 복잡허제. 개붕개 들기가 쉽:다. 무겁어서 못 들겄드라.
 ㄴ. 더:럽우문 빨아야지. 낫을 써어라. 써고. 때가 물으문은. 문지 걸은 거 앓고. 더러서 씨겄냐고. 눈꼽째기 걸은 거 찌:고. 지저분허다고도 하고. 더:럽다고도 허고 그려. 더:러서 씨겄냐고.

'르' 불규칙 용언은 이 방언에서 세 방향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앞의 전설모음화에서 본 것과 같이 'X르-'가 'X리-'로 바뀌는 변화이다(24ㄱ). 이 변화를 겪은 어간은 공시적으로는 'X리-'와 'X르르-'의 다형어간인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둘째는 전설모음화를 겪지 않고 어간이 'X르르-'로 바뀌는 변화인데(24ㄴ), 이 경우에는 공시적으로 'X르르-'의 단형어간으로 처리될 것이다. 셋째는 위의 두 변화가 모두 합쳐진 변화로(24ㄷ), 공시적으로는 'X리-'와 'X르르-'의 다형어간으로 처리된다. 각 변화의 예는 대표적으로 하나만을 들도록 한다. 조사의 미비로 (24ㄴ, ㄷ)에는 각각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찰르지], [불린] 정도의 활용형이 쓰일 것은 틀림이 없다.

- (24) ㄱ. 紿 : 쪼리-지 [쪼리지], 쪼리-(으)ㄴ다 [쪼린다], 쫄르-아서 [쫄라서]

- ㄴ. 斷 : 짤르-(으)ㄹ [짤를], 짤르-았는디 [짤란는디]
- ㄷ. 軟 : 물리-지 [물리지], 물리-어서 [물리서]

위의 세 변화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는 않아서 여러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24ㄷ)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다], [물르다], [물리다]와 같은 다양한 변이형태가 나타나며, 일부 용언은 표면적으로 사동사와 형태가 같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예 : 땀이 흘리고, (땀이 주르르) 흘리지. (작두는) 짤리는 기구).

'애'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는, 용언 '하-'가 이 방언에서 '허-'이기 때문에 '애'불규칙 용언이라 부를 수 있다. 먼저 '허-'의 활용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25) 허-지 [허지], 허-옹개 [헝개], 허-어서 [해:서, 허:서]

활용형 [해:서]는 '하-'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활용형 [허: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애(:)>이(:)'의 통시적 변화에 따른 것이겠는데, 아래와 같이 모든 모음어미와의 결합에서 [허:서]형도 함께 나타난다.

- ㄱ. 허-었다 [해:따, 허:따], 허-어야죠 [해:야조, 허:야조], 허-어 [해:, 허:]
- ㄴ. 글허-어 [그레, 그리], 못:허-어 [모:데, 모:디], 만:허-어(多) [마:네, 마:니]
- ㄷ. -지 안허-어 [-자네, -자니] (생기잖에, 싫잖에; 있잖이, 시언하잖이)

[해:서]형과 [허:서]형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중복되어 나타난다. 공시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자유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언의 '애'불규칙은 '애/이'불규칙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방언의 색채어는 모두 'XX허-'이기에 '허-'(爲)의 활용과 동일하다(3장 참조). 중앙어의 소위 'ㅎ'불규칙이 이 방언에는 없는 셈이다.

기타 용언의 재구조화로 볼 수 있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7) ㄱ. 깎-~깡끄-, 엮-~영끄-, 뭉-~뭉끄-, 쪘-~소끄-
 ㄴ. 다르-~다률-~달률-~닮-(異)
 ㄷ. 몰-~嚇-(運)

3. 문법적 특징

방언의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토박이화자이거나 해당 방언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 보고서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결과는 피상적인 관찰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데, 의미나 기능은 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형태를 확인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를 두도록 한다.

지면 관계상 문법적 특징에 대해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조사, 어미, 의존명사, 보조동사 및 보조형용사의 일부 그리고 색채어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조사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치격조사, 비교격조사, 보조사 등의 일부를 살펴보는데, 이 방언의 특징적인 것 중에서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3.1.1 주격조사

이 방언에는 주격조사로 '-이/가' 이외에, 제한적이지만 '-이가'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 (28) ㄱ. 아영(地名)은 요짝이가 아영인디 경상도허고 경기(境界)라. (아영은
 요 쪽이 아영인데, 경상도와는 경계다)
 ㄴ. 쥐 이빨이가 센: 거요.

3.1.2 치격조사

치격조사로는 '-에'가 있는데, 이 방언에서는 두루 '-이'로도 실현된다(29-1). 치격조사에 보조사 '-가, -다, -서'가 붙을 수 있으며, 보조사 앞의 치

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29ㄱ~ㄹ). 또한 보조사끼리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다가'도 치격조사에 붙을 수 있다(29ㅁ).

- (29) ㄱ. (자식이) 대구의 가서 마이 산:디, 서울의 가서도 하나 살:고. (대구에 가서 많이 사는데, 서울에 가서도 하나 살고)
- ㄴ. 손 밑이가 책이 있지. 손 밑이 책이 있으니까. (손 밑에 책이 있지)
- ㄷ'. 요네이 쭉지애가 붙었어. 쭉지가 그것이 붙었다고. (쭉지에 그것이 붙었다고)
- ㄷ. 옛날엔 사:램이 뚝으문 죽는 약, 그런 약도 작물이다 뿐았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먹으면 죽는 약도 작물에 뿐았어요)
- ㄷ'. 전에 베 같은 걸 열다 담:고 (전에 베 같은 것을 여기에 담고)
- ㄹ. 부모덜이 그냥 학교 보내도 안하고 집으로 만:날 밥이나 시기 먹고 (부모들이 그냥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에서 매일 밥이나 시켜 먹고)
- ㄹ'. 병원서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겠고만. (병원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구먼)
- ㅁ. 요것이 논에다가 집얼 지어놓고 알도 까놓고 그런다고. (요것이 논에 집을 지어놓고 알도 까놓고 그래)
- ㅁ'. 요것은 전에 콩 같은 걸 열다가 여: 갖고 갈아 (요것은 전에 콩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갈아)

3.1.3 비교격조사

특이한 비교격조사로 '-맹기/맹이/매이(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30ㄱ~ㄷ).

- (30) ㄱ. 요 밑이 소재지맹기로 생긴 디가 있어요. (요 밑에 소재지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 ㄴ. 뉘에는 나을 직이 보문은 자잘하니 씨앗맹이로 생겼어요. (누에는 나을 때에 보면 자잘하게 씨앗처럼 생겼어요)
- ㄷ. 깨굼이란 것은 더 작지. 도토리매이 생긴 게 아니라 깨굼이란 건 온행매이로 생겼어. (개금이라는 것은 더 작지. 도토리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생겼어)
- (31) ㄱ. 똑 쌍둥이매이로 생겼네. 쌍둥이 매이라고 글 안해요? 똑같은 사람 들쁘고 글 안해요? 쌍둥이 매이드라. (꼭 쌍둥이처럼 생겼네. 생둥이

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보고 그러지 않아요? 쌍둥이 같더라)

- ㄴ. (불을 켜면 밤에도) 낮 매이다고. 낮이 매이다고. (낮 같다고, 낮과 같다고)

(31ㄱ)에서는 ‘매이-’가 조사로서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쓰이고 있는 예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매이라고’에서 ‘매이-’의 ‘이’가 지정사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승재, ‘-이-’의 생략과 삭제, 주시경학보13, 1994)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31ㄴ)에서 ‘매이다고’는 지정사와의 관련을 부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거그는 옥기동(地名)이다고 가면은 모욕탕도 있고 여간(旅館)도 있고 ……’, ‘보:통 호무다고. 낮이고. 사투리 말로 호매이다고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간접인용문에서 보이는 지정사의 특이한 활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매이-’의 의미는 대체로 중앙어의 ‘같-’과 비슷하지만 비교대상에 쓰이는 조사가 매우 다름이 주목된다. (31ㄴ)은 중앙어에서는 ‘(불을 켜면 밝기가) 낮과 같다’ 정도로 쓰일 것이다.

3.1.4 보조사

이 방언의 보조사로는 ‘-마동~~-마닥, -부텀~~보텀, -이사, -까정~~꺼정’ 등이 있다.

- (32) ㄱ. 맨: 뱅신이랑깨. 아파 갖고 날:마동 아파. 날:마닥 애린 거이라, 다리 가. (완전히 병신이라니까. 아파 가지고, 날마다 아파. 다리가 날마다 아려)
- ㄴ. 걸음마보텀 배와 가지고 야:들 보문 지 혼차 걸어 가거든. (걸음마부터 배워 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저 혼자 걸어가)
 - ㄴ’. 옛:날부텀 말:이 그려. (옛날부터 말이 그래)
 - ㄷ. 어:른이사 머 그런 짓을 하요? (어른이야 뭐, 그런 짓을 하오?)
 - ㄷ’. 내사 남안에 살았기 땀시. (나야 남원에 살았기 때문에)
 - ㄹ. 솔뿌렁구가 여까정 뺐쳤네. (소나무 뿌리가 여기까지 뺐쳤네)
 - ㄹ’. 정심때꺼정 해야지. (점심때까지 해야지)

3.2 어미

어미에 대해서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 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방언의 특징적인 어미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3.2.1 종결어미 '-구마~-구만, -등마~~등만~~드마~~드만, -능마, -옹감마, -ㄴ가마~-ㄴ가만, -다마'

위의 어미는 모두 해체의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구마~구만'은 중앙어의 '-구면'에 해당하는 어미로, 용언이나 지정사에 두루 결합될 수 있다.

- (33) 그. 곰; 아, 그걸 보고 얘기허구마. (고욤, 아,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구면)
 - ㄴ. (이것은) 소코리구만.

'-등마~~등만'은 선어말어미 '-드-'에 '-구마~-구만'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구마~-구만'의 '우'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드마~-드만'의 경우에는 '-구마~-구만'의 '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된 어미일 것이다.

- (34) 그. (여기 말과 저기 말은) 좀 달룽등마. (좀 다르더구먼)
 - ㄴ. (노인이) 집이 있등만. (집에 있더구먼)
 - ㄷ. 거:시레이 대신 고음을 끼여서 그 질을 허드마. (지렁이 대신 그것을 끼워서 (낚시질을) 하더구먼)
 - ㄹ. 이림이 모디기라고 허드만. (이름이 모디기라고 하더구먼)

'-능마'는 선어말어미 '-느-'에 '-구마'의 '우'가 떨어진 채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로(35ㄱ), '-옹감마'는 선어말어미 '-옹갑丛-'에 '-구마'의 '구'가 떨어진 채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로 보인다(35ㄴ). 선어말어미 '-느-'와 '-옹갑丛-'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어말어미 '-드-'와 '-구마'가 결합된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충분히 여러 변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옹감마'와 비슷한 형태의 어미로 '-은가마~-은가만'이 있다(35ㄷ-ㄹ). 이를 두고서 확인 내지 추정의 의문형어미인 '-은가'에 '-구마~-구

만’이 ‘구’가 떨어진 채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옹감마’의 변종으로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옹감마’를 ‘-온가마~-온가만’의 변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선어말어미 ‘-옹갑丛’이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문형어미인 ‘-온가’ 또한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35) 그. 서울이 가서 둘: 살:고 둘: 사눔마. (자식이 서울에 가서 둘 살고, 둘 이 사는구먼)
- ㄴ. (이것은) 막따구리생감마. (이것은 막따구리새인가 보구먼)
 - ㄷ. 그것이 내:내 요것인가마, 보마재비.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것인가 보구먼, 벼마재비)
 - ㄹ. 앉았기가 허리가 아풀가만. (앉아 있기가 허리가 아픈가 보구먼)

‘-나마’는 평서형어미인 ‘-다’에 ‘-구마’의 ‘구’가 떨어진 ‘마’와 결합하여 형성된 어미로 보인다. 다른 전남방언에서 보이는 ‘-당마’는 ‘-다’에 ‘-구마’가 ‘우’가 떨어진 채 결합하여 형성된 어미일 것이다. 다음의 예는 동사 ‘하-’가 생략된 구조이다.

- (36)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나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하고 하는구먼)

3.2.2 연결어미 ‘-음, -음서, -음선, -음성’

연결어미 ‘-음’은 중앙어의 ‘-으면’에(37-ㄱ), ‘-음서’는 ‘-으면서’에 해당하는 것이다(37-ㄴ). ‘-음선’(37-ㄷ)과 ‘-음성’(38-ㄴ)은 ‘-음서’에 다른 요소가 덧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음서’와 ‘-음선’, ‘-음성’의 차이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 (37) ㄱ. 밤: 비닐을 벗기야지, 글안^한 텁텁허거든. (밤 보늬를 벗겨야지, 그렇 게 하지 않으면 텁텁하거든.)
- ㄴ. 요리요리 숨을 쉬서, 별떡별떡 인나지. (이리이리로 숨을 쉬면서 별떡별떡 일어나지)
- ㄷ. 요통게 앞이 깜션 지계를 지고 머이든지 짊어지고 가면 요놈이 뒤따라 오거든. (이렇게 앞에 가면서, 지계를 지고 무엇이든 짊어지고 가

면 이놈이 뒤따라 오거든)

- ㄹ. 요시는, 고만 벤설 고만 나래이 나와버려. (요새는 그만 배면서 그만 벼가 나와버려)

3.2.3 선어말어미 '-느-'

전남방언에서는 '-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 방언에서는 '-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번 답사에서 확인한 어미로는 '-는다~-온다, -는디~~온디, -는~~은, -는가~-은가' 등이 있다. 관형형어미는 형태상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는다.

- (38) ㄱ. 소시랭이란 것이. 고 놈으로 벤대를 쪘아. 벤대를 깨. 벤대 쪽:는다
고. 벤대 쫀:다고 (쇠스랑 그것으로 벤대를 쪘아, 벤대를 깨. 벤대를
쫀다고 해)
- ㄱ'. 밥반찬으로도 묵은다, 뿌리를? (뿌리를 밥찬으로도 먹는다?)
- ㄴ. 쭉 나가문 나래이 나오게 허는디 전에는 고롱개도 했:어. (쭉 나가
면 벼가 나오게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도 했어)
- ㄴ'. 공기 안 들으가야 확 불이 부처 가지고 확 탔디. 공기통이 안 들으
(가야) 딱 꺼져 가지고 숯이 되지. (공기가 안 들어가야 확 불이 불
어 가지고 탔는데, 공기통이 안 들어가야 꺼져 가지고 숯이 되지)
- ㄷ. 술 잘 몫는 사람들은 목이 바짝 모를 때는 술 한잔 묵으면은 침이
들:고 그리요. (술 잘 먹는 사람들은 목이 바짝 마를 때 술을 한 잔
먹으면 침이 들고 그래요)
- ㄷ'. 부르 이름은 모른다, 요거이 암컷은 커고 수컷은 때때기라고 헌가?
(부르는 이름은 모르는데, 이것이 암컷은 크고 수컷을 때때기라고
하는가?)
- ㄹ. 어디를 가는가?
- ㄹ'. 어이, 온가, 안 온가?(어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어말어미 '-겄-, -었-'이나 '업씨-, 있-' 다음에 '-느-'가 없는 형태인 '-온디, -은, -은가'는 올 수 없고, 항상 '-는디, -는, -는가'만이 온다.

- (39) ㄱ. 여개(餘暇)가 없어. 걱정시러버 죽겄는디 …… (여가가 없어, 걱정스

러워 죽겠는데 ……)

- ㄴ. 성킬 필요는 없는 거이고 (숨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
- ㄷ. 촌인디 학뢰이 없:을 수가 있는가? (시골인데 돌학이 없을 수 있는가?)

위 어미와 자음어간이 결합하는 경우에, 수의적인 음절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관찰된다.

- (40) ㄱ. 전에는 젖 물(←묵은/묵는) 놈을 두고 얘기가 뱃속에 생기잔에. (전에는 젖 먹는 놈을 두고 아기가 뱃속에 생기잖아)
- ㄴ. 옷을 안 벗고 세수를 허문은 전:다(←젖은다/젖는다). (옷을 벗지 않고 세수를 하면 (웃이) 젖는다)
 - ㄷ. 피 뺄아 물(←묵은/묵는) 거 아이라 요건 매뛰기구마, 매뛰기. (피 뺄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뛰기구먼)
 - ㄹ. 다듬다고지. (←다듬은다고 허지/다듬는다고 허지)

3.2.4 선어말어미 '-옹갑씨-

이번 담사에서는 '추정'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 '-옹갑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어간으로는 지정사(41 ㄱ)와 동사(41 ㄴ), 형용사(41 ㄷ)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로는 '-느~∅'를 확인할 수 있었다(41 ㄴ, ㄹ). 모음어미가 후행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41 ㅁ). 한편, 선어말어미가 아닌 의존명사로서의 성격을 지닌 '갑'도 확인할 수 있었다(41 ㅂ).

- (41) ㄱ. 요것이 저 겸:자령갑다. 겸:자리. (요것이 저 거머린가 보다, 거머리.)
- ㄴ. 숨아 냉:갑다. (숨아 내는가 보다)
 - ㄷ. 기부이 좋:갑드라. (기분이 좋은가 보더라)
 - ㄹ. 뽕 고놈 먹는 것이 전부 속에 가서 실:이 뒹갑드만. (…… 실이 되는가 보더구먼)
 - ㅁ. 그래서 가래나무 그렁갑씨. (그래서 가래나무라 그렁는가 봐)
 - ㅂ. 고런 이야기 소리 듣고 글라고 그른 갑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가 봐)

3.3 의존명사 ‘땀~땀시~땀세’와 ‘디끼’

의존명사 ‘땀~땀시~땀세’는 중앙어의 ‘때문’에 해당하는 것인데, 후행하는 성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앙어의 ‘때문’은 뒤에 조사 ‘-에’가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언의 ‘땀’은 조사 ‘-에’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42ㄱ). ‘땀시~땀세’의 경우에는 다른 전남방언의 형태인 ‘땀세~땀세’와 비교하여 ‘땀시에>땀세>땀시’와 같은 변화를 상정하여 의존명사 뒤에 조사 ‘-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선행하는 성분은 명사, ‘-기’명사절 등으로 중앙어와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다(42ㄴ~ㄷ).

- (42) ㄱ. 새우젓에서 싸서 먹으면은 독성이 없:어. 그러기 뒤 새우젓얼 넣지.
 (새우젓에 싸서 먹으면 독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을 넣지)
 ㄴ. 갈키나무는 갈키로 긁어오기 땀시 갈키나무라고 했다고 (갈퀴나무는
 갈퀴로 긁어오기 때문에 갈퀴나무라고 한다고)
 ㄷ. 뜻밖에 기온이 하늘에서 변동되아 가지고 그거 땀시 농작물 피해 만
 히. (뜻밖에 기온이 하늘에서 변동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농작물 피
 해가 많아)

‘디끼’는 관형절을 앞세우는 의존명사인데, 이번 답사에서는 ‘-을’관형형 어미를 앞세운 예만 확인할 수 있었다.

- (43) 곧 갚을 디끼 해 갖고 돈 있는 사람한테 술도 받아 주고. (곧 갚을 듯이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술도 받아주고)

3.4 보조동사 ‘버리-’와 보조형용사 ‘잡-’

다른 전라방언에서는 ‘버리-’의 선행 용언으로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이번 답사에서는 ‘버리-’의 선행 용언으로 동사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어미 ‘-아’가 요구되는 점은 중앙어와 마찬가지이다.

이 방언에서 ‘버리-’는 11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버리

-, 부리-, 비리-'에서 어두경음화된 '(*빼리->)빼리-, 뿌리-, 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간말의 모음이 탈락된 '별-, 불-, 뿔-'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간말의 'ㄹ'이 탈락된 '부-, 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4) ㄱ. '버리-' 내: 버리야지. / 가 버리지.
- ㄴ. '부리-' 말아 부렀지. / 안 보내 부렀어.
- ㄷ. '비리-' 막아 비리면은 / 끓아 버리. / 돼 비려. / 띠: 비렀어.
- ㄹ. '빼리-' 겁덕을 뺏겨 빼리고
- ㅁ. '뿌리-' 잡아 뿌리야
- ㅂ. '빼리-' 시상 배리 빼리고 / 몰라 빼리문 /해 빼리야지.
- ㅅ. '별-' 나와 벌어
- ㅇ. '불-' 나와 불지. / 틀려 부렀지./ 되야 불지. /들어붙어 불어.
- ㅈ. '뿔-' 들어가 뿔고 / 챙히 뿐는 /피여 뿘개 / 없어져 뿌렸어.
- ㅊ. '부-' 밑에를 구실러 부면
- ㅋ. '뿌-' 자빠져 뿌잖애 / 폐내 뿌고

보조형용사 '잡-'은 '희망'을 뜻하는 중앙어의 '싫-'에 해당한다. 본용언과의 연결이 '-고'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어의 경우와 같다. 다만, '추정'의 '싫-'이 쓰이는 구성에서는 '잡-'이 쓰이지 못하는 듯하다. 이 방언에서 '잦-'은 나타나지 않고 '잡-'만 나타나는데, 'ㅂ'불규칙 용언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45) 굽고 잡고 (굽고 싶고) / 묵고 잡잖여. (먹고 싶잖아) / 묵고 자문 묵고
그러지요.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지요)

3.5 색채어

이번 담사에서 확인한 이 방언의 색채어는 '赤, 白, 青, 黃'에 대하여 '빨
글허-, 하허-/흐허-, 팔허-, 놀허-'이다. '黑'에 대해서는 '시컴허-, 새컴허-'와 같은 접두사가 붙은 형태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소적으로는 '빨그라-, 파
러-, 노러-, 하어-/흐어-, 시커머-, 새카머-'와 같지만, 그것이 모두 '허-'(爲)
임은 기준 논의(정인호,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24, 1999)에

서 밝혀진 바 있다. 이 방언에서도 이 색채어의 활용양상은 모두 ‘허-’(爲)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赤’을 뜻하는 ‘빨글허-’는 전남 보성에서만 쓰인다고 한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 공편, 태학사, 1998)을 제외하면 보고된 적인 거의 없는 어형이 아닌가 한다. ‘白’을 뜻하는 ‘하허/흐허-’ 역시 다른 방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 방언의 특징적인 어형일 것이다. ‘青, 黃, 黑’의 어형은 다른 전라방언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음교체에 의한 농담차의 색채어도 포함시켜 이번 답사에서 조사한 활용형을 아래에 모두 제시하도록 한다. 기본 5색의 색채어 이외에는 (46b)의 ‘부허-’(뿌옇-)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6) 그. 빨글허지 / 빨글현 / 빨글허게 / 빨글혀 갖고 / 빨글해 갖고
- ㄴ. 하현 / 흐현 / 하헤져.
- ㄷ. 새팔허다 / 새팔허네 / 시펄현 / 시펄해. / (이끼가) 시펄해 찌였다고
- ㄹ. 놀:허니 / 놀:현
- ㅁ. 새캄허지 / 시컴허잖여/ 새캄해 쥐. / 시컴해 갖고
- ㅂ. 갈아 가지고, 보현 콩물이 나오면은 솔이다 옛고
- ㅅ. 산딸기는 이 밑에서 벌어져 갖고 가운데서 빨그레이 있는 거이고
- ㅇ. 알래이를 빼 갖고 노:레이 익으문 고음을 빼내뿔고
- ㅈ. 요렇게 빨그레이 하고 죄:간현 거.

(46ㄱ-ㅁ)을 보면 활용양상이 ‘허-’(爲)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다.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모음어미와 결합할 경우 ‘허-’(爲)의 활용이 ‘혜:~허:’인데 비해서 색채어의 활용은 ‘혜:’만이 보인다는 점이다.

(46ㅅ, ㅇ)의 ‘빨그레이, 노:레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간인 ‘빨글허-, 놀:허-’에 부사화 어미 ‘-니’가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다. 이 어미는 “‘하다’형용사나 그로부터의 발달인 허를 가지는 형용사에 결합한다는 형태론적인 어기선택제약”(김창섭,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른 서남방언의 특징, 한국방언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을 가지는 것이기에, (46ㅅ, ㅇ)은 ‘빨글허+니→빨글허니→빨글허이→빨그레이→빨그레이’, ‘놀:허+니→놀:허니→놀:허이→노:리이→노:레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다른 한 가지 방식은 ‘뻬그레-허니’, ‘노:레-허니’ 정도의 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 ‘뻬그레, 노:레’는 어근적인 요소로 이해되는데, (46자)의 ‘뻬그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이상에서 음운과 문법 면에서 남원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남원 방언의 특징이 살펴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았다. 문법적 특징에 있어서는 논의가 거의 형태론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어휘적 특징은 언급조차 못하였다. 접촉방언으로서의 남원 방언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것이다. 함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완만한 고개, 마을 단위로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현지 주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한다면 남원 방언의 진정한 특징은 바로 접촉방언이라는 데에 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조사된 녹음자료를 부록으로 싣는다. 부록은 제보자의 발화를 모두 옮긴 것인데, 표기하는 원칙이 통일되지 않았고 또한 자료의 정리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어 실기에 부적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답사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실기로 하였다.

남원군 운봉읍 녹음 자료

<테이프 2-A>

저 가온뎃 집. 둘:이 다 같에요 왜, 틀리디요?(틀리던가요?) 몰:라, 나는 그런 것도 몰:라. 아이지요(중저고저). 이새(移徙)[isyε]. 그거 잘 모르겄네 요(저저저고저). 째:간해. 노인들 마이 살아요. 요부락은 젊운[절문] 사람이 마이 살아요. 남안. 여가 쟁기라요. 요 밑이 소재지맹기로 생긴 디가 있어요. 거가 쟁기라, 쟁기. 쟁기선(境界). 논 물 담아 놓고 써리 놓고 있다가 다 기계로 또 모 승구잖아요. 오늘부텀[뿌텀] 모 승겄어요. 우리. 처짝으 잔다래는 쌩 승구고. 큰다래는 쓰리 높:다가 토요일 저녁 때나 아:들이 오문. 지금 한 나잘만 시길락힌디, 잠도 안 자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문 아침이 들온 단디, 일:도 시기도 못허겄어. 일요일날 옥:에(오후에) 간당깨. 또 오문 일:도 못해. 김치 담아서 보낼라문. 메누리, 딸, 서이. 서울에 있어요. 딸이랑. 일요일날 쪼깨 도와 준다고 오기는 온디, 일요일날 오후에 간디 도와 주긴 언:제 도와줘. 토요일날 늦게 오문 아척 때 자야지, 오후에나 쪼깨 하: 줄랑 가? 이리 애쁜 사람들이 와 갖고 땡기 쌍개. 매오(매요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다마. 고런 이야기 소리 듣고 글라고 그릉갑이라. 눈만 뜨문 새복이 일곱시 밥해 먹으문 나가. 들:로. 바쁠 때 왔고만. 니열(來日). 여가 조께 높운 지대라서, 젤:로 높운 지대라요. 차가 오문은 함양써도 이렇게 생겄어. 남원 써도 이렇게 오문은 여그로 올라오잖아. 여가 젤:로 높운 지대라서 추워. 젤:로 추워. 모 승군 거 경운기로 모판 실로(載) 갖는 …… 밥 둑으문은 테레비 쪼깨 아홉시 니:스도 어찌문 못 듣고 …… 되아 갖고는(疲困). 나는 다리가 아파서 질:질: 끗고[끄끄] 땡기도 그냥 들:로 막 나가 …… 어찌게 다리가 아파서 …… 요런 세상을. 다리는 너무 아픈디 들이 가서 일을 헐라니까. 몸땅이는 성현 것 맹기 한다, 예리 갖고는. 예리다고. 간질염 파스를 맷개씩 붙이 놓고, 죽도 살:도 못하서 헌 거이라 …… 시골이서는 그전에 우리 큰언니는 졸업을 했는디, 시집 보내놓깨 시집가 갖고는 시집살이 못 산다고, 막 펜지 오고 근다고 학교를 안 보내 부렀어. 우리 친정아부지가. 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시골에서 보듯:이 배운 사람 배오고, 아조 없:어

갖고 못 배오고 부모털이 그냥 학교 보내도 안하고 집이서 만날 밥이나 시기 먹고, 일이나 시기 먹고 그릉깨 배오도 못하고 궁깨로 글자도 모르지. 멋:도 모르지. 불괜찮께, 궁깨 못본 당딸잉께 서울 같은 디 아들네 집이도 못: 가. 찾아 가도 못히. 그릉개 즈:가 나와서 델꼬나 가문 가까 가도 못혀. 애트전(애터지-ㄴ) 세상 마이 살:고 곧 죽을 때 됐:어. 봄에는 근:강한 것 맹긴디, 맨: 벙신이랑께. 아파 갖고. 날:마동 아파. 날:마닥 에린 거이라, 다리가. 물팍 요것이 요렇게. 빼주사를 맞고 그전에는 젊어서부턴 아파농께 젊어서는 모 숭굴라문 빼주사를 맞고 오문 넉달은 안 에리. 그리갖고 도로 떨어지문[떠르지문] 도로 에린 거이라. 빼주사를 맞으문[마지문] 또 빼가 삭아서 바삭바삭해진다고 그렀쌓갖고는 그른다고 싸서 빼주사도 못 맞고 날마동 이렇게 에린 거이라. 닥신탁신탁신 에리고 저녁으로 꽃챔이 들문 거식허까, 에리 싸서 잠을 못 자. 그리갖고 허리가 아파 갖고는 빼주사를 계속 맞았디이, 갈비빼가 쑥 다 녹아지고 없:드라네. 결혼 히 갖고 병원이 서. 누었었다나. 갈비빼. 다 해 여 갖고 산대야. 무신 병원에서 쎈가(쇠) 멋:을 어찌 걸어갖고 맹글아 연:다대. 병원에서 멋:을 였대[여때]. 여: 갖고 갈비를 맹글아 갖고 한다 그래. 그런 주사도 못 맞제. 참:고[창:꼬] 그냥 억지로 맹김서 허는 거이라. 논 써리 노문은. 기계로 써리 노문 막 웜퍽진퍽 그령잖아. 패인디는 패이고, 노푼 디는 노푸고 그 놈울 일일이 깽이로 굽어댕기 갖고는 판판히 골라야된당께. 논이서. 아푼 다리. 겨울이 놀: 적에는 들: 아파. 엄써 갖고. 제우(겨우). 딸도 우리 살:드락, 늙어 죽드락까장은 대:준다 했어. 식량은. 내 이름 멀:라고 이름도 못 써 갖고 내놓도 못히. 옛날이 요상하게 지여 갖고 으:치게. 병원이 가문 이름 같:라고 머라그렸쌓는디요. 김토순. 톡 털어 갖고 아들 노라고 그렸대요. 병원이 가 갖고 그르문 이름 같으라고 난리라요. 이름 못씨다고. 토수이가 머이라 막 그렸쌓고. 으:른들은 방현써 살:고. 옛:날에 살었어요. 거그는 옥기동이라고 가면은 모욕탕도 있고 여간도 있고 그 앤이 뱜[t'əm] 막아 놨:디요? 그 앤이 동네가 멧 가구 있었어요. 지금 뱜 막았잉께 움:찌(無). 운봉멘. 옥기동. 잘 가시요 이↗. 니열. 여개가(餘暇) 없어. 걱정시러버 죽겄는디. 손지(孫子). 좀 앓아요(저고저). 아침으로 일찍 나가요(저고저). 이파리. 그런 할매한티 가보지. 어리서(幼). 사램이 없어. 호박넝쿨. 이만사천언. 질쌈했지. 그런 것은 더 우

리보단 더 할매가 잘 알아. 나도 많기는[망키는] 많은디. 그리, 어디 잘 디랑 마린히 났소? 일 안 가고 노는 할매들한티 가야 대. 알아볼라문. 이 동네서 태:난 사람? 혜간 있지요? 혜간에서(會館). 고짝 골목. 저:리 말:고 이 큰동네로 붙어서 또 질이 있거든. 쟁미소에서 저:리 가는 게 있고, 또 요리 가는 게 있고 글않디요? 고:리 가문, 요 동:네로 붙어서 가문 첫집 여그서 태이난(태어난) 할매. 농사도 안 짚고 넘우 일도 안 땡겨. 정순이. 채정수이('ㄴ' 탈락). 문패 붙어서 보문 알지요. 씬우네 집이 아들 여운 닥히서 거그 가니라고[가이라고]. 쉬야지[syüyají](休,) 자야지. 이른 촌에 오문 오만 거이 다 불편하고 고생인다. 이 동네 아이고, 어디 식수(숙소)는 정해 났소? (녹음 잘못됨) 요념에도 있고 그거 못히[모디]. 일이 얼매나 많은디. 가리등 밑이. 땅기 가요. 문패 : 채정수이. (녹음 잘못됨)

<테이프 2-B>

만해요 할마이. 어디로 가시끼요? 다 다른 디서 왔지요. 저, 아곡씨요. 요 너매 가문 아곡이라요. 애앵멘(아영면). 모르겄소. 여그 살았어요. 알궂인(전설모음화) 사람들. 또 가심 물어보이소. 들이 가고 사람 하나 없어요. 사램이. 볼일 있어서 갈라고요 이. 나 눈이 짐짓히 사:람을 몰:라. 모도(모두). 집이 있등만 노인. 보로(바로, 直). 아곡이란 디. 다툽지[다르치]. 아문(그럼!, 암!). 아영은 요짝이가 아영인디 경상도하고 경기라(境界). 경상도하고 고리 경기고. 여가 가깝거든[가까꺼등] 경상도가. 탁혜-. 백년 되았어. (가산리 말과 아곡 말은 좀 다르다). 좀 달룽등매[달르통마]. 여그 말이 좀 시끄러버. 말이 빨르고 씨끄럽고[씨끄러꼬]. 남안(南原). 남안잉개(南原). 남안모덕이. 이립이 모덕이라고 허드만. 그렇디 않은디 모덕이라고 허데. 마을이 모덕이라고 라고 때가 지라고 빤디(빨-는데). 옛날에는. 밭도 매고. 밭 매고[밤매고]. 논이 가서는 지심[čisim] 매고. 논두리도 배:고. 말아(勿) 부렀지. 디들뺑애. 찢었어요[찌여써요]. 찢어[찌여] 묵고. 촌인디 학복이 없:을 수가 있는가? 고치도 같고 마늘, 고치 같:고 시방도 간:혹 같아 묵는 시방도 하낙썩 있어. 밭이 일 나강께로 안 되야.

조금 더 있이문 모 송구먼은 한가허거든요[드요]. 인지 한 십일 후, 열흘

후요. 열흘 후쯤 되문 모 끝나거든요[드요]. 한가하고. 지내간 날. 요시는 정신 없니요. 병신도 전부 다 인나서 모 송구고 모도 …… 모도 그런다고요. 그럴 거요. 암매(아마). 그른가 모르겄니요. 저 안에 있을 거요. 가 물어 보시씨요. 그런 단기라요(段階). 급지요[글치요]. 근디 시방은 야:주 시방 엄:씨요. 야든 살인디. 살아요. 하무요. 인자 약 뿌리고 들에, 논에, 논으로 나간다고요. 모르겄소 모르겄니요. 빨강 지아집(기와집). 병원서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겄고만. 거기서 보문 배:지요(보이지요). 나보담 나이가 더 묵어요. 더 묵고, 여기서 자라난 사람이라요. 병원에 갔었는디 왔는가, 안 왔는가를 모르겄네요. 이거 안 독해요[도캐요]. 사람기[사랑기] 들: 좋다고 그렇게 약을 안 하요[안니요]. 옛:날엔[옌:나렌] 사:램이 묵으문 죽는 약, 그런 약도 작물이다 뿐았어요. 뿌리 가지고, 고추 걸은 것이나. 오이 것은 거. 묵을라고. 탄:자뻥이라고. 고추가 열어 가지고 새캄:허니[허이] 썩어 들어가요. 썩어[써그](‘으’ 발음에 가깝게 남). 탄자뻥 약이라고, 암시랑토 않지요. 흑간 왔이문. 모 끝나문[끈나문]. 운봉멘 전치가 거자(거의) 맞먹니요. 한쪽머리 송구기 시작허문 연달아서 …… 끗이[[꼬시]] 난다고요. 한가허니 좋다고요. 논:다고요(遊). 모다 뫼:서(集). 이봉샘이네요. 이봉샘이. 소 몰코 가서 흑탱이 될 챔이라요. 흑탕. 싯거야지[시거야지](洗). 농촌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디 …… 이런 것이 농민이라요. 십일 안짝으로는 연신 더 바빠지고. 늦구든지(늦추-). 승궈겄냐, 안 승궈겄냐. 그럴 때는 논:당개요. 전하(電話)[tʃənfa]. 무신 옛:날 요상시런 뱅 같은 거 요런 걸 묻:고 그렀쌓디요. 병원이서 왔이문 잘 갈체주고 그럴 거이고. 요시 뷔이 좀 덜: 좋아 가지고. --라요.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모르겄고. 그 집이 가서 얼른 소리해도 방이 딱 들어앉았이문 잘 딛기도 안 허고 그리요. 할매. 한아씨.

비로(肥料). 에렸을 적으 부모를 일찍 잊고[일코] 나도 형제간도 삼형제나 됐었는디, 형제간들도 싹 다 시상 베리 빠리고. 우리 야:들은 많:소[만:쏘]. 야:들이 시방 구남매나 넘:지래[넘:찌라]. 대구이 가서 마이 산:디(살-는데, '-느-' 부재), 서울이 가서도 하나 살:고. 서울이 가서 둘: 살:고. 요 우로 올라가문은 할마이들 마이 있소. 시방 산일한다고. 남안싸 오셨는디. 그리갖고 이 동네 사람들 같으문 나도 간디(가-는데) …… 집안 형수라. 할마이들 마이 있어. 마이 있디요. 아적밥을 아까 묵었디이, 마이 묵을 수도 없

고 나왔어요. 논이 한 사:천팽 뒹개. 세만(稅, 구개자음). (쌀이) 시물댓:가마니는 들어와요. 에뤘을 적보텀. 모닭지(集). 야:들 …… 갈쳤어. 갈치고. 요너매. 산너매. 다리 견네오문. 공기는 좋:소[조:쏘] 여가. 전에는 소로 가지고 농사 안 졌소? 쟁기를 …… 찌워 가지고 …… s'yöjënggi(쇠쟁이)를 해 가지고 손잽이는 나무고, 밑에 땅바닥 간: 놈은 쐐고[s'yögo](鐵). 쟁기라고. 쟁기라고 했다고요. 쟁기 보십이[posyibi] 있고 성에가 있고. 성에랏 것은 쟁기로 가:는디 쭉 나가. 나가갖고 끄트머리 나무가 있으면은. 전에는 지푸락 갖고. 쟁깃줄을. 있잉개. 물도 안 씨고 좋:지. 개붑고[개부꼬]. 써:리란 것은 쭉 있이문은 밭:이 여러 개라. 고 놈을 가지고 소로 갖고 찌워 갖고는 털어서 벗대를 깨:서 써리면은 고거이다가 모를 심고[심꼬] 그렸어요. 갈아 갖고. 소시랭이란 것이. 고 놈으로 벗대를 쪘아. 벗대를 깨:. 벗대 쪘:는다고. 벗대 쫀:다고. 써:리.

<테이프 3-A>

안 가 빼렸어. 할무씨[halmus'yi](할머니). 할무니(현대). 파랑재[파랑째]. 넘어가문. 여그서는 나락이락헌디. 보통 벼라 그러지. 모 때는 모락하고[모라거고]. 껌덕을 벗기문 왕제. 쌀을 또 재:별 벗기거든요? 고것은 죽제락하고. 경상도 말로는 냉기라곱디다. 원 큰껍데기 그거는 왕제락하고. 헨미(玄米). 벗기 갖고. 죽제 고 놈은[고노문] 짐승 같은 거 맥이고. 대:지(豚) 소 같은 거 맥이고 그래요. 상:모 돌리네. 깽가리[k'ëggari]. 야:들도(兒). 치문은(打). 소:구. 장구. 징. 쟁기도 요것언 쟁기 보십이라고 헌 거이고. 요건 성에라고 헌 거이고. 손잽이. 명애. 얹어 갖고는. 야물게 감아 갖고는. 갈:문은(耕). 이라(가!)/ 쉴:[syü:]] 적으는 워!. 나도 다 잊어버렸소. 웨챙기[wëjënggi]. 꾸 갖고(貫). 써:리(써래). 써릿발. 찌워(捶, /찌우-/). 가지고. 요것도 써리 식으로 생겄니요(저저고저). 호미/자루. 호못자루. 호맹이. 보:통 호무다고. 낫이고(낫+이고). 사투리 말로 호매이다고요(의 약화, 탈락). 근디 호무가 맞아. 호매이라. 우리 할마이 있어. 어마이날인가 아바이 날인가 된다고 우리 야:들 다 온다요. 목쟁이(나무꽝이). 요것언 잘 모르겄네. 소시랭이라고 헌 거이고. 삽이요. 이것 잘 모르겄소. 싸:(積) 놓고는[노코는]. 비눌가리

[pinulgari]. 전에는 우리 애렸을 지만(제>지) 해도 가락흘태라고 쪽쪽 이릉
게 훑었어요[훌터씨요]. 요걸로 쪽쪽 훑었었는디. 그러다가 발로 블운[볼분]
놈이 나왔어. 발로 블아 갖고, 둘:이 블아 갖고 …… 그걸 보고 기계흘태라고
그랬어. 요시는. 고만 범성 고만 나락이 나와 버려. 올려 갖고는. 요것언
훑는[훌른] 것도 아이고. 훌치기. 하낙썩 훑어 갖고. 우리도 잘 몰:라. 써리
흘태. 발:로 블:는[봄:는]. 요시 콤바이가 나옹께 아:무 일이 없어요. 두름발
(햇빛차단). (우물에서 사용하는 것) 두름백이라거고(움라우트). 그릉개 나
락을 말륜 것은 명색이라고도 허고, 덕색이라고도 허고 그래요. 짚덕석. 덕
석을. 짚으로[지부로]. 꼬드랫방석이라고. 꼬드랫방석. 꼬드랫방석이라고도
해요. 말랴서. 틀이 있어요. 가는 사내끼를 까 갖고. 가는 새끼를 까 갖고.
날아(길게 늘어 놓음). 날아 가지고. 보디. 보디 있고 바늘 대가 있어요. 보
디 이 놈으로 요리 볼리먼은. 쑤시면은. 쑤시문. 벌리면. (가마니) 마이 쳤어
요. 벗짚으로[베찌부로] 허지요. 덕색이라고도 허고, 명색이라고도 허고 그
려. 요렇게 까: 갖고 가마이도 날고, 나무 같은 것도 뭉꺼서 날고 그랬어.
날아야 가마이 같은 거 치고 그려제. 그것얼 현물을 말허자문 직접 봐:야
알:제, 그것언 가마이 틀이다가 난:다 이러제. 현물을 봐:야 알:제, 몰:라. 모
르고, 나도 가마이 나는 식은 알:주만은, 그건 갈치 줘도 모른다고. 나는(날
-는). 도리깨락허요(-라고 허요). 도르깨[torik'ε] 열이고, 장치, 꼭지. 콩도
뚜두리고, 보리도 뚜두리고. (도리깨/도르깨 공존). 손잽이. 셈: 일(힘든 일).
덕식이네(덕석-이네). 고드랫방석. 깡어리(광주리). 벼드나무 껍데을 벗겨
빼리고 속: 알랭기로 이렇게 만든 거이라. 합백이라고 …… (합박+이라고)
소코리고만. 꼬드랫방석. 맥씨리//맥파리(두 어형 공존). 전에 베 같은 걸 옞
다 담:고. 나락도 담:고[당:꼬]. 거랭이(재 담아서 내는 것). 산태미락허요[산
태미라거요]. 산태미는 산에 가서 비얄이[비야리]나 이른 걸 젓다가 영께서
허는 거이고. 산에 가문 비야리라고 있어요. 요것언 물 오릴 때는 안 되고,
물 가라앉힐 적에 젓다가 해야. 그 때는 나무가 무릉개. 야물까요(야무져
요). 야물찌게 갖다가 해야 이 놈이 야물까요. 밭일[반닐] 헐 적이 같아 놓
고는, 씨앗 뿌리고 거름을 갖다가 재:지. 이런 디서는 나무를 땅개 재 같은
것도 긁어 내:고. 당그래(재 긁어 내는 것). 부지땡이[pujit'eqi]. 큰정지. 작
은정지. 큰정지는. 짹은정지. 소죽 짹이는 데는 세죽정지라고 허고 그래. 큰

정지서는 주로 밥 같은 거 허고, 작은정지서는 국 걸은 것도 끓이고 그러지. 큰집이죠(人). 부억이라고(불 때는 디). 정지/부억. 긁는[궁는]. 긁어다가[글 거다가]. 풍꺼서. 갈쿠리/갈구리. 가실이 마이 혀. 추운 디라서. 춥기[추끼] 전에. 겨울이. 봄/여름/가실/겨울. 높운[노푼] 지대라서. 이파리가 피야 (경치가 좋지). 입이(葉+이). 이승기(이성계). 서울써도 오고. 땘:감. 나도 지게가 있소. 도구됭이고만[togut'hönjigoman]. 도구통[toguthon]. 전:(찧는) 것은 도굿대[togut'ε/togut'ε(두 발음 공존)]고. 절구됭이라고. 사투리[sa:thuri] 말로는 도고통, 도곳대. 도굿대[togut'ε] 디딜방아락허요[디딜빵아]. 확:이락허고. 확:. 나락 걸은 걸 붓고도[부꼬도](붓-, 注) 쟁고[찌코]. 방앗 고[방암#고]. 딛고[디꼬]. 딛으문. 올라가문. 붓고는(붓-, 注).

<테이프 3-B>

눈을(雪) 친다. 눈:이라고. 요것도 눈이고 겨울에 오는 눈도 눈이라. 눈: (雪). 쓸어요. 비자리(빗자루) 요것은 전에 콩 걸은 걸 열다가(여기다가) 여:(넣-어) 갖고 같아. 같:문은. 맷돌이란 거요. 같아 가지고. 부힌 콩물이 나오면은 솔이다. 옹고[여코](넣-). 간수를 여:문. 어리그덩(덩어리지다). 어린다고지. 꽉 짜. 짜문은. 젖어서. 눌리문은(/눌리-/ 壓). 장 담을라고[다물라고]. 배야 갖고. 쪼끔씩 흘려요. 팔았어요(賣). 만들아 갖고는. 뚜붓집이 있어. 콩을 불거 가지고는 맷돌에다 같:그덩. 당가(담그-) 가지고. čheji(키) 까불제. 나래이나. 문지. 껌데기. 얼계미. 열다가(여기다가) 치문은 모새 같은 것도 칠 수가 있고. 곡식만. 구네이 크고만. 밀: 보리. 캄보기. 보리는/버리는(공존) 보:통 가실로 같:그등. 시한이 새뿌리를 내려 가지고 봄이 이 놈이 자라 갖고 여름이(여름에) 다 자란다 같아 봤지만은. 가실이 같:문은. 오좀을 마이 안 받소? 장군 쳐다가. 역부로. 비로 없고[어꼬] 헐 직이는 전에는 비로 없고[어꼬] 헐 직이는 오좀을 역부로 막 사랑을 히 갖고 받아서 밭이로 끌고 갔어요. 거름. 덮어만 놓지. 봄 되문 풀이 안 나요? 나락 논이는 기심 매로 간다고 그리고, 밧은 밧 매로 간다고 그리고. 열매 줄라고. 논 매로도 간다고. 밧을. 밧을 고친다 그러지. 같아 가지고. 두택이고. 밑에는 고:랭이고. 밭고랑. 밭두덕. 고:랑. 고:랑 안 있다요?(저고저, 있지

않던가요?) 지금은 비늘이 다 지났어요(저저고저). 기냥 승겼었어. 기심이 마이 나고 그러지. 애를 먹었어요. 가실에 간 것은 보리백이 없어요. 꼬치들또(고추). 옮길[옹길] 거이라. 수북허니[허이] 컸어요. 비만 오문은 곧 옮길[옹길] 거요. 마이 컸어요. 콩 심고[싱꼬]. 팟 심고[싱꼬] 쪼꼼 있어문은 짐장거리 승궈야지. 시한 묵을 짐장거리. 나 만날 논:(노는) 사람이라.

<활용조사표>

(눈에) 티 들어 갔다고. 테[the]. 태라고지[the]. 안:경 테제메(안경 테이지, 뭐). 쓴 냥반들이 모르고 별:통이라고지. 꿀이 나오디요. 꿀이 나오는디. 꿀을 박아. 박아 가지고. 쥐[čü](鼠). 외삼촌. 외숙이라고도[ösyugiragodo] 허고 외삼촌이라고도 허고 그려. 작은 아부지. 큰아부지. 외삼추이라고. 외족 [öjok] 아니요, 말허자문. 예삼추이라고 허고 그려. ('외'의 원순성이 많이 없어진 상태). 아푸다고. 개랍다고도(괴롭-) 허고. dnü(뉘). 소마구/에양간(외양간). 외아들('외'이긴 하나 원순성이 좀 약함). 오른손/왼손('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순성이 좀 약한 경향이 있음).

익었다[igat'a]. 솟이(솔). 설랩이 되제. 마차서(맞추-어서). 죽랩이 되지. 스지. 스고(酸). 파고 묻어 노문은 안 시여. 작:게(少). 막는다[망는다](鎖). 구네이. 막아라[마가라]. 절에(傍) 사람이 지내다가도 구네이 났을 것 같으 문 물이 빠지고 허문 아무라도 보고 막아 줘요. 가닭던 물을 빠지문은 못: 씨잖에. 곡식을 승굴 수가 없:잔에. 바램이. 문을 꽉 닫아라. 막으문은. 문풍지를 달고 있드라. 문풍지를 달아야만이 문을 닫으문 꽉 생길(잡기-근) 거 아니요? 바람이 안 들어오제. 구네이 났드라. 막는다고[망는다고].

끊는다[끈는다]. 끊지[끈찌] 말아라. 끈뜨라. 끄느문. 끈는 사램이 나뿌제. (/끄느-/) 사다가만 써 뺐지, 만들아 보든 안 했지. 몰:라.

신:는다. 다 야:는 거 아이요? 신기[싱끼] 줘:라. 신었다[시너따]. 신:고[싱:꼬].

<테이프 4-A>

잡샀다(食). 벤:다. 맨:다고(잡초). 나물 캐러도 간다고. 뜯는다고도[뜯는다 고도]. 뜯으로. 캐로 간다고도 허고 그려. 캔다. 뜯는다[뜯는다]. 뜯고[뜨꼬].

캐고 있다. 캐 와라. 뜯어 와라. 닫아래[다다라]. 닫옹개[다등개]. 닫는대[닫는다]. 저그 집이 올라고 문을 닫는다. 닫고[다꼬] 있드라. 똑같대[또까따]. 쌍둥이라서. 똑같드라. 똑 쌍둥이매이로 생겼네. 쌍둥이매이라고 글 안해요? 똑같은 사람들쁘고 글안해요? 쌍둥이 매이드라. 커다(人) 작:다. 사:램이 컨 사람은 크게 신:고[싱:꼬] 작은 사람은 작게 신는다 글 안해요? 보꿔/보파 신으문('으'의 변화). 흑여 마이 놀:다가 신발 같은 거 바꿔 신을 수가 있잔요. 배겼드라. 탁했드라. 쌍둥이[쌍두이]매이드라. 탁했다고. 짚드라. 야춘 디는 야춥드라 말 안 허요? 기푸문은. 기푸드라. 야충개. 기풍개. 기푼 디는 힘들드라. 짚어서[기펴서]. 緊:는대[촌:는다](축). 쪘아래[쪼차라](逐). 난다(飛). 그러죠 앉았다가 날아 가드라. 앉았다(坐). 쭉지. 날았이문. 울:드라(泣). 울어래[우러라]. 참아야(忍). 훌리고(눈물). 땅았어[따:쎄](머리). 땅:고[따:코]. 누르+어래[눌:리라]. 학생(學生). 맑대[막따]. 울어도 인:다. 씻거 당 가라. 일어서. 당가라. 당구지만. 일었지. 일:드라(淘). 언다. 솟았다. 뚜껍게 [뚜꺼께] 얼:지. 얼었다. 솟은 것도 있지만. 깜:꼬(閉)[깡:꼬]. (머리) 까물 때. 깜아라(머리)(/깜-/ : 할머니 발화). 빗고[비꼬]. (머리) 깜는다. 친챙이 거그라. 우리 할마이허고 나허고 만낸 지가 시방 오십년이 거진 다 돼 가. (머리를) 시언허니 까몽깨(할머니). 넘었다(越). 넘어 간다. 숨어라. 숨어 있고. 넘:는다. 넘어. 따숩게[따수께]. 입는대[임는다]. 입어라. 입고[이꼬] 있다. 입는다[임는다]/입운대[이분다](-느-'의 부재). 입었다. 수월시름게[시르께]. 쉽:다고도[syü:pt'agodo](易). 노툰 산. 노푸닥히서. 야춥닥히서(低) 야산. 노푸문. 노파서. 시리뻗. 짐 못 새게 불라 갖고. 소두방. 보재기로 딱 덮고 [더꼬]. 더푸문. (떡을) 안치문. 뜯어 갖고[뜨더가꼬]. 뜯고[뜨꼬]. 다섯채. 짓:드라[지:뜨라](作). 짓어서[ciəsə](짓-어서). 깨:끔허니. 짓:고[지:꼬] 있네 (作). 부었다(腫). 부어서.

<테이프 4-B>

이고 온다(載) 그리죠 물 길로 간다. (항아리에 물을) 붓고[부꼬]. 부어 놓고[노코]. 물을 길어다 붓는대[분는다]. 안 훌리고 잘 붓고[부꼬] 있드라. 붓는대[분는다](腫). 알:고 있다(知). 갈켜 주드라. 야:는대로. 알:드라. 얀:다.

알고 있드라. 낫:는다[na:nninda]. 그 약을 묵용개 금방 낫았다(治癒). 회과를(效果) 봤:다. 낫:드라[나:뜨라]. 들크드라[드뜨라](약이 잘 듣-). 웃:는다[운:는다]. 웃어라. 기분이[기부이] 좋아서[조아서]. 기부이 종:갑드라. 낫을 활짝 피잖아요? 웃:고[우:꼬] 있드라. (울음) 운: 놈은 밀고[미꼬] 잘 논: 놈은 예뿌다/예뿌드라. 웃:는[운:는] 놈은 예뿌다. 진:는다(개가 짖다). 짖어 쌍개 베기가 쉽다. 싸납게 짖:드라. 짖:고[지:꼬] 있다. 젖었대[저저때](潤). 비를 맞았다. 웃은 젖었다. 비를 맞으문. 비를 마이 (맞으문) 웃을 젖:잖이[저짜:니]? 벗고[버꼬]. 웃을 안 벗고 세수를 허문은 전:다/전:는다([전:다]에 가깝게 발음됨. ‘느-’ 공백 반영?) 젖어서[저저서] 말륜다. 찻 시간 맞차서. 애:들보고(-에게). 비네(비녀). 낭자를 현당 거이지. 꼽는대[꼽는다]. 달아 가지고 (댕기를 달-). 그래 가지고 비네를 안 꼽소[꼽쏘]? 처녀 때는 이렇게 머리를 땋고[따코] 댕겼었거든. 댕기고(다니-). 땋:어(땋-). 끝에다 댕기를 디리요(들이-). 눌:리라(누르-) 그러지. 눌:리라(누르-아라). 머리를 빗어서 비네를 꼽아라. 찌르라고도 하고. 찌르고 댕기라고도 하고 꼽:고[꼬:꼬] 댕기라고도 하고 글 안 허요? 익었잉개. 익어요. 크제. 커 가지고. 나랙이 피여서(發) 있다가 여물이 들문 고개가 넘어간(넘어가는) 거요. 고개가 넘어가문은 끄터리서부텀 눌:허니 익어 나와요. 신김치. 새를(鳥) 쫓이라고(전설모음화). 쫓:야야지[쪼:차야지]. 쫓:고[쪼:꼬]. 새 보러 갔다. 새를 쫓이러/쫓으러(공존 함) 갔단 말이제. 새 쫓으러 갔다고. 날리고. 날린다고도 하고. 우리 닥은 참달팔(鷦鷯)을 잘 낳는다[난는다]. 눌:(놓-을) 수도 있고. 낳지요[나치요]. (아들이) 마훈아홉살 묵고 시물(二十). 나서(낳+아서) 얘기를 날:라고 틀고 있다. 달걀을 놓고[노코] 있드라. 머리를 따야죠 땋고. 겜흔 허문은 머리를 낭자하는 거 아니요? 땃는대[딴는다]. 빗는대[빈는다]. syüəra(休) 펜히 쉬어라. 앉아라. 가라앉죠[안쪼]. 문지가 마이 앉는다[안는다]. 앉았잉개(전설 모음화) 편티(앉아 있으니까 편하다). 많:고[망:코]. 많:드라[만:트라]. 농사를 마이 지어서 방아를 찌어[찌여] 가지고 애:들들을 한 가마니씩 부티(부치-어) 준다. 부모한티 속:도 안 색이고 잘 산:다. 많:은[마:는]. 자식도 하나, 둘 둔 사람들이 부모한티 잘 못허디요. 그것언 틀림없이. (쌀이) 먹을 만치 돼요. 먹을 걸 보내문은 저그가 돈:을 붙이 주고 그래서 용돈을 쓰고 그리고 살아요. 메주 겉은 것도 깊이 주고. 가세로 끊어야제[끄너야제]. 가이로 끊

제[끈체]. 가이로 안 끊디요?, 병원 걸은 디서. 묶어 놓고는 끊는[끈는] 거이라. 태가 나와야 가이로 끊그덩[꽁크덩]. 끊제[끈체]. 어둬서(暗). 밝아서[발가서]. 태앵이 환:헝개. 태양이 맑다고도[막따고도] 허고 글 안허요? (불을 켜면 밤에도) 낮 매이다고. 낮이 매이다고(낮 같다) 전깃불이 밝아서[발가서]. 밝드라[박뜨라]. 읽는다[잉는다]. 읽기도[이끼도]. 읽고[이꼬]. 읽드라[익뜨라]. 읽어라[일거라]. 읽지[익찌].

<테이프 5-A>

얹어 노문은. 쪘서 묵으문은. 옆사람이 눈병이 있으면 나한티도 오를 수가 있지요. 눈병 올랐다. 눈병이 건:는다. 눈병이 건:너갈 수가 있는 거이라. 자가 눈병 있다만 나한테 올랐다고. 踏:는다[밤:는다](踏). 혹을 블아야[볼바야]. 블:고[보:꼬] 있다. 겨울이는. 겨울이(겨울에) 가서. 봄우로 더 밟아 줘요. 그리야 새뿌리가 땅이 백이서 새싹이 잘 올라오지. 봄우로 마이 블아, 보리밭은. 보리밭을 겨울이 얼:버 빼웠잉개 봄에 좀 블아 주야 되겄드라. 블아야 뿌랭이가 땅 속으로 배합을 하서 커제(크-, '자라다'의 의미).

※ (녹음 겹침)

쌩掴이 되고 익으문 홍시가 되고, 뜯:다고 허지. 뜯:버서. 떨:부믄. 땎:떠라. 떨:버. 쌩掴은 뜯:고 뜯는다. 뜯버라. 뚜:꼬 있다. 뜯버서. 알른다. 알코 있드라. 일았드니 힘이 없:따. 무루불 꾸룬다. 꿀꼬 앉아라. 꿀코 안자. 꿀코 꿀른다. 꿀꼬 앉아야 된다. 벗거졌다. 달른다고도. 달았다. 달아진다. 짭:다. 달아징개 짭죠. 짜와서 못먹겼다. 달아지믄 짜바져요. 내 달아지믄 짜다고 시끌걸은 디는 시방 *** 메주를 당군디, 당과요. 메주를 건지내 노:믄 된장이 되고 가마솥이다 대리요. 폭폭 대리믄 업:따. 읍:뜨라, 업:꼬, 계울려 빠져갖고, 계우런(계울현) 사람들은 묵을거시 웁:써. (담배를) 말아서/몰라서 묵는다. 몰:드라. 몰아서. (김뽑을) 몬:다고, 몰:지. 일어슨다. 쉰다고. 갖따 오씨요.

(소음이 심함. 중간 생략) 불이 나문 물을[bul] 부서 끄야죠 끄고 있다. 글씨를 쓴다. 예쁘게 써라. 물건캡시(欲) 자꾸 오른다. 올라만 간다. 흐른다. 땅이 나문은 수건이로 땅는다 그래야죠 등물을 친다. 피가 마이 나서 쥬맨

다. 훌러 간다. 바쁘다. 바쁨개 힘이 듈다. 바빠서. 시장하다고도 하고 고푸다고도 하고 …….

앉았이문은. (무릎을) 꿇고/꿇꼬(공존) 앉아라. 앉고[안꼬]. 꿇른다(꿇-). 다리를 쪽 뻗으문 벼릿이 없:제. (김밥을) 몯다고도. 밥을 옹고[여꼬] 몰제.

<테이프 5-B>

아이지요(不). 말기라고(仲裁). 말리라고. 말려도. 더:립다고. (때가) 마이 물었다. 눈꼽쟁이가 켰다. (손톱 밑에 때가) 키었다. 쩌라. (장갑을) 찌고 나 가거라. 안개가 마이 찌였다. (안개가) 찌:서. 안:경을 써야지. 목 모르문. 묵 으라고도 하고. 마시라고도 하고. 물 좀 마시라! 마신다. 셋:(三), 넷:. 세: 개 (三). 찾아서. 세: 바야지(算). 세:고. 세:는 디 봉깨 많:데[만:데]. 센:다. 외악 손잽이. 외악손. 배:는(배개) 거이죠. 배:고 잔다/자거라. 벨: 수도 있고. 베야 제. 베야. 노푸게. 야출게[야추께]. 배:개를 배:고 장개 잠이 잘 온다. 돌을 던지문 유리가 깨지제. (돌을 던져서 항아리를) 맞힌다[마친다]. 깰:다[k'εt'a](破). 깬:다[k'εnda]. 깨:문 못썬다. 돌:을 던지문 깨:진다. 못:썬다. 깨:징개. 깨:져서. 고여 올린다(포개-). 야춘 디를 받차(받치-) 준다. 턱을 받차 준다. 텔 수 있어문 손으로 턱을 [바추는] 거 아이거든. 우산을 받는대[반는다]. 우산을 펴서 받는다. 우산을 펴야죠. (새가 날개를) 펜다. 폐고 난:다. 새개[sega] 날: 직에는 날개를 쭉 펴고 날:지. (책을) 읽을라문 폐고 바야죠. (책장을) 넹기라고제. 넹기야 된다고잖에. 비 오니께 니 우산, 남우(他人) 우산 받고 가지 말고, 니 우산 …… 챙기서(지참). (우산을) 펴:라. 펴서 받아라 그러지메. 장굴 치죠. 뚜드린다. 사:램이 있는가 없:는가 문을 한번 뚜드려 바:라. 사:램이 없:는가부다. 없:잉개. 뚜드러도. 훤다(손바닥을). 펴 바:라. 기지개를 친다. 지지개를 치고 있다. čhadō, čhiči. 너 맘때로 펜히 허그라. töyasə. 되도 되고. 다섯되가 말허자문 한 말이고, 열 되를 되문 대싱 한 말이고 그려. 소싱 있고, 대싱 있고. 깡끈(깡ڱ-) 것 있고. 깊아서. 되는 (되-, 計量) 사람. 사정없이 노푸게 된 놈도 있고. s'yöara(쇠-아라, 바람), 바람을 s'yöngge(쇠-O개) 시언허니 좋:다. s'yö:go it'a(쇠-고 있다), (고사리를) 끊을 때가 되어서 안 끊으문[끄느문] 펴서 syöat'a(나물이 쇠-) 그러

죠 피여서/펴서(發) 연:헐 적이 끊어야지[끄너야지]. 피여서 못: 묶는다. 꼬사리가(어두경음화) 확 피여서 쇠:문은[syömunin] 못: 묶어. 펴고(伸), 오그리고(縮). čüəra(쥐-어라, 握). čüə(쥐-어). 쥐고 나온 놈도 있고 피고(?) 나온 놈도 있고. 잘 보도 안 했어. 폐(伸) 갖고 때리고 …… 생전 넘 한번 때려 보도 안 했소만은, 뺨을 때릴 직이는 폐 갖고도 하고 ** 놈들은 주먹으로도 때리دي요(저저고저, ‘때리데요’의 의미). 뺨을 친다고도 하고. (후려) 팬:다고도(打) 하고. 도:끼. (장작을) 패:. 팬:다. 꽉 쥐:고[čü:go](握). 꽉질:[čü:i] 수도 있고 펠 수도 있고 주먹을 꽉 쥐어라. (밥이) 쉰:다. 쉬:죠 [syü:jo]. 쉬어. 쉬어서 못: 먹겼다. 찹아서도[차바서도](冷) 못: 묶을 수가 있고. 찹제[찹제]. 쉬어서 못: 묶고. 식은뱉이라고 하고. 따순 놈은 따순 뱌이라고. 식훈[시쿤] 놈이 식은뱀이고, 따순밥은 금방 헌 놈이 따순뱀이고 그려. 더운뱀이라고도 하고, 차운뱀이라고도 하고. 춥다. 마이 허문 (방박타이) 따숩다. 찹대[찹따]. 차와. 뜨겁다[뜨겁따]. 뜨겁어서[뜨거버서]. 뜨거웅개. 머리가 한다 그러죠 하애징개 ‘한다’. 머리가 마이 했:대[히:파](히-었). 자연히 늙으문 머리가 히여진(히여지는) 거 아니요? 하현(/하허-/), 白 백발이라고도 하고, 머리가 마이 히:졌네 그럴 수도 있고 히여졌다. 깨의 종류 : 들째, 창째, 시금자께. 털어 가지고, 벤:(촘촘한) 얼계미다가 치문은 깨알은 빠:지고, 껴풀은 우에가 뜨문은 쟁이로 까불라서 가마이(가만히) 봉개 당과 갖고 이魯개 입:디다(조리로 일-웁디다). 일어서. 일어 갖고 말라(건조).

<테이프 6-A> <테이프 6-B>

녹음 안 됩

<테이프 7-A>

장:니를 모신다고도 하고 묻는다고도 하고 그래요 빤듯이 잘 영고[여코] (人) 흙으로[흐그로] 묻는대[묻는다]. 모시라(모시+어라). 관채(棺) 영는[연는] 데도 있고, 관을 빠:내고 밑에만, 밑에 깐: 놈만 영고[여코] 묻기도 하고

그러더요(저저고저). 묻는다[문는다](埋) 그리요. 여러 사람들이 삽으로[사부로] 떤지서 관을 안 보이게 묻고[무꼬] 있다. (좋은 자리를) 잡을[자불](원순모음화) 수가 있지요. 맡는다고도[만는다고도](任). 내 물건 좀 바: 도라고. 분:다. 불든. 모욕탕에 가문은 옷 같은 거 염는 디가 있잖이[이짜:니]. syöthoŋ(자물쇠). syethoŋ(비원순모음화)을 꼭 장구고 나오라(나오+아라). 장궈(잠그-). 장구라고도(/장구-/) 장구고 오니래(오이라). (수도꼭지) 막을 직이는 꽉 막아라. 틀라고 그러지. 세통(자물쇠). 분:다(바람). 바램이 차운 바램이 분다. 더운 바램이 분다. 바램이 되:개(많이) 분다. 차운 바램이, 여름에는 더운 바램이 불문 비가 오잔이(비가 오잖아?). 구름이 쟁:개 시언허다 그러제. 해가 쟁쟁 쪘다가 구름이 더푸문 시언허잔이(시원하잖아?). 바람도 불고. 피리도 분:다고지요. 피리 좀 불어 바라. 불:고 있다. 잘 분다든지. 불드라(吹). 빨:고(吸). 빨아. (젖을) 빴:다고 안 허요? 작:다고(少). 젖이[저지]. 없:으먼은(중저고중) 나올 수가 없:지요 이. (빨래를) 주문다고. 주물러서 빴:다고. (옷을) 빨아 도라. 빨:대는 빨아 먹는 거이죠 빴:다고 안 허요, 그것도? 숨:을 못: 쉬문[syümun] 죽는 것 아니요? 서로 친구들 가직허문은 서로 친허면은 못: 보면은 보고자꼬. 안 보문 보고자꼬. 만나문 반갑고[방가꼬] 그런 거 아니요? 가직허단 말이 가참다 고 말이지. 가직다(近). 안 멍개 자주 가는 거지. 구:경도 삼아서 자주 가. 창꽤(참깨). 나물. 팔고. 도싯 사람들은 촌에서 나완 놈 사서 묵고 그러잖 …… 쥐나물. 돈:나물. 세:도(세지도) 못혜[모테]. 여러 가지 종류제. 나승개(냉이). 달룽개(달래). (나물 좀) 무치도라. 무쳐 도라. 나물을 무추고 있다. 무친다. 숨: 안 쉬문 죽죠.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여[또까텨]. 숨을 쉬:는 거이라. 숨을 쉬야('어' 탈락) 우리가 살:고 있잖이. 숨을 쉬:야 살지. 숨 안 쉬문 죽어. 사:램이나 짐생이나 나무나 철 따라서 다 숨:을 쉰(쉬는) 거여. 죽고[주꼬]. 이파리(葉). 한가허게 걸어[거려] 가지요. 일어스지요. 걸음마를 배와. 붙잡고[부짜꼬]. 일어시잔요? 걸음마 배운다는. 저 혼차도 잘: 걸:는다[걸:른다](步). 걸:고[걸:코]. 놀:고 있다. 걸:는다[걸:른다]. 가만 보니까 야:들 글 않지요[안치요](그렇지 않던가요)? 걸음마보텀 배와 가지고 야:들 보문 지 혼차 걸어 가거든. 돌안에는 못: 걸어요. 올:된 야:들은 돌 안에 걸을 수가 있는데, 야:들도 여러 가지 종류라. 늦된 놈, 올된 놈. 늦된 놈은 돌 지내 걸:고[걸:코]. 돌이란 건

난: 그 돌씨라. 날 좋:대[조:타]. 가물다(旱) 그러죠. 가물아서. (너무) 가물아도 못 씨고(用). 가뭉개. 너무나 장마가 쳐도 못 써. 가물아서 횡넨이 든다고지요. 가물문은 횡넨이 든 거요. 비가 적당:하니 와야 좋아. 개울을 막아 가지고 봇도랑으로 해서 물을 안 내요? 개울 막는 거 보고 보락헌거요[보라건거요]. 보를 막으문 또랑을 쳐서 대:고. 못씨고. 가뭉개 안좋다. 자운다(졸다, 睡). 자울문 못:썬다. 자울지 마:라. 자웅개 베기 싫다. 방을 쓴다. 눈:도 치라고 혈 수도 있고, 쓸라고 혈 수도 있고. 비로, 작:게 오문 쓸:고, 몽땅 오는 놈은 눈까래로 쳐 내. 마당 쓸:라고죠(-고하죠). 마당 좀 쓸어라. 방도 쓸라고고(쓸라고 허고) 그리고, 방도 쓸라고(掃). 감:는다고 그러죠(捲) 감:고[감:꼬]. 감아서 써야제. 더듬어야지. 더듬는. 더듬고[더등꼬]. 더듬어도 못 찾겠다. 시장에 가문 사다 묵어요. 명:태랄지, 조:기랄지. 물 붓구[부꾸] 무옇고[여코], 꼬춧가루 옹고[여쿄] 지진 것이 젤: 맛있어. 그것은 구어 묵는 거이고. 뒤어 먹는 거이지. 뒤는다고도[덩는다고도] 허고 문:다고도 허고 그래. 적채 겉은 디다 얹어[연저] 갖고 문:다 그러죠 꿈:는대[꿈:는다]. 꿈:고[꾸:꼬]. 생선(生鮮)은 꾸어 논 것이 식옹개 뒤어. 뒤어 갖고 먹고. 밥도 뒤어 묵을 수가 있고. 뒤고[더꼬]. 가야 목제. 작:옹개. 큰 독은 무거옹개 들기가 힘들고. 작:옹개 들기가 개불제[개불쎄]. 개굽다고도/개굽지/개금다 그래(개불-~개굽(개굽)-P/K 교체). 무겁고[무거꼬]. 무겁지요[무겁찌요]. 개분 놈은 보드롬헝개 (들고). 개구봉개(개굽-) 들기도 수월하고. 무건 놈은 아무래도 복잡허제[복짜버제]. 개봉개 들기가 쉽:다. 무겁어서[무거벼서] 못 들겄드라. 내 힘으로는. 힘도 센: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글 안효[그라뇨]? 세:도 안 허고 보:통은 됐:지[twε'č'i]. 악현[악くん] 펜도 아이고. 잊어서[이서서](繼) 써야지. 잊:고[i:k'o] 있는다고도. 쫌매라[č'ommēra]. 잊옹개[이승개].

<테이프 7-B>

잊:는다고도[인:는다고도] 허고. 잊어서 쓰라고. 쫌맹개. 쫌매라. 쫌매고 잊옹개도. 잘 잊어서 좋다고도 허고. 잊:고[인:꼬] 있드라. 빗는다. (머리를) 감아야지. 빗어야지. 머리를 말랴갖고. 빗지[비찌] 마라. 안 빗어도 됽개. 검

정색이고, 흰머리, 거멍머리, 껌:고[껑:꼬](黑), 희고, 거멍창, 흰창(눈), 솟은 껌:지[껌:찌], 솟을 만들라문은 쟁나무를 베다가 솟굴이 있어요, 땅을 짚어 가지고 바가지로 차곡차곡 이魯게 쟁이('어' 탈락), 쟁이 가지고, 차곡차곡 쟁이 갖고 불을 질러 가지고 양쪽을 꽉 막아 비리먼은 공기 안 들으가야 확 불이 부쳐 가지고 확 탄디(탄는데), 공기튕이 안 들으(가야) 딱 꺼져 가지고 솟이 되지, 솟굴[수꿀], 트겁지요(뜨겁-), 새:캄허제[syɛ:khamfiɛjɛ], 껌:제, 껌:다고도 허고 새:캄허다고도 허고, 입 안에다 넣는다고 안 허요? 담:는 있다고도 허고 연:다고도 허고, (서랍 안에다) 여야지, 옹고도[여코도] 있다고 (人), (선반이란 건) 질려 노문은 없다고 그러지요, 멋:을 얹일라문[언질라문](전설모음화), 없다고하고[다거고], 실경, 실겐이라고(옴라우트, 부엌 안에 질려 놓는 것), 살강은 정지 치워 가지고 그륵 엎는[엄는] 거이 살강이라, 살챙이란 것인 대로 영꺼 가지고 깔아 놓고는 그륵을 씻거[씨꺼] 가지고 엎어, 대로 영꺼 가지고 살강을 만들지, 그력을(그륵~그력) 씻거 가지고, 영꺼 가지고, 영는다고 해야죠, 영꺼야, 젓:는다고[전:는다고], 곤:다 그래요, 고아, 폭 오래 고아요, 매 쌈:는다고도[쌈:는다고도] 허고, 매 곤:다고도 허고, 쌈:고[쌈:꼬] 있다고도 허고, 꽃:고[고:꼬]/(꽃:-/) 있다고도 허고, 고아도라, 고아서 준다, 꽃:드래[꽃:뜨래], 귀찮닥허지요[귀찬타거지요], 귀찮다[귀찬타], 귀찮아서[귀차나서], 꿈:고[꾸:꼬], 꾼: 거이고(炙), (생선 살만) 떠여 묵제, 까시를 빼:고 적채에다는 꾼: 거이고, 빼는 가리야죠(選別), 개린다고 허고, 가린다고도 허고, 빼를 가리 내고 묵어야라, 해물괴기[꾀기] 까시를 깨리고, 소나, 돼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빼를 추리고 그런 거이지, 까시를 추리 내고 먹으라 그리요, 추리야지, 맑대[막따](清), 웃물이 맑아야[말가야] 아랫물도 맑대[막따], 청명허니[청명허이] 좋:다, 청명허다고, 구름 한 점 없:으문 청명허다 그려, 오염이 되어서 물도 끓이 묵어야 되야, 생수물은 [syɛŋsummul] 캔찮은디 도싯물을 못 먹겄드만, 우리 둉니 물은 참 좋:다, 깨끗허이 좋:다, 덧이 나문은 짜내문 고름이 나오는 거여, 썩는다[쌩는다], 썩어야 고름이 생긴 거이라, 상처가 나 가지고 휘딱 약 같은 거 안 보르고 허문은 잡살이 찌: 가지고 상히 가지고, 고름이 생기는 거여, 고림이(옴라우트) 생긴다, 고림이란(옴라우트) 건, 끊는다[골른다], 끊어서[고라서]('ㅎ' 탈락), 곤달갈이라 그려, 오:래 되문은 빼가리가(병아리가) 안 되고, 빼가리 안

된 건 곤달갈이라 그래요. 곤달갈. 먹도 못:혀. 끓아 비린 것은. 끓아 비리(어미 두음 ‘어’ 탈락). 끓아요[고라요]. 상현 거제. (달걀을 오래 두면) 끓는 대[꼴른다]. (배) 고푸다고도. 배를 마이 끓았다고도 허고. 배를 끓옹개[고릉개]('ㅎ' 탈락). 굽:고[궁:꼬] 있다. 배를 끓고[꼴코]. 끓죠[꼴초]. 끓아. 굽:는 [굼:는] 거. 아무래도 남자 빼는 세:고. 여자 빼는 보드랍고[보드라꼬] 가늘잖에. 남자 빼는 굽:제[국:제]. 굽:고[구:꼬] 빼대가 세:다. 칼국수가 멘이 굽:죠[국:죠]. 굽에[꼴거]. 굽:단[국:딴] 말을 써. 얇:고[yap:k'o]. 얇:옹개[ya:lbuŋge] 시언허체. 구넥이 없옹개, 시언허들 안 허…… 얇아도[얄바도]. 맘:죽이라고 있어요. 맘:죽을 어트게 짚이니면은 쌀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설탕을 여서 끓여. 끓여 갖고 젓이 없으문 고 놈을[노물] 젓병도 없:고, 없:을 적이 순그락으로 떠 먹였어. (쌀을) 갈:지요. 같아서. 간:다고. 끓일라문[끄릴라문]. 쌀을 지금은 기계뱅애로 쟁개 그런데, 전에는 드들방아[빵아]로 끓어서 징잖에[찌차네]. 재:별 헌 것보고 씹:는다고[씰:른다고] 그래. 아:조 사토리 말이디요. 쌀을 씹:는대[씰:른다]. 씹어[씨러]. 그릉개 아주 사:투리 말이라. 도구질[togujil]로 허기도 허고, 발로 끓어서도 징는[전는] 방애 있고 그랬어요. 도고통[togothog]이나 절구퉁이나 방애로나 찌:문은 누:런 쌀이 찌:문은 하:해져(하얗게 됩). 이런 기계방애도, 기계뱅애도, 헨미로 빼문은 껍데만 까 갖고 나오거든. 껍데만[껍명만]. 쟁미소. 나락껍데를 벗긴 거이고. 씹:는다 그것은 재:별 쪐: 거여. 썰어(掃) 영고[씨러 여코]. 재:별 여:서 까불아. 챙이로. 징고[찌코]. 썰:고도(掃) 있고. 썰어야제(掃). 딜:고[디:꼬].

<테이프 8-A>

나 그런 거 안 묵소 한 오십년 됐:소 졌었는디(作). 지등(柱). 초가집 짓:제(징+었+제). 벗짚으로[베찌부로] 가지고 영껴 갖고. 벗짚을[베찌불] 대:고 영꼬먼은. 몰아(捲). 날개. 지붕을 이였어. 용모름. 용모림이락하고(움라우트). 한 가온데 지붕 맨 위에 짹 이: 놓고 위에 덮는[덤는] 거를 용모름이라 그래. 배 짹는 거 밟:죠 베틀. 미영 걸은 거, 미영도 있고, 삼베도 있고. 삼을 심어 가지고 푹 쪘서 벗겨. 벗기문. 껍데기를 가지고, 그 놈을 씹:아[쌀:마] 가지고. 도투마리고드만. 도투마리다가 늘이 놓고. 하낙썩 하낙썩 물

팍에다 비비서(/비비-/+-어서. 내:놔:. 실:이 되문은 날아 가지고 삼ovel 짜는 날죠(/날-/. 뉘에[dnüe]는 나을 직이 보문은 자잘허니 씨앗맹이로 생 깊어요. 씨앗맹이로 생깊는다. 자잘한 버러지가 나와. 새끼 때는 썰:어서[쎄:러서]. 시나브로[시나부로] 잡아 묵음서 자꾸 커. 커먼언(크-). 벳짚을 가지고는 새새 짚을[지불] 꿰어[k'üə]. 꿰:[k'ü:] 노문은 뉘에 이 놈이 커 가지고 걷다가(거기다가) 집얼 지여(作). (그래 가지고) 명주 베 짠 거 아니요? 이 동네 전에 노인 할무씨들 나 짠 거 봤어. 더딘(느리-) 거요. 한 필이란 것이 잣대로 수무(二十) 자거든. 할아버지. 영:챔이라고도. 할마이. 할무씨(때로는 [할무시]처럼도 들립). 할무이라고 헌 것이 폐준말이죠. 나뿌게. 잃기도 [일키도] 하고. 내가 딸 직에는 딴:탁하고. 내 돈이 나가문 잃는다하고[일른다거고](失). 놀음을 하서 땅딸고라고도 허고 놀임이라고도(움라우트) 하고 글 안허요? 아무래도 따문 기분이[[기부이]] 좋:고, 내 돈이 나가문 기분이[[기부이]] 나뿌제 이(저고). 그릉개 놀음헌(놀음허는) 놈들 도독놈들이라. 놀음=땅딸고. 뒤전이라고지[thüjən]. 잃었다[이러따]. 잃고[일코]. 잃은 놈이 있어야 딴 놈이 있지. 훑는다[할른다]. 훑애[할타] 묵는다. 훑지[할찌]. 짜롭고[č'rulk'o]. 발고락은 짜롭제[č'arupč'e]. 질:고, 짜롭고[짜루꼬]. 손그락 질:고 짜룬 놈. 낫이는[나지는](낫에는) 짧고[짧꼬](短). 여름에는 밤이 짜롭고[č'arupk'o] 낫이[나지] 질:고. 짜룽개로 일 못 허지요 춥고[추꼬]. 짜くだ[č'arupt'a]. 병은 질:고 손그락이 짧:웅개로 [č'a:1βunjgero] 안 닿지[다찌] (接). 꺼낼 수가 없:잖아요 č'aruk'o(짜롭고). 손그락은 질:고 손그락은 질:제, 질:고, 발고락[바꼬락은]은 짜롭잖에[č'arupč'ane]. 짜롭고[č'aruk'o]. 놀:랜다고지. 놀:래지 말:고 자제(睡, 자-) 잔다고. 못현다[모던다]. 못허지요. 잘 못허문. 밉:다[밉:따]. 모른다. 모릉개(不知). 에릉개로. 어려워서 못해. 에럽어(/에럽-/. 내가 아는 일은 잘 허지만은 나 모르는 일은 안 배와 놓개 모릉개 못하는 거 아니요[아이요]? 에럽어서[에러버서] 못해. 그게 어렵단 말 이제. 내가 모릉개 어렵다고 말이죠. 에로운 것은 내가 잘 모른다 그 말이요. 물:라서 못혔다[모디따]. 아푸닥 허디요(低高低). 아파서. 아풍개. 고름[korim]. 여름이는 따신 땅개 다치기나 혈 것 걸으문 열른 낫:들 안 허고 급히[그피] 약 안 보르먼은 이 놈이 덧이 나면은 더뎌요. 상처가 더디게 낫을 수가 있어. 글 않디요?(그렇지 않던가요?) 누구라도 보문. 빨리 불라야

죠 보른다고도 허고 바른다고도 허고. 흑손. 그것도 흑손으로 붙여[부쳐] 갖고, 밀어. 묻히 가지고[무치 가지고]. 잡고[자꼬]. 풀비[풀빼]. 불라야죠(상처가 나면 약을 빨리). 큰다. 컸다. 큰 사람('큰'의 모음의 경우 '어'에 가까운 '으'로 발음되고 있음, '어'와 '으'의 중간?). 새끼를 끈:다. 꽈:서. 날아야지. 가마틀에다 날아 가지고 보디. 쑨:닭허지[쑨:다]. 죽 좀 짚이 도라고도 허고, 쇄: 도라고도 허고 그려. 끊여 도라고도 허고. 마취서[mačhwəsə] 입는 거이지. 맞춰서 입고[이꼬]. 기성복은 웃쟁이가 사 입고. 전이는 한:복 걸은 거. 뉘에꼬치서(dnüe) 나온 거. 보통 미영으로 짜 가지고 숨: 받아다가 시한으로는 안파 껌데기를 숨:을 속:에서 여:서 꾸매 가지고 입었어요. 실을 괸:다[k'ü:nda] 그러지. 꿔어[k'üə] 도라. (양복을) 맞춰[mačhwə]~마취서[mačhwəsə](두 어형 공존함, 후자의 경우 w약화). 맞춘다[mačhunda]. 국이 식으문 덴:다. 데:. 데: 갖고. (지붕을) 이:제. 인:다 그리고. 집을 이여 놓고 그 우에 덮는 것은 용모림이락허고[용모리미라거고]. 날개를 영꺼 가지고 새드래를[syeddirE] 놓고는 어깨다 매:서 얹어 가지고 빵:빵: 돌려. 돌려 갖고 (포개문은) 이:진(이)-어진) 거이라. 영꺼서 이야 된다. 어:른들이 수제를 들고 나야 짚은[절문](원순모음화) 사람들이나 애:들이나 그 다음에 든(드는) 거 아니요? 잠깐[장판]인디. 어:른이 들기 전이는 아:들은(아이들은) 찬찬히[찬차이] 묵어야제. 섰어야지. 서서 참:고[창:꼬/참:꼬] 있어야지. 기다린다. 장판 섰으라고도 허고. 기다리라고도 허고. 섰거라. 잘 놀아라. 기다려도. 세:다(強). 세:서 좋:겼다. 빼야죠[p'eyajo]. 빼:[p'ε](ε 모음 확실) 낸:다. 살 좀 빼야 된다 그러지. 살 되게 마이 짜문 그 살 조께 빼야 되겠다 안 허디요?(빼야 되겠다고 안 하던가요?) 빼:고(녹음은 안 되었으나 전사된 것에 따름).

<테이프 8-B>

불 쓰라고도 허고 불 좀 써라. '불 좀 키라'도 허고. 눌:(臥) 것도 없어. 밥물이 많으문 무르닥허고[bmuridagago], 밥물이 작:으문 되:닥허고. 되어서[töasə](硬). 된: 밥. 무른 밥. 짚었을 직이는 조께 된:뱀이 좋:고, 나이 들어가문 무른뱀이 좋:고. 조께 된:뱀이 좋:죠. 되어서 못 묵겄드라. 되:다고요.

(硬). 나는 평상 전에 옛날대로 조상만 믿제[미제], 교해라는 디는 안 가요. 조생이란 (祖上) 건. 믿어[미더]. 절에는 더러 땡기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이 시방 음력으로 그믐이나 되았을 거요, 한 야드레 정도 남았 등도 나림이라(나름+이라, 움라우트). 크고 헌 놈은 갑이 비싸고 할마이. 우리는 도시 가서 못: 살겄디요(못 살겄데요). 쉰:다[syü:nda](목이). 쟁깃다고도 허고 쉬었다고도[syüat'agodo] 허고 늙옹개 젊었을 적이 만치나 목소리가 안 좋제. 쇠았대[syöat'a]/쉬었다고[syüat'ago]. 굽는다[궁는다](搔). 굽어서[글거서]. 집어뜯기고[뜨끼고]. 제 손으로도 뜯는[뜯는] 놈이 있잖요? 가렵고[가리꼬] 허문. 뜯어[뜨더]. 굽고자꼬(굽고싶고) 글 않요? 섞어서[서꺼서] 묵제. 뇌:서(놓+아서). 놓지[노치]. 옹지[여치](入) 말으라고도 허고 물이 너무 뜨겁우먼[뜨거부먼] 친물을 여:면은 아니 정도 도:수가 마차지지(맞추어지지). 봇어(注:鄙). 부어서. 젖어야지. 젖어서. 섞으문. 젓:는닥해야지. 섞어 묵어라. 뿌린다고도 허고 헐는다고도 허고, 논이다가도 허고, 밭이다가도[바티다가도] 혔다. 모를 심을라문은[시물라무는] 논을 써리 놓고는 비루를 헐그던요 [허끄더뇨]. 허쳐 놓고는 한 사날 훨인(무슨 뜻?) 뒤에 거그다 모를 심어. (비루를 구석구석) 골고루 잘 허치야(/허치-/) 된다. 골고루 섞어서 헐는다 [현는다](散) 그리고. 비루 논이다가 뿌릴라고 섞어서, 비루 헐라그런다. 뭉끈다고지(束). 뭉끄씨요. 뭉꺼라. 벗짚을[베찌불] 뭉끄고 (있다). 믿는다[민는다](信). 모도 교회 땡기요? (밥이) 늙:는다[눌:른다](炒). 잘 되았다. 작:으먼은. 물이 작아서. 누룽지가 마이 늙:고[눌:꼬] 그래. 죽밥이 돼. 그럴 거 아이요? 늙었다[누러따](이 단어의 기저형은 두 가지인 듯). 된:밥. 누름밥[nurumbap]. 늙은 놈은 조께 무른밥이락하고 누룽지라고도 허고, 누름밥이라고도 허고 그려. 누름밥이 그것도 밥은 뱃잉개. 뱃:는다[밴:는다](唾). 뱃아래[배타라]. 들어(舉) 올리고. 못 들고. 듣다. 나도 힘이 시문 좀 무거운 것을 잘 들었이문(舉) 좋:겼다. 때가 굽대[국때]. 잔 놈 있고, 굽은 놈 있고 그려지(움라우트의 동화주가 없는 환경에서도 '놈'으로 실현). 굽은[굴군] 때는 아무래도 심이 세:고, 잔 때는 심이 약하고 그리잖에[그리자네]. 굽:게[구:께]. 가늘게. 빤듯허다[빤뜨더다]. 허리가 아프문 꼬부랑 할무씨가 됐다고 굽었다고 허고. 가늘다고도 허고. 날씬한 것은 날씬허니[날씬:허이] 예쁜 사

람 사람보고 날씬허닥헌 거요 으사(醫師) 아이고는 내가 어트게 알:거요? 힘이([심이]에 근접) 약형개[야컹개] 잘 못 듣다. 빼가 조께 잘고 형개 아무래도 힘이([심이]에 근접) 약허지요[야커지요]. 머이라도 잘 묵고 그런 사람 이 힘을 쓰고, 빼도 굵고[구꼬] 그리거등. 약허고[야커고]. 아주 적:다고도 허고, 가늘다고도 허고. 가늘아서[가느라서]. 끊어지고. 굵:은[굴:군] 놈은[노문] …… 가능개 잘 끊어지제[끄너지제]. 다듬는다고지('는'은 거의 안들리다 시피 함). 가리라(選別, 가리+어라, '어' 탈락) 다듬아서[다두마서] 뿌렁구(根)는 베: 내고, 누렁잎은[누렁니분] 따: 내서 다듬는[다듬는] 거 아뇨? 캐고 있다(採). 캐: 갖고 다듬고[다듬꼬]. 캐야 다듬지[다듬찌]. 덥:고[덥:꼬] (暑). 햇빛이[해빼시], 해가 짹:옹개 아무래도 춥제[춥찌]. 짤뢰. 짧아지죠 질:고(長). 더웁고[더우꼬]. 춥고[추꼬]. 추워서. 눈:도 마이 오고. 더워서. 더 덥:대[덥:따]. 춥대[춥따]. (오줌이) 매립다. 매라서. 매립고[mərak'o]. 매라문 [meramun]. 아직도 멀었소? 내일 집이 있일랑가 또 어디 갈랑가 몰:라. (나락을) 훑는다[훌른다], 훑고[훌꼬].

<테이프 9-A>

훑어. 훑어 가지고 찌어요. 말랴서(전조). 씨를 가리(선별) 가지고 당과서 또 이 놈을 불과. 나락을. 나락을 불과 가지고, 나락을 물이다 당과서 불은 년이 짹이 약간 …… 나오면은 전에는 그냥 모판이다가 막 뿌리고 했어요. 그룬디 지금은 …… 가 나와갖고 씬:나락을 제미서 우에다 이런 디다 부어 가지고는 판을 집어 엎고 돌리면은 나락이 나옴선 모씨*가 전부 판 새이가 백혀. 백히문 흑으로 …… 밀어서 …… 붐:죠[불:초](增). 붐어[부러]. 마른 콩을 물이다 당구문 텅텅 붐:제[불:제]. 불:른다 그러지. 따순 물이다 당구문 콩이 후딱 붐어[부러]. 따순 물에다 당구먼은 쉽:게[[쉬:께]] 붐드라([불트라], [불뜨라]). 두 어형이 공존함) 차운 물이다 당구문 더디 붐고[불코]. 쉽:게 붐고[불꼬](기저형의 어간말 자음군이 'ㅋ'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ㅌ'로 나타나기도 함). 가직다(近). 가직형개[가지경개]. 가까옹개. 번:다. 벌었다. 별:드라. 벌어서. 막았었는디. 막았어요. 막아 갖고. 막으문 물이 괴이문은 도랑을 치문은. 야춥제. 야춥옹개/야충개(두 활용형 공존). 기푼 물이 들어가문 아

무래도 위험허잖에. 기푸문('기푸문'인지, '지푸문'인지 불확실함). 시염을(水泳) 잘 칭개 들어가지. 깊어도(深). 기푼 디는 못: 들어간다. 마이 놀아 봤제. (금을, 선을) 그린다. (글자 회을) 친다. 뺨뜻이 그리고, 치고. (성낭을) 기린다 그러지. 말:이 여러가지라요. 뺨뜻이 쳐라고도 하고, 기리라고도 허고 그래. 그럼 걸은 거 그리제. 잘 그린다고. 그래라(그리-+-어라). 脂:게 [압께]. 벗:는닥히지요[번:는다거지요]. 脂운[얄분] 놈 입어라. 벗어라. 더웅 개 벗:고[빼:꼬] 있드라. 벗어야지. 낫얼 싫는다고도[신는다] 하고, 세수를 헌다고 글 안허요? 여그 구식 말로는 낫 싫그라고[시끄라고] 그랬어. 그랬는디 요새는 세수허라고 그러지. 낫 좀 셋거리[씨꺼라](씻어라). 셋고[씨꼬] 웅개. 부끄럽다고지. 부끄러꼬 낫을 들고 못 맹기겄다. 부끄럽제. 하도 야:들이 말을 안 듣고, 남우 아들이나 때려쌓고 싸와 싸문은. 싸와 쌓고 말: 안듣고 제(罪)나 저질고 맹기고 허먼은. 다투지. 싸운다고도 갈라 묵으라고도. (담이) 야차와서(??)/야춥아서(低) 함석으로 개렀어. (못을) 박:고[바:꼬]. 박아야지. 박는대[방는다]. 박는[방는] 거이거든. 이런 디는 높아서 안 된다, 남원만 해도 대. 그런디 시방은 미영 간: 사람이 없:어. 그걸 목하라고도 허고 미영이라고도[미영이라고도](옴라우트) 하고 그려. 미영실을 잣아 갖고, 미영씨를 송구먼 미영이 나오제. 꽃이 피여 갖고 거그서 소캐 같은 것이 부글부글 달리거등. 고 놈을[노물] 싹 잣이면(전설모음화) 미영실은 미영실대로 빼:지고 소캐만 소캐대로 나오는 거이라. 미영에서 소캐가 걸은 거이 나오면 소캐로 가지고 실을 만드는 거이제. 물래를 돌리서 (回轉, 어미 두음 '어' 탈락) 실을 만들아. 잣이면은. 罪:져서(실이 꼬+아져서). s'ye(鐵, 비원순모음화) 잣이면은. 잣이면. 늦추먼. 몰리거등(말리-, 被捲). 몰리문(被捲). 실:을 만들어서 감아라. 학:독에다는 같:고(粉磨) 도구통에다가는 짧고[찌코](搗). 도구통에다 찌여 가지고, 학:독에다 같아요. (뉘에가 뽕잎을) 감아 묵제. 뽕얼. 감아 묵으면은. 뉘에[dnüe] 꼬치 질라고문은 기묘허게 뽕 고눔 먹는 것이 전부 속에 가서 실:이 된감드만[됭감뜨만]! 집을 멋지게 안 짓소[지쏘]? 딱 지여 갖고는. 뻔디기라꼰(뻔디기라고하는) 거이라. (쥐가 나무를) 잡는대[강는다]. 잡고[가꼬] 있다. 잡아. 나무를 같:고 있다. 뚫을라문[뚫불라문](뚫-). 쥐이빨이가 센: 거요. 어찌 되았거나 나무를 잡아야 쥐이빨이는 많어진다요. 안 잡으문은 이빨이가 질어갖고는 뚫고[뚫코] 올라와서 죽는데.

역부러(일부러) 잡아. 짹 묵어. 쫄거리는 낭구고/냉기고(두 가지 활용형 공존, 사동 접사 -기-, -구-). 뚫어 갖고 잡그덩요[가끄덩뇨]? 아예 안 묵던 안 하지. 쪼끔씩 묵제. 작:개(적개) 묵거나 째:제[굼:쎄]. 째었다[굴며따]. 안 묵으나 째우나[굴무나]. 째:고[굼:꼬]. 늙제[늙쎄]. 탁했다고 그러죠. 닮았다고도[달마따고도]. 즉어매를 많이[마이] 닮았으문 어머이를 마이 닮았 닥허고 아부지를 마이 닮았으문 아부지를 마이 닮았닥허고. 까:분닥허고(어린아이가 까불-). 까:블라서(까불+어서, 기저형??) 걱정이다. 서:러워서 울:지. 슬프게 운:다고도 허고, 애통해서 운:다고도 허고. 천:대를 받는다([반:다]에 가깝게 들림) 그러지. 기분이[기부이] 나뿌지. 안 좋죠[조조] 머. 일곱 시도 묵고. 묵고 자문(먹고 싶으면) 묵고[무꼬] 그러지요.

<테이프 9-B>

싫대[실타]. 예러 가지 아뇨? 밤이 되어서 못: 묵겄다 그래야지. 나쁜 사랩이 있고. 여름이는 딥:지요[딥:찌요]. 딥:다고. 땀이 흘리고. (땀이 주르르) 흘리지(전설모음화). 괴롭다고도[köropt'agodo] 허고. 땀을[띠물] 마이 흘린다. 쫄:도 배기 싫대[실타]. 밉대[밉따]. 칙헌 짓을 잘 형개로 애:뿌다 그러고. 애:덜도 키여 보문은 나뿌다고문 자꾸 나빠지고, 좋:다고문은 좋아지고 그런 거요 추어주야죠. 될 수 있어문 나쁜 짓 허지 말고 잘: 해라 나쁜짓 허문 마이 때렸죠. 옛:날부텀 말:이 그려. 미운 자석은 밥을[바불] 많이 [마니] 먹이고, 예:쁜 자석은 매를 하나 더 때리라 그랬어. 미운 자석 밥만 먹이문 놈팽이가 돼 비려. (빨래가 잘) 모른다/마른다(건조). 바싹 몰랐다. (덕석에다 고추를) 넌:닥히아죠[넌:다기야죠]. 널어서 말류면은(/말류-/). 소쿠리 같은 거 그런 디다 담:고[당:꼬] 벽푸대 같은 디다 담:고[당:꼬] 그러지. 채린다고도 허고, 논:다고도 허고 그래. 담:기도[담:끼도] 허고. 담:는다고도 (이 때도 '는'이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함) 허고. 많이썩 담:지[담:찌] 말:고 앵간썩 담아라 그러기도 허고. 쓴 냄이 있고. 감초 걸은 거 마이 들어가고 허문 씀서 뒷맛이 달콤허니[허이] 고런 것도 있고. 써서(苦) 못 먹지요. 슬푸다고도[silphudagodo] 허고. 아풀[aphul] 수도 있제. 친책이나 가직헌[가지건] 친구나 아푸거나 죽거나 허문은 마음에 슬푸잖요[슬푸자뇨]? 슬푸고[si

lphugo].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도 되겄고만. 벗고[빈꼬]. (머리를) 감:고 [감:꼬]. 이런 디는 되:게 붙여. (머리) 깜아. (이 지역에서는 '머리 깜-'에 대해 어두경음화를 일으킨 '깜-'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증언) 머리 깜아라. (눈을) 감:고[강:꼬] (머리를) 깜아라. 추진 것인 더 있다가 걷고[거꼬], 마른 것은 걷어얄 것 아이요? 해가 지문은 빨래를 걷어야죠[거더야조]. 꼬치는 담:고[담:꼬]. 빨래는 걷:고[걷:꼬], 꼬추는 담:고[당:꼬](연구개음화 수의적). 나락 걸은 것도 널어 노문은 담:는다고고. 담:는 것은 그럭이다 담:는 닥 헌[담:는다 건] 거이고 빨래 같은 건 걸어서 개:잖여. 소매 좀 걷어라. 소매가 질:문은 이걸 보고 걷는다그래[걷는다그래]. 걷어 올리라. 기분이[기부이] 좋:제[조:체]. 기분이[기부이] 나뿌고. 예를 들어서 나 많은 이가 세상을 뜨문은 세상 베릴 때가 됐:잉개 웬찮대[웬찬타] 그리고, 짚은이들이[걸무니드리] 죽고 허문은 참말로 안 됐다고 글않요[그라뇨]? 맘:이 기뿌고 좋:제[조:체]. 기분이[기부이] 좋아서. 야:들 못 놓다개[노타가] 야:들 하나 노문은 기분이[기부이] 좋고 형개 그런 거 아이요? 별:이 쌈:서 부었다. 부었다고도 하고. (손위사람에게는) 별:이 쌈:서 봇었소 봇었네. (별:이) 쌈:다. 거그서 자 갖고 하:숙헌 디[하:수건디](하숙하는 데) 얼마 도락호디요[도라고디요](하숙하는 데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귀찮어서[귀차너서]. 여그도 시방 지름보 일라(油, 구개음화)가 깔렸어. 그른디 저녁으로(夕, 활음탈락) 추우먼은 좀 옹고[여코]. 일곱시도 묵고 묵고 자문 묵고 그러지요. 나는 담:배 하루 한 각도 피우고, 한 각 못 피울 때도 있고 한아씨 술 잡솨 뼈리문 난리 나 뼈리요. 으:디 안 가. 안 가기는 안 가 나는 말:헐 지도 (모르고). 말:헐지를 알아야 하지. 또 존: 데 있으문 어디가 딴 데 더 알아 바. 가다서(시) 키워야 된다. 잘게 뿐숙어서. 세 쪽각(三). 갈라야지(分).

<테이프 10-A>

내가 전이 일을 마이 협 사람이라. 산에 걸은 디 땅기먼은 전에는 이런 존: 신이 아니고[아이고] 짚신 고놈 신고[싱꼬] 다녔소. 풀도 베다가 풀 베다가 전부 논에다 깔아 갖고 농사 짓거등[지꺼등]. 두 뱅 내지 세 뱅. 누가 웃: 집이서 오래서 세주(燒酒) 서너 컵 할마이. 전에 소 키웠는디

소 안 키워요. 주로 벳짚 있잖아요[이짜뇨]? 벳짚 고놈하고 야생풀 배:서 그걸 보고 초락흔거이라(초라고 허는 것이라). 섞어서. 방에 찌문 왕제 말:고 죽 제 있잖아요? 고놈 조계 섞어서 고롭게 맥있어('어' 탈락). 작두요. 안 춥고만 [추꼬만], 머이 쥐:. 바닥이 차와서. 아지매가 잘 해. 방송에 나오 꺼 아니요?(이웃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주로 소 마이 키우기는 고촌이락흔 디 가 있어요. 소를 집단으로 마이 키워. 내동 농사 진: 소도 늦고 허문 팔아서 결국 잡아 묵죠. 그리고 애:된 소는 안 묵어. 안 잡아요. 그리고 큰 소를, 오래 된 놈 고놈을 잡제. 한 집이서 닥을 먹이도 주로 암퇘들은([암퇘]인지 [암탉]인지 불확실, 그러나 뒤의 발음을 보면 [암퇘]인 듯함). 안 싸운다, 장닭[장따] 이 놈들이 서로 막 많이[마이] 싸와. 차거운디 요거이라도 깔아요! 닥싸움 불인다 그러제. 그러문은 고것이 암탉끼리는[암퇘끼리는] 좀체 안 싸운다(-느-' 부재), 장딱히고[장따거고] 장딱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문 진 놈이 포기를 헌 거이라. 이긴 놈이 암탉[암퇘]을 죽: 많이[마이] 거느리지. 베실이 막 피가 나고 베실을 물어 뜯고[뜨꼬] 허그등. 힘이 약형개 [야컹개] 도망을 가버리지. 심이 지쳐 비리면은 고만 가만 있어요. 장딱끼리 비등현 놈을 갖다 노문은 서로 싸와. 제를(罪, 비원순모음화) 마이 지분(?) 것은 죄인잉개. 별을 받지. 나 그건 잘 모르겄소. 닥장에다 가둔다 그러죠. 잘 가다서(囚) 키워야 개나 닥이나 그것언 개:는 내:서 키우라는 거이고, 닥은 가다가(가두+어서, 활음탈락) 키우라는 피제(發). 활짝 피서 보기 좋:대[조:타]. 피는. 사철로 피는 거 아이요, 그것이? 국화[구화]란 건 구월에 안 피어요[phieyo]? 구월 국하. 국하개[구카개] 산에 가문 마이 피여. 들국하([들구카], W 탈락). 막 부순다 그러지 머. 갖다가 내: 버리야지. 깨:문은(破). 뿌숙우문은[뿌수구무는]. 묻을라고. (잘게) 뿌순다. 물리친다 그러지. 뿌숙어서[뿌수거서]. 노내[nona](分) 묵어라. 세 쪼각을 낸:다. 세 쪼각을 내:서. 가른다고도 허고 노눈다고도[nonundagodo] 허고. 노눈단 말은 아니제[아이제]. 똑같이 장사를 해 가지고 가른 것은 딱 맞지. 노누자. 별:었잉개. 가른단 말이 말이 맞을 거요. 똑같이 갈라야지. 햇빛을 가리기 위 하서 쓰제. 너무 뜨거니까. 햇벗이. 햇벗을[해뻬슬] 가린다. 그것언 골고루 묵어야제, 한 가지 것만 묵으면 못썬다. 묵어도 괜찮고. 집얼 지문은 집얼 진다고문은 낫 가린다 그러죠. 낫얼 가린다. 낫얼 가리서 그런다고. 부

끄럼을 마이 탄다고도 허고. 낫을 너무나 가령개 걱정이다. 가린다(遮斷) 그 러죠. 햇빛을 죄문은[č'ömunin] 살이 겹어지고 형개 모자를 씨고[s'yigo] 가거라. (모자를) 씨고 있거라. 나갈 직에는. (수건으로) 뛰어야지. 목얼 요리 목수건을 혈다. 땀방지도 되고 햇벗도 안 꼬실리게. 햇벗을 받으 문 시컴허잖여. 바짝 몰:류라고도 허고 바짝 몰랴야 된다그려. 말:린다고도 하고, 몰:륜다고도 허고. 널:고 있다. 널어서 몰류다고 그러죠. 몰랴. 열:고 (開). 모르문 걸어 들이고. 꼬추는 안 몰라. 꼬추가 잘 안 모른 거이요. 여리 날을 몰랴야 돼. 하루 이틀 몰류 것도 아니고, 한 열흘 이상 몰랴야 돼. 열흘도 더 걸려. 따른 곡식은 다 잘 모른디 꼬치 이전 안 몰라요. 물기가 있어 갖고. 헵잡군이라고지. 헵잽이라고. 나쁜 뉘이죠. 헵잡을 허문은 남한티 거: 짓말 해 가지고 돈:을 거짓말 해 갖고 아:무날 갖다 준다히갖고 쓰고는 고만 안 쥐. 그게 헵잡이란 거요. 돈을 저 사람한티 빌릴 직에는 잘 줄덕기[줄띠끼] 해 가지고 술도 받아 주고 그러다가 가고(갖고) 가 갖고는 이 놈 맘:이 벤해 가지고 그래 갖고 마이 띠: 묵는 놈이 있어요. 헵잡꾼이라고. 곧 갚을덕기[가풀띠끼](갚을 것처럼)해 갖고 돈 있는 사람한티 술도 받아 주고. (사람을) 이용헌 거제. 미루다가. 헵잡군[헵짜꾼](연구개음화). 뀌어(借)[k'ü e]. 갚아라. 사기꾼이나 돌라묵는 뷔이나 똑같에요. (돈을) 안 갚옹개(로). 도독놈. (반지를) 뺏: 났:다가 꾸:서 찬다('어' 탈락). 뺏:다가 꾸:다. (반지를) 차고 있다고도 허고. 찬다고도 허고. 꾸고 있다. 그것도 내:동 말허자문 바늘 귀 꾸(-느-' 부재) 거이나 반지도 요렇게 벤다(斬). 빨리 베:서. 전이 는 발:가리[pa:lgari]를 치고 글 안허문 세워. 쭉 세워 가지고 나락이 모르문 타:작허러 쭉 나가문 나락이 나오게 하는디 전에는 고통계도 했:어. 꿀 좀 비여[piyə] 오니라[오이라]. 품앗이를 하서 베를 베고 있다. 물이 마이 씬:다[s'yı:nda]. 목이 몰라서(목 말라서). 더워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이 고 술을 마이 묵어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덥:고[더:꼬] 땀을[따물] 마이 흘리문은 물이 마이 묵고 잡잖여[잡짜녀]? 가물고 허문은 물이 귀하서 농사를 잘 못: 짓게[지께] 되고.

<테이프 10-B>

더우(暑)↔ 추우먼은. 영:개(凍). 덥:다고든지. 겨울이는 추워서. 춥다 그 러죠 뜨지요(浮). 튀어(기름이 튀-). 내 낫으로 침 뛰어 온다. 내 낫꺼지[나 꺼지] 침 뛰어 옹개로 살살 말해라[t'üə]. 물장을[물짱을] 치지. 흑탕물이 뛰어 온다. 소는 키운다 그러죠 키워라. 잘 키우씨요(손 우에 사람한티), '-허 씨요'체, 존댓말). '잘 키우소'(조께 야춘 말). 신물이 입 안이 돈:다. 웃어라. 놀아라. 돌아라(回轉). 나 잘 노요('-으요'). 일:거리를 마이 두고도 빌빌 논: 사람들이 있소 빌빌 놓:깨는 배기 싫다. 돈:다 그러지요. 돌:고 있소 어:른 이사 머 그런 짓을 허요?('-으요') (눈에 눈물이 가득) 채있다. 고인다고도 허고, 괴인 있다고도 허고(溜). 많으문은. 땅기기가 힘이 들죠 고인단 말이 맞아. 비가 마이 오문 물이 고이제. 모르문은 몸이 아푸거나 술 잘 묵는 사람들은 목이 바짝 모를 때는 술 한잔 묵으면은 침이 돌:고 그리요 몸이 바짝 볼는다고도[본는다고도] 허고, 모른다고도 허고. 모르문은 배기 싫다고도 허고 보기 싫다고도 허고 그래. 사:램이나 짐생이나 살기분이라[살끼부이라], 빼깍 몰라 빼리문 배기가 싫제. 살이 통통허니[허이] 찌문 예빼 배:고, 모른 거는 비:쩍 모르면은 배기가 싫잖에. 몰라서(瘦瘠). 모르면은(瘠). (살이) 쪽 빠져서 행팬 없:다고도 허고. 붓으문(睡). 아시탄다는 것언 시방은 아:를 나도 우유를 맥이지만은 전에는 젖 묵는 놈을[전 뭉 노물](-느-'의 부재?) 두고 얘기가 뱃속에 생기잔에. 뱃속에 생기면은 젖이[저지] 아무래도 작:게 나와. 작:게 나옹개 묵을 게 작:옹개 아시를 탄다 낳는[난는] 놈이 나: 갖고 젖 묵던 놈이 쪼께 불:제[보:제]. 살이 빠지고. 붙았다=몰랐다. 예뻤다는 [yebit'anin] 소리는 짐승들한티나 많이[마이] 쓰제. 많이[마이] 몰랐다고도 허고 예뻤다고도[yebit'anin] 허고 그래. 돼지. 접대지(w 탈락). 접소. 홀소는 잘 맥이도 갈비가 불거져. 먹인 바램이 없죠(먹인 보람이 없죠). 사람도 갈비 있잖이. 모르문 퉁퉁 불거지지. 튀어 나와. 살이 췌을 직이는 매꼼허니 [허이] 안 보인디, 바짝 말라 빼리문은 빼다구가 (불거진다). (담이) 불었다고도 허고, 절린다고도 허고 붙어서. 아파서. (빼가) 마칠 수가 있고. 빼:지거나. 다치거나. 나도 마이 빠져 뺏:어. 절린단 것언 이런 디가 절리고, 꽉꽉 마친다는 것은 아푸고 그려제. 절리서('어'탈락). 작:아도 꼬치가 맵다

(辛)[məpt'a]. 첫물 나온 꼬추는 좀 달: 맵고[mek'o] 맛언 있고, **꼬치는 작:아도 배불선 그 냄이 벌 맛도 없:죠 매와서. 지:댄다(依). 지:대. 달개라(撫). 울:다가 먹을 것얼 중개 금방 그쳤다. 안 운다고도 허고, 그쳤다고도 허고. 방:구도 잘 꿔드만. 잘 안 꿔:져(꺼어져). 꺼어라. 사:람들 마이 있을 적이 꿔: 노문 냄:새가 나서 (바늘에 실을) 펜:다(通). 꺼어 도라. 못 평:개. 고친다(改). 고쳐 오니라[오이라]. 아푸게. 병원 생활 한 석:달간 혜았:고만. 아파서. 갈비가 금이 나갔었어. 넘하고 싸와서도 그런 것도 아이고, 그래서 가 갖고는 내력 없이 아이제(不). 애:들 못헐 일 시켰어. 어머 이날인가 어버이날인가 다 온다요(온다고 해요). 속: 안 쌩이고 그룩게 산 것이 나는 행복이요(움라우트). 얼:제(凍). 날이 풀리문 녹는탁하고요[놓는다거고요]. 녹아서. 녹드라[녹뜨라]. 삶:는다[실:른다] 그러죠. 삶으면은[시르면은]. 많이 삶으면은 잘 못 가고, 적당허니 삶으면 잘 가고 그런 거지요. 짐을[지물] 삶:고[실:꼬] 있다고. 삶:고[실:꼬] 있드라(기저형 : /시^ㅎ-/). 삶으면은[시르문은]. 가기가 힘들다. 얼:어서도[어:더서도](得). 얼:어서도 입는 탁하고, 저 사람에 나를 주어서도[čuəsədo] 입는탁하고.

<테이프 11-A>

송:곳 끊은 고것언 끄치 없으문 갈아 쓰락하고[쓰라거고]. 끄치 빼쪽허다고[빼쪼거다고]. 빼쪽헝개. 쑤실 수가 있잉개. 빼쪽허문. 쑤실 수가 있제. 삭대. 전에 농사 마이 질 적이는 마이 햇소. 지금은 넘 쑥 쥐: 비리고 한 마지 기도 안 (짓는다). 쑤시:서 빼: (뿔지). 쑤신다고도 허고. 절리기도 허고 아풀 적이는 꾹꾹 안 쑤시디요(쑤시지 않던가요)? 당신들은 짚웅개[절몽개] 어쩔랑가 모르지만. 나도 시방 쪼께 꿈적기리문 허리가 아파. 궁개 나도 시방 농사도 쑥 넘 다 쥐 비리고 밭 죄:께 꼬치나 쪼께 숭군탁하고 암껏도 안 해요 쌀 마있어('많이 있어' 축약?). 성킨다고도[syüŋkhindagodo] 허고 그래. 성킬 필요는 없는 거이고 지푼 디다가 잘 여: 나야지. 둔다고도 허고(置). 성킨단 말은. 성킬 수가 있지만은. 잘 숨어야지. 성킨(숨기는) 거이나 마찬가지지. 절에[저테]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을 성키 주고 그러드라. 감차라. 감차야 될 거 아이요? 감추고. 감추든지 허문 쭈거리 나문은(들통나다) 내

가 죽게 된다(되는데). 못: 들오게 해 빼리야지. 쟈:라문은(使寢). 재: 도라. 그건 안 재야 돼요 안 재야 된다고. 따독기리고 있다. 자장개('이' 첨가) 노래가 있어. (고기를) 낸았다. 못: 낸는[낳는]. 잘 낸드라[낙뜨라] 명청한 사람이 잘 넘어가잖아, 귀가 예린 사람이 넘우 말을 잘 듣지[드찌]. 귀 예린 사람�이 넘우 말도 잘 듣고[드꼬]. 귀가 너무 예리도 탈이고, 너무 무뚝뚝히도 [bmut'ukt'ugido] 못:씨고. 홀딱 떨:렀다고도 허고. 전에 쌀제라고(쌀禊) 있었는데, 쌀제 해 갖고는 어떤 놈이 앞이 찾아 쓰고는 고만 안 내 놔 빼링개로 완전히[완제이] 뒤에 찾을 사람은 다 띠: 비릿어. 깎는대[깡는다]. 깎아 써라. 깎:고[까:꼬] 있다. 불:는다고지(增). 붐:고[불:코]. 차운 물이다 당구먼은 더디 붐:고[불:코]. 붐었이니까[부러씨니까] 두부를 허든지, 메주를 쓰든지[s'idiŋji] 그런 거 아이요? 콩을 일어서, 당과:서, 당꽝:다가 가마솥이다 붓고[부꼬] 불을 때:서 끓이는 거요. 끓으면은[부르머는] 쉽:게[쉬:께] 생길 수가 있제. 당구고. 당굴 수도 있고. 끓으라고[부르라고]. (때를) 민:다. 녹힌다고도[노:킨다고도] 허고. 불:제[불제][불제]. 벗기면은. 끓고[불코]. 잘 벗거지라고. 쉬포리가 쉬를 깔리면은 고 놈이 또 포리가 돼요. 깔린다고 다 그러지. 깔린다 그래요. 쉬포리가 장독에다 쉬를 마이 깔리 났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잘 안 깔리드만. 고것이 기도리가 되죠. 기도리는 더:런 거 아이요, 말허자문? 쉬포리가 고놈이 쉬를 썰으면은[씨르머는] 굼벵이가 된당개. 썰은다고도 허고, 까린다고도(발화실수인듯) 허고 그래요. 쉬포리가 쉬를 깔린다고 보:통 그리고 쉬포리가 깔리서('어' 탈락. 기도리. 굼:벵이 종류하고, 기도리 종류하고는 쪼개 틀리제. 쉬를 잔뜩 썰어서 기도리가 생겼다 그러죠. 깔리 났다. 두 가지 말이당개. 녹이 실었다. 녹이 썰옹개로. 땀아야 되고. 묻는다 [묻는다]. (녹이) 낀:다고도 허고. 시컴허다고도 허고. (햇빛을 너무 마이) 쟁:개. 햇빛을 마이 받으문은 마이 시컴헐 것 아이요? 햇빛을 마이 쫓:드만은[쬐:뜨마는]. 끌실리진다('어' 탈락). 시컴허게 끌실려져서 못: 씨겄다. 그것도 끌실렸다고 안 허요? 햇빛이(햇빛에) 끌실렸다. 까맣게 끌실렸다. 햇빛을 너무나 받아서 시컴허니 베기가 싫다. 끌실렸다고도 허고, 시컴허다고도 허고 그래. (칼로) 썬:다 그러죠. 무:를 썰어라. 썰:고 있다. 썰:드라. 옛날에는 디딜방애로 쟁:는디[찌는디]. 도구통에다[toguthog]에다 쟁고[찌코]. 쌀당꽝다가 쟁제[찌체]. 전:닥혀요(찧는다고 허요, '-느' 부재). 떡방애를 전:다

고. 빠수기도. 빠순다고도 허고 찐:다고도 허고 그래요. 방앗간에 가서 떡방 애를 찌여 오니라고[오이라고] 허든지, 빠사 오라고든지. 빤:단 말(/빵-/+/는다는 말). 가루를 빤:다고도 허고 그러디요(低低高高)? (여기 말은 아님). 빠순다 그러지. 떡방아를 찌로 왔다든지. 이런 디 말:로는 꼬치방아도 찌로 왔닥하고, 떡방아도 찌러 왔닥하고 그려. 찢었는디[č'iennindi]. 빠수라. 쥐 돛을 낸:다(w 탈락) 그러지. 콩을 놔:서 묵는다. 낸:다. 놓고[노코]. 낸:대[낳았다]. 푸르다. 새팔하다고 허고 새팔허네. 파르다고(??). 생기가 돌아온다. 푸릇푸릇 잘 자란다. 색깔도 맑아지고 새팔하다. 젊운[절문](원순모음화). 젊어서[절어서]. 젊었응개 좋:지. 늙으문 배기 싫고 젊었다고 자랑 말:고 늙었다고 팔세 마:라. (나이를) 작:게 묵제. 같이 늙지만은[늙찌마는]. 첨 은 아무래도 젊어[절머]. 근강허다(健康). 젊어 보인다. 젊:고[정:꼬]. 닮았다고 [달마따고]. 쪼꼼썩은 다르다 그리요. 한 벳쇠이서(움라우트, 처격조사 ‘-이’ 도 움라우트 동화주로 기능) 똑:같이 나와도 달라. 다르기는. 막는다[망는다]. 장군다. 장구고. 장구씨요 헌다든지. 장구고 나오니라[naonyira]. 낫옹 개(낫-). 문을 닫고[닫꼬] 나오니라[나오이라]. 장구고 나오씨요. 닫고[다꼬] 있거라. 장구고, 들어올 직에는 열:고 그리야지. 고:쟁이(고장+이, 움라우트). (주격으로 밥을) 풀다 그러죠 담아서 갖고 오이라. 담:제[담:제]. 고것언 풀 단 거이고 주벽으로(PK교체) 풀 직에는 푸고 밥그륵이다[바끄르기다] 담을 [다물](원순모음화) 직에는 담:는 거 아이요? 주벽으로 퍼서 담아야 숟그락 으로 밥을 묵제, 주벽으로 밥 못 먹잖에. 뜬닥허죠(浮). 날아간다. 떠 간다 (浮). 뉘:야죠(尿). 눈다 그리고 오줌 누려 간다. 똥도 누려 간다 글고. 뉘:야 된다. 나 똥 누고 있다고 그리야지 어쩌겄소? 그것보고 통식뱀이락 헌 거이래[통시빼비라경거이래]. (그것을 가지고) 거름을 안 허요? 벤소=통시. 새를 잡을라고[자불라고] 꼬누고 있다고 그러지. 잘 꼬나서 쏴:라 그러지 머. 거둬 덜인다. 거둔다고도 허고 거와 덜이야지. 거둬 덜여. 넘우 자식. 키운다(育).

<테이프 11-B>

때가 찼:잉개(찌+었응개, 전설모음화와 모음간). 더:럽우문[더:러부문] 뺄

아야지. 낫을 셋거라(셋어라). 셋고[씨꼬]. 때가 물으문은. 문지 같은 거 앉고[양꼬]. 더러서 씨겄냐고. 눈꼽째기 같은 거 짜:고. 지저분하다고도 허고, 더:럽다고도 허고 그려. 더:러서 씨겄냐고. 때가 마이 췄:드라[찌:뜨라/č'it'i:ra]. 때가 마이 췄이문 셋거야 되는디, 안 씨꿍개 때가 마이 쩐: 거 아이요? 낫을 안 셋고[씨꼬]. 더:럽다. 물이 오염이 돼:서 깨끗허들 못허다 그거죠. 끓이 묵어야지('어' 탈락). 끓는대[끌른다](沸). 성:질 나뿌다고도 허고 못:씬다고도 허고 그려. 김:이 나고 있다. 끓고[끌코]. (속이 안 좋아서 부글부글) 관:대[kö:nda]. 괴아. 괴:는. 신티림이 올라오고. cf. '웅덩이 같은 디는 물 괴인대[köinda] 그러고'. 이기고(勝). 이긴다. 이기드니(-더니). 이깃다고 ('어' 탈락). 지제(敗). 이깃잉개[igis'yiongge](전설모음화, '어' 탈락) 기분이 [기부이] 좋:고[조:코], 졌잉개 기분이[기부이]('ㄴ' 탈락) 나뿌고. 바빠:서. 한 잔 묵어야겠고만. 묵으면. 잡숴!~잡사(요)(두 가지 활용형 공존). 언능(얼른). 아금니(齒). 살아요. 딴 성받이도[성바지도] 마이 살:고. 노인챙이고 [noinjegigo]. 화:관이고.

<인체 관련 어휘>

복송씨. 모디라고(節) 안 해요. 그것도 모디라(대나무 마디). 껴멍창이고. 흰창이고. (달걀의) 노란조지. 흰조지. 땘:기 잡사! 허북지. 물팍[bmulphak]. 장:딴지. 요것언 칼뻬. 젤:로 아푸거등. 여그는 두: 개고, 우:로는 한개뼉이 없:어. 한개뼉이 없:고[어:꼬] 요 알로 와서는 두:개고. 영:딩이제. 응:딩이고 [i:ŋdinjigo]. 입솔이지. 입솔 아이라(입술 아닌가)?(할머니) 입술. 콧님[콘님]. 콧뱁이라고. 문지. 보지기(보조개). 옛:날이는 마이 안 썼지(그런 말을). 아구심이 세:다. 폴심[폴씸](팔힘). 재갈(자갈). 부수고(擊破). 오곰챙이[ogomj eqi]가 아푸닥허지[아푸다거지]. 저리제. 저리:(다리가 저리+어). (머리) 가르마 탄다. 비덤이지. 비듬. 지기미(옛날말). 수염[suyəm]. 털심:. 콧시염[코씨 염](콧 속에 나는 수염)이 있고 되야지 대가리. 볼부시. 끓기[공기] 갖고 따고 그렀어. 따문. 고약을 불이고[부치고]. 다래끼. 낫:는다고[난:는다고](癒). (눈에) 티 들문. 셰(舌). 활으문 낫:는데[난:는데]. 봉사. 몰르겄소. 반벼벼리. 벼벼리. 더듬더듬 헌 사람은 반벼벼리고. 말이 여려 질이라. 셰. 셋바늘(혓발늘)[s'yep'anil] 그게 일어나문 아푸잖애(아푸잖아). 더 옛날 양반들한티 가야 된다. 할무니라. 육십이 넘었는디. 육십여섯. 원체 아파 갖고 이리:. 애:들

마이 났:지(낳+았+지). 참빗. 얼거미 빗/얼그미 빗. 기냥. 참빗은 벤: 거 있잖여? 빗는[빈는] 거. 비슷허제[비스더제]. 비슷해[비스데]. 오른손. 왼손. 어금지 큰 손. 젤:로. 그 담:이 가운데 손. 그 담:이 손. 그 담:이 손. 새끼손. 남군[낭군](餘) 거 묵고 음지 손이고 요것언 종손. 가운데손. 요것이 은지라. 부모한티 회도허는 사람들은 죽을라고문은 칼로 띠: 갖고 피가 나오문 목에다 딜이문은(使人). 쪼께 살아 제시다가(在). 중이현(重要) 손이고만. 알:고 보문. 혜도현(孝道, 비원순모음화) 손. 앓일라면은. 앓아야지. 발을 포개고 앓인 것은 나뿌단 거여. 요렇게 앓인 건 갠찮고[겐창코]. 올리제. 안 앓는 거여. 벼룻이 조께 작:다. 벼룻이 없:다 그거이제. 배운 디가 있다 그려. (배추를 소금에) 절이야지. 부실떡이라고. 부슬목. (피부에) 올린 거(오르-). 가려웁고[가려우꼬]. 벼침. 진벼침. 모른벼침. 기겟독. 도장벼침. 번치나가거든(번져 나가거든). 지모(기미). 째:보. 열이지(熱). 열뱅. 홍진꽃이제. 추학[chuhak]. 징그람계도[징그라께도]. 메느리시염(매일매일). 저녁 때마동해. 추학은 하루 띄워서 허고. 아주 징그라. 마이 앓았제[아라째]. 어리서는 노:상 그거 했:어. 죽던 안 했을 걸. 죽던 안 해. 처:녀(處女). 큰애기도 되고. 새드기(새댁). 택호. **떡. 아무거시기 양반. 이魯게 불러. 안 양반[안녕반] 택호를 따라서. 지암써 왔으문 아줌마가 지암써 왔으문 지암 낭반. 지금은 벨로 안 쓰지. 서울떡이문 서울떡이락하고 시숙. 성(兄). 언니. 성! 마이 그렸어. 행님. 장:개 안 갔을 직이는 성이라고 허고 성! 성! 마이 불렀어. 올케언니. 큰언니. 맞아(的). 신우. 신우남편(지칭). 아자씨(호칭). 남동생. 진:앙. 올킨디. 불러야(呼). 올키. 오래비. 시숙님(호칭) 강상도(경상도) 술묵웅깨. 입 땄야.

<활용조사표>

눈이 바신다. 바심:서도. 바시:서. 진짜로 서울써 오셨어? 경상도. 쌤:응깨. 믿덜[미멸] 못허겄드라고. 속았다. (똑똑하면) 안 속은디(속는데, '-느-' 부재). 속일라문 속지. 마이 당했다. 야:는디(知), 속는대[송는다]. 이백멘(이백면, 행정구역). 남안(南原) 주천, 운봉 주천. 가 봤으 거여[꺼여]('ㄹ' 탈락). 굳이 거:창해. 아까 누가 가자고쌓드라고[가자고싸뜨라고]. 그도 온디 어치게 가야고 내가 못: 가시게 했지. 불잡어가지고 일:을 했어. 누가 가자고드라고. 가 봤자 멋허냐고 다리만(대리?) 아푸다고. 먹을 것도 갖다 채리 놓

고. 돈이 있이야(전설모음화) 돼. 돈 없으문 안 돼. 사 뚝어야. 인내키야지. 인내키 준 거이지 머. 녹음(錄音, 원순모음화) 다 돼. 약 단:지다 달았지(煎. 발화실수인듯). 꼭지가 달리고, 꼭지가 달리고 동고롬허니[허이] 약단지가 있지. 요만:허니[요만:허이]. 그시기(거시기) 불을 때:서도 달이고. 그릉기 달 있지('어' 탈락). 숫으로 마이 달있지. 숫이 없으문 불을 때: 가지고 달이고 막 그랬잖아. (달인 다음에는) 짜 뚝고. 펜허지(便利). (줄다리기 할 때) 벼트고. 벼:터야지. 다리를 벼트고 끄어 냉기야지. 끄어 냉겨.

<테이프 12-A>

도독이라고까? 살핀다. 훔친다 살평께 훔치제(할머니 발화에서는 '-옹깨' 가 빈번하게 발견됨). 너무 마이 둑아서([돌마스]에 가까움) 감악(감옥)에 들 으갔다. 그릉기. 돌무고('으' 첨가) 있다. 둑아간다[돌마간다]. 내:동 도독질이 라. 훔치 가스. 둑아 가스(둘아가서)(할머니 발화에서 부사형어미 '-어'가 [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함). 원:다(暗). 머리가 종깨 잘 엔:다(비원순모음 화도 할아버지 발화에 비해 더 보편적임). 에어[ewə] 바:라. 알켜 도라 그러 지. 사기라(친구, 交) 그러지. 나쁜 친구 사기지 말:고. 메:고(負) 냉기라. 지 고(負) 냉기라. 메:라. 숙아 내:라(내:야). 숙아 낸:갑대[냉:갑따]. 숙아라. 갈치 (教) 주는 거이지. 두:개가 들어갔이문 한 개만 나 두고, 한 개는 빼: 내야지. 숙운다(원순모음화) 그려. 손지(孫子). (다리를) 뻗치고. 숙우고 있다. 썩는다 [셍는다](腐)([i]에 가까운 [ə] 발음). 상했다. 썩었다고. 썩지[썩찌]. (비가오 면 땅이) 질지(泥). 질다. 질어서[지러서/지르서]. 밥이 질문은 밥이 질다, 질 어 이魯게 말허지. 지금 보:통 막 물이다 이魯게 말허잖이. 물러서(軟). 물리지(무르+지, 전설모음화). 물려. 까불라서. (챙이로) 까분다. 존:디(좋은데). 물르다(軟). 밥이 질으스('어'가 '으'로 발음되는 경향) 싫다. 안 했소? 질으서 /질어서(長) (머리가) 길어서 짤랐다. 얼거미다 콩얼 친다. 얼거미빗. 얼거미체. 얼거미는 굵고[구꼬]. 벤:체는 베:고. 벤체 접체. 훌체. 접체는 아주 베고. 드물고. 얼거미가 요 정도는 디 껴이라. 귀엽제(貴). 귀엽다. 오그라지지(縮). 많이 쓰문은 재산이 망허지. 망히진다(亡). 줄어졌다. 줄어서. 손님이 작아서 속상하다 그거이지. (더) 낫:겄어. 손님이 안 와서 속상하다 이래야 되까('근'

탈락)? 그 말도 있지. 벨(별로) 안 옹깨. 숨어야지(植) (모를) 숨고[승꼬] 있다. 모를 다 숭거서 시언하다. 숭구고. 심:는다. (나무를 마이) 숭거라. 씨다듬아 준다. 쓰다듬고[쓰다등꼬] 있다. 인나서 혀, 언능. 인내:키 주께. 앉았기가 허리 아疼가만. 내가 기압 받아. 손아래가 손우가 있고 그러제. 손아래가 있고 손우가 있잖에. 아:들도. 애:가 순:하다 그러지메. 고:약허지[고:야거지]. 악현[아컨] 성:질이라고까? 악취시립다고지. 쟁질이. 무겁다(重). 개굽다(輕). 개바서. 개瞽다. 입을 너무 야불기리고 놀링깨 그 사랩이 나쁜 사랩이고. 입이 짜다. 입이 가볍잖아[가볍짜네](가볍잖아). 말을 함부로 허니까. 입이 가베: 갖고. 젖어야지. 짠내도 나고(죽을 잘못 쑤면 나는 냄새?). 젖:는대[전:는다]. 젖:고[절:꼬]. 젖어야지. 젖어라. 뚜껍다. 뚜껍어서/뚜꺼워서. 뚜껍옹개 무겁지메. 뻔고[뼈꼬]. 뒤로 넘어간다? 뒤로 넘아간건 뒤로 넘아간다거고 앞으로[아푸로] 엎어진 건 앞으로[아푸로] 엎어졌다 그러지. 재수가 없일라문 뒤로 넘어가도 앞으로[아푸로] …… 코 캔:다. 재수가 없을라문 뒤로 넘어가도 코 캔:다. 부러졌다. 분진다. 분질지. 죽은 가징개 분질러도 팬:찮다. 퀸:힌다 [kwə:nhənda]. (목을) 쪼린다. 쪼리지. (목을) 졸라서 죽었다 그러지. 배운다. 배우제. 배와라.

종을 땅땡 친다. 크기 땅땡 처라. 문질러라. 대린다. 다리라(煎명령). 쿵밥을 판다. 코딱챙이 …… 파지 마라. 쓰리고 아푸지. 쓰리고 아푸다 이러지. 씨리고 아푸다. 셰가 왜 허다 그러지. 쓰리고 아푸다. 저리고 아푸지. 오금재이가 아푸다. 저렁거이고. 저리서. 불군다. 쌧아? 불가 가지고 따시서 좋다(溫). 따사서 좋다(使溫). 따습게 자라. 정심때꺼정 해야지. 뉘빈다고지. 박아라. 뉘비라고도고. 꼼맸다. 뉘볐다. 식콰라. 식콰. 식쿠고 있다. (밥을) 떼라. 맨다. 놀:지 말고 밭매라. 매고. 매달았다. (목이) 쟁갔다. (종이가 잘) 불는다. 불으라. 불드라. 딛어라. 앞꽁지만 딛는다. 앞꽁지만 세우고 있다. 딛고 있다. 엎기도[어끼도]. 엎어라. 엎는다. 엎어서 키운다. 가렵다. 가려워서. 가려버서. 가려옹깨. 간지러서. 가려워서. 긁는다. 때리준다. 때렸다. 어둡다. 어두버서. 어두버서. 어두분디. 어더원디 불써라. 틀려? 어더원디 불써라. 어두워서. 어둡드라. 어두버서.

<테이프 12-B>

뿌리치고 간다. 잡아도 모지란다. 모지라서 걱정이다. 부른다. 크기 불러 바라. 분는다. 따룬다. 따라라. 따루고 있다. 쪘사 묵는다. 쫀는다. 쪘사라. 쪓고 있다. (장기를) 뒤지. 된다고더냐?

<테이프 13-A>

<테이프 13-B>

<테이프 14 A-면>

근디 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 민물에 사:냐, 바다에 사:냐? 이림이(이름-이) 머이냐? 요것이 그렇게 종류가 틀린당개. 왜냐면 붕어도 있고, 조:구도 있고. 젤국엔 그런다고, 이것이. 조구나 붕어 합해갖고는[하베가꼬는] 물:르지, 그것얼. 고기라고 그래야지, 고기. 괴기가 맞지. 옛:날에('이'에 가깝게 들림) 말로는 괴기지. 요즘에는 고기로 되았지. (물에 사는 고기) 그러지, 물에 사:는 고기디('디'에 가깝게 들림. 'ㅈ'의 조음위치가 다른 듯함). 조구. 읊:찌(無), 옛:날부터서 조구라 그랬지. 조기가 아니라 조구라, 조구. 옛:날말은. 옛:날에는 조구. 조구라고 그리고, 시방은 조기라고 그럴 거이여.[그러꺼이여] 지금말은. 물고기[물꼬기] 종류가 여러가지랑개, 민물에 산: 거시[상:거시, 살+(느)ㄴ]. 같:은, 형태는 다: 같은디, 이 종류 이림이 틀린당개. 현:물을 보면은 우리가 요것은 머이다, 머이다 요렇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인디, 현:물을 안 보고 그림만 바:서는 요것이 잘 안된다 그 말이라. 그래서 내가 허는 소리라. 잘 모르지. 낚시구마. 시방은 지렝이라고 그럴거이여.[그러꺼이여] 옛:날이는 거:시레이. 옛:날에는 거:시레이라고 그래지. 시방은 떡밥이라고 나왔어.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기 땨시, 땅속에서 파면은 거:시레이라고 있어. 요렇게 뻘그레하고[뻘그레하고] 쪘:깐한 거. 고걸 잡아서 주로 그식했는디, 시방은 떡밥이라고 그 밥이 나오드구마('드구마'에서 두번째 음절의 모음이 있는 듯함. [등마]는 분명히 아님). 낚숫밥에 끼:는 그 밥: 거:

시레이 대신 고놈을 끼여서 그 질을 허드마. 젤국에 고것이 나오드라고. 옛날에는 거:시로 했지, 거:시랭이라고 그레지([그려지]인지 불분명함). 남원시:내 말:로는 거시레이라고 그레. 딴: 데 말:은 몰:라. 그러지, 미끼지. 지금은 전부 낚수, 낚수 미끼라 그러지. 고것얼, 가만 있거라, 머이라고 허드라? 아구, 아구이(?) 숨 쉬는 거인디, 아구탱이(아구통+이), 옴라우트 후 원순성 상설) 숨 쉰('느') 거인디, 그걸 머이라고 글등만. 우리 안식구가 알랑가? 잉, 아개미라고 그래요. 요리요리 숨을 쉼서, 벌떡벌떡 인나지. 맞았어. 창사. 시방은 내:자라고 그러지. 창사나 내:자나 마찬가지라. 근디 서울말하고 여그 현:재말하고 내말하고는 틀려. 내사 남안에 살았기 땀시. 미꾸라지. 피리. 봉어. 피리 말고는 없:지. 중간에 것인가, 머이까[bm], 그것이? 머이라고 [bm] 허까, 그것얼? 은어. 저 밑에 다린(異) 디. 피리 말고 쪘:깐 거[쬐:깡거] 있는디, 날피리라고 쪔:크만 거이 하나 있는데, 피리 새끼지, 말허자믄. 종메니깐(?). 송사리 같은 건 이 근치는 없:고. 왜냐면 이:백이나 주천 저 짹으로 가면은 송사리나 쟁아리 머 요런 것이 민물가에 사:는 것이 많어.[bm] 요기도 읊:어. 옛날 있었지. 달룽지(異). 송사리나 쟁아리 같은 것은, 쟁아리는 미꾸라지매이 생겼는디, 무누가(무늬?)[bm] 몸떼이가서 누릇누릇해이 갖고 참: 좋:게 생겼다고 매운탕 짙이묵는 거이라고, 쟁아리다리(?) 이런 거 전부 너:갖고 황까지(?) 매운탕 짙이 먹는 것이라고. 그렇께 매운탕집이 가면 환:이 알:지. 올챙이. 개구리. 궁개 쟁개구리가 있고, 보통 개구리가 있고 그레. 쟁개구리란 건 머이니, 뒷등어리(?)가 뺄그레. 뺄그레 갖고 밑바닥도 뺄그리고. 쟁개구리는 잡아 안 먹거든[자반:먹꺼든]. 사람덜이, 우리가. 두께비. 큰 놈 큰 거 둥글둥글혀 갖고 싱싱한 거. 두꺼비([tulk'aybi], 옴라우트 어형을 발화하려다 실수를 해서 발음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모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 불확실함). 두께비, 두께비. 갈치구마, 갈치. 멜치. 멜치를 말로 ㅑ:서 포장을 헤 갖고 시:중에 나오는 거이 고것이 멜치라. ***
 ** 젓('어'의 발음이 매우 유동적임. '으'에 가깝게 상승할 때도 있음). 새우젓이나 뱀댕이. 쯔, 쯔. 새우젓, 새우하고 요런 거, 또 저 쪔:깐한 피리새끼 만헌 것, 잡동새닐 너어 갖고 젓을 맨드라. 시:중에서 팔지. 젓이라고 그러지, 젓, 젓갈. 도 ㅑ:지고기 같은 것을, 싸서 먹지. 새우젓에서 싸서 먹으면은 독성이 없:어. 그러기 땀 새우젓얼 너치. 도 ㅑ: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상추

하고 합해 갖고 고음을 먹으면은 독성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함께 통합해서 먹지. 가오리. 게:. 개? 우리집이 있는 개 말이여? 지시므로(?) 새비. 대새비구마, 요건. 바다에서. 민물에서 사:는 것은 없:제. 민물에서 사:는 건 까:재가 있제. 까:재. 까:재라고 구멍 뚫어갖고 독박새:서(돌박사이에서?) 사:는 까:재가 있다고. 그거이 대새비랑개. 새비. 쪽:깐현 거. 쪽:깐현 건 새비가 있고. 징계미가 내:내 새비라. 옛:날에 새비라. 징계미란 말:언 옛:날에 안 쓰고, 궁개 새비라, 새비, 옛:날말언. 새오라도 허고 그레쌓지, 서울싸람덜은. 그 젓갈담은('느-') 거이제. 새비 젓갈 담은 거. 쪽:깐한 거. 대사리. 대사리, 대사리. 바우(巖) 속에 살:고 바우 밑에 가고(확실히 들리지 않음) 밤(夜)으로 잡는 거이라. 밤으로 잡아. 요렇기 생갔어. 요렇기 생갔는디, 낮에는 없:어, 들어가뿔고. 바닷속으로, 물속[쪽]으로. 남안 쪽 광알로 옆에 가면 뚝 있는데, 똑 있는데, 거기 가면, 밤에 가면 후라시를 갖고 비치먼은, 복판 이개[복파이가] 새:캄해([새:카메]). 불어, 손으로(手) 훔찌(경음으로 들림.) 담아. 잡아 갖고. 불을 비쳐(원순성이 거의 없게 들림.) 보문 바우에서 붙었다는. 불어 있으문 고음을 손으로 잡아들여갖고 국을 뚫여 둑으문 맛이 참 좋:야. 우:령, 우:릉, 우:령. 요건 민물애가 있어. 바다에는 없:어. 달팽이. 씨 캐. 이:. 멋:을 기리났으까? 베룩은 뛰어댕기면서. 그럼 베룩이라, 그것이. 뛰어댕기민서 사람 웃이 불어 갖고 피 빨아 먹고 사는 거. 요즘에는 없:어. 옛:날에는 많았지([마네찌~만해찌], 'ㅎ'이 분명히 들림). 뛰어댕기는 거. 쪽:깐해 갖고, 빨:그려 갖고. 포리. 포리. 포리알언 몰:라. 피 빨아 문 거 아이라 요건 메뛰기구마. 메뛰기. 땅개빈가? 모:기, 모:구. 쉬[jü]라는 것은. 쉐[e¹]가 파리에서 나오기는 나오지. 그런디 파리가 달라, 종내기가. 왜냐면 파리하고 쉐포리라고 있어. 쉐포리라고. 고곳이 오뉴월되면 나와. 시컴해 갖고 커. 큰 것이 웅웽 허고 돌아댕긴다고. 그거이 음식에나 으:디 남새를 잘 맡아[마따]. 고거이 불어갖고 있으문 그냥 똥구멍[똥꾸멍]에서 바:로[무성모음] 쉬를 깔린다고. 파리채로 잡아뿌리야 고거이 쉬랑개, 쉬가 크면은 겜

1) 이 할아버지는 /이/와 /에/를 혼동하고 있음. /에/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은 이 방언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음. 또 다른 문제로는, [ʃi]와 [ʃe]의 혼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혼동되는 것은 '세'[ʃe]와 '쉐'[ʃwe], '시'[ʃi]와 '쉬'[ʃi~ʃü]

.....

귀(?, [겔귀] 정도로 들림.) 쉬가 된 인자 막 내가 애:기안해, 파리가 고네미 붙어 갖고 알을 뚫으므로 고네미 커 갖고 큰 것이 쉬라, 쉬. 그거이 기여댕기('지여댕기'인지 불분명) 갖고 낭중에 크면 거서 파리가 나온당개. 구데기라도 허지. 구데기도 허고, 쉬라고도 허고. 종내기가 같으지. 말:은 달라도 기도리도 내내 그 종내기랑개. 쉬라고 그레뿐당개, 아조. 그렇게 한국 말:은 못배운다는 거여. 사람이 가서 땅바닥[땅빠닥]에다 드러뒀이문, 사람이 드러뒀다 이통기 말하면 되는디, 저거 자빠졌다, 저거 죽었다. 말:이 니: 가지, 다섯가지가 돼 갖고 못배운다는 결론이라. 그릉기 말:이 많에요. 회라고 허지, 말은. 회라고 허는디, 그것이 옛:날에 말이 그렇개 또 벳속에서 멋:이[bm] 나오냐면 날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면 그거이 잘못되면 벳속에서 요마씨허게[[요마씨거게]] 톡톡톡 찔라져 나온 것이 있어. 게시랭이로 헤 가지고. 거:시랭이로 헤 가지고 고거이 찔라서 나오는 것이 있당개. 고것도 내:내 그 종류여. 그러니까, 같허제. 고 종내기 땀시. 검:자리, 검:자리('어'가 상당히 높음). 고 벌래에 종내기 이름은 罥:당개. 한가지 한가지 그것만 딱딱 있어 나와불지. 벌걱지. 벌걱지. 폐가 쳐서 댕기는 거이 모구폐도 있고, 하리살이폐도 있고. 음:지, 음:어. 바:개미. 굼:벵이. 고것이 비싸. 팻병(肺病) 환자덜이 그걸 거:무. 요것이 저 검:자링갑다. 검:자리. 산제기, 산저기. 지네. 뜸물. 메뛰기, 메뛰기. 땅개비가 있고. 땅개비는 요것보담 종내기가 크지. 생기기는 똑 같이 생갔는디, 키. 매뛰기하고 땅개비하고 닳다고(舛, 분명하게 들리지 않음). 사:마구. 뒷다리 잡고 있으면, 매:미. 연:치, 연:치. 소리가 여러가지라. 통떨어서 이름이 연:치라고 하지. 요거이 사:마구마. 사:마구라고 헌 것은, 사:마구란 거는 손등에[손뚱] 머 그 사:마구가 톡 벌거진[뻘거진] 거 있으면, 잡아 갖고 옛:날에는 고놈을 뜯어 묵었다고. 벼마재비는 벼마재비 이럼이 있게. 그것이 내:내 요것인가마. 보마재비(원순성이 매우 약한 '오'임). 물 옥에(上) 떠댕긴 거. 물 옥에 떠댕긴 거시 그것이 물방개민디, 물방개.[물빵개] 등개, 등개. 벌: 땅벌[땅뻘]. 생객이 안 나네. 요새:는 땅벌이라고 그러지. 땅:끼벌, 땅:끼벌. 쉐포리보고 그러는가? 날아댕기덜 않고? 날아댕기면서 소나 도ㅑ:지 여립(夏)철에 오뉴월에 나와서 피 빨어 먹는 거이 있어. 날아댕기지 안 날아댕기덜 안 해여. 고거이 날아댕긴다고. 그건 파릿종내긴디. 진두게려고 말을 허까?. 피 빨아 먹어 갖고 날이 갈

수록 커지지. 톡: 볼가져 갖고 낭중엔 이만하다고 그것이. 진두개, 진두개. 숨소, 암소, 송아지. 소풀. 소고기럴, 쇠고기지. 쇠꼬리. 소뿔, 옛날이는 쇠뿔이라고지. 꼬뻬, 소꼬뻬. 몰꼬 간다고 그러지. 소를 몰꼬 간다고 그래, 소를 몰꼬 간다고 땅금땅금(?). 소를 꼬뻬기를(?) 해서 요통게 앞이 감선 지계를 지고 머이든지 짊어지고 가면 요놈이 뒤따라 오거든. 소꼬뻬를 잡고 소를 몰꼬 간다고 그러지. 안 그러지. 몰꼬 간다고 그러지. 끌꼬 간다나 모꼬(몰-) 간다나 마찬가지지. 명에, 명에. 망:인디, 망: 멋:을 단:(별+은) 거슬 못 뜯어먹게 망을 씬:다고. 소망: 씬다고. 마구깐. 소마구깐. 외양깐. 옛날에는 위양깐이라고 그랬지. 시방은 마구깐이라고. 마구깐이나 위양깐이나 마찬가지 말 키운 데는 위양깐이 아니지. 소 키운 데만 위양깐이지. 말 키운 데는 마구깐이지. 소똥. 거름이라고 허지 거름. 말허자문 토비(堆肥)가 나오지. 똥이다가 집이다가(짚-에다가) 벼무려 갖고 여기서 사:그리다(?) 고놈을 많이[마이] 차면, 껴: 내 껴내 갖고 고놈을 쟁여 놨다 놔 두면은 고것이 토비가 도. 뒤엄이, 옛날에 두엄이 시방은 거식이라, 토비. 그러면, 옛날 말이지, 뒤엄이. 시방은 토비라고 그러는다. 등테. 지계등테. 지계 껌데기에 붙이 갖고 있지. 그리야 갖고 고걸 짊어지면은 여:가 안 괴이게 허는 방도라. 고것이 지게 등테. 밸:때. 말허자면 지게 얹인, 또 저 엉끼는 거 있어. 요통게 영끼 갖고 거그다가 그 지게에다 딱 요려면은 오복해 거가 있잖애. 그러면 인자 거립곁은 거 머곁은 거 퍼여서 갖고 옛날이는 짊어지고 냉깊어. 밸:때라. 요것언 밸:때가 아니로구마(분명치 않음). 요통기 생겄는디, 여가 인자 밸:때라고 생겄**, 있당개. 거그다가 거립을 퍼부서 갖고 짊어지고. 말허자문 지게 받추는 것이라. 지게 받취***. 왜냐먼 으:디다 딱 노:먼은 요지계가 자빠져뿌잖애. 자빠징개 안자빠지기 위해서 요거이 괴이 갖고, 착괘이라고 있어. 말허자문 착대기가, 지계를 받취주는 착대기. 구시, 소구시. 구시 안에 있는 건 소밥. 겨울이 주는 거. 초 소 먹이는 초 모아 갖고는 물을 못 드가게 말로. 갖고 모아 놔. 그레 갖고는 덮어 갖고 비 안 들어가게, 안썩게. 그레 갖고 고걸 세워 두고 그러지. 여물은 집을 쌤어 갖고 주는 것이 여물이고, 이 풀얼 배 가지고 말로. 서 저장해 놓은 것을 여물이 아이지. 소밥이지. 쇠죽이지. 바가치. 소바가지. 쇠죽을 퍼주는 바가치기 땀시 소바 가지라고.

<테이프 14-B면>

말. 조랑마. 새끼마. 새끼마라도 허고 조랑마라도 허고. 조랑마란 거는 제 주도에서 나오는 거인디, 찍깐한 말. 고것이 조랑마. 송아지. 조랑마라고 그랬는디, 옛:날에는. 적:은 말이라고 말이여. 소:말. 뚜��:서(뛰-어서, 2음절인 듯함.) 가지. 때리면. 말 때리는 매체가 있당개, 매체. 따로 때리는. 이 나무에다가 요런 논매끼를 메 갖고, 요만:허게 메 갖고는 매가 있어. 고걸로 턱: 때리면 가서 야물게 맞거든. 매추리라고 있어. 매처리. 암캐, 수캐, 강아지. 야이, 쪽을 놈우 개야. 고양이. 암꼬양이, 수꾀양이, 그러지. 요건 앵:, 엹, 그레. 닥. 닥이 많:다. 잡아 먹지, 닥얼. 잡아 묵은다고. 닥한마리[다간마리] 잡아 오이라. 쌉아 주기도 허고 그레. 옛:날에는 참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마 ***(? 지켜바) 졌어, ***(? 키워져) 갖고. 토종댁이[토종때기] 집이서 기리는, 참: 맛이 있어. 시방은 천:부 양계장으로 **(? 해서) 맛이 없:는디, 참으로 기가 막히게[마키게] 맛이 있는 거이여. 암댁[암딱], 숨닭. 뻬아리. 닥털. 닥 키우는, 장데(닭장). 떡가리. 닥떡가리. 베실, 닥베실. 닥모시. 찍어 묵치. 쪘사 묵었다는 건 큰 것을 쪘께씩 때: 묵은 거이 쪊사 묵은 거. 작은 것을 막 집어 묵은 건 닥모시 막 묵은다, 그 소리지. 막 찍어 먹찌. 닥뚱. 덕 가리. 닥장. 닥알, 계란. 옛:날에는 닥알이라고 그랬지. 시방은 계란이라고 그리고. 노란창 있고, 흰창 있고 그러지. 노랑창, 흰창 그레. 계우. 음, 도야지[toyaji], 되아지[töaji]. 뒤아지[tüaji]마구라고 그레지, 뒤아지마구, 옛:날에는. 도야지마구. 뒤아지구시. 똘똘똘똘 그려지. 멧돼:지. 여시. 둔갑을 허지. 사람으로 둔갑을 현당개. 남자덜을 괴롭힌다고[괴로핀다고] 궁개 백년이 되면 요것이 여자로 벤하고 남자로 벤하고 벨것이로 다 벤헐 수가 있다고. 머이든지 벤할 수가 있다. 우리는 보덜 안 했고. 뿔다구[뿔따구] 요놈 짤라가지고 녹용으로 쓰는 그것인디, 그걸 몰르겄어. 노리허고는 다르당개. 노리는 산에 뛰어댕기면서 요것도 종내기가 노리종내기라. 노릿종내기여. 사슴이라고 현 것도 있고, 노리라 현 것도 있고 …… 사슴은 뿔다구 난 것을 보고 사슴이라고 현 것인디, 고것이 녹용에 속해가지고 있는 것 같애. 토끼, 토깨이. 산토끼, 집토끼. 이건 다:(무성모음) 묵어. 시뻘현 풀은 다 뜯어묵어. 그것도 묵고 저것도 묵고 다 뜯어묵은당개, 요건. 토끼집. 덧. 요거

댕기는 길에다 논다고(농-온다고). 토끼 댕기는 길에다가. 요것얼 덧얼, 토끼 잡으는 듯. 듯이라고 그러지. 고것얼 젤비(?) 놓고 몽메도 매달아 놔. 몽메를 매달아 노:먼은, 머이나면 철사[철싸]를 뚁그렁게(?) 헤 갖고 홀릉개로 헤 갖고 나무에다 딱 짬마다 두면 그 모르고 가다가 지내가면 탁 걸리서 쟁히[재피]** …… 몽메라고 그러지. 가다가 거식허면 홀끼 갖고 쟁히뿌는 거이지. 쌈가지. 쥐(ü). 박쥐. 날아다니는 건, 죄:깐허지. 죄:깐해. 날아댕기는 건 박쥐. 다람이. 두지기. 두지기. 구먹을(穴) 발로 뚫는당개[뜰룬당개]. 발로 허고 입으로 허고 구먹을 뚫고[뜰코] 댕기는 …… 땅속[땅쪽]으로. 두지기. 새. 쪽지. 요네이 쪽지에가 붙었어. 쪽지가 그것이 붙었다고, 지대:는(?, 長, 依) 거시기가. 긴 것이 붙었다고. 쪽지털, 풍지털. 똥구먹[똥꾸먹]에 나는 건 꽁지털, 쪽지에 난 건 쪽지털. 방다리. 독수리 걸은 거 풍네기체 말허자면. 매. 꿩 잡아 온 거. 방다리하고 매허고는 종내기가 틀리지. 이름이 달릉 …… 깐:치. 까마구. 아니, 똑 같은. 빼꾹새. 쪽국새라고 그래, 쪽국새. 옛:날이는 쪽꾹새라고 그랬어, 빼꾹새가 아니라.[아이라] 지금 그렇개 말이 틀려부렀지. 오리감마. 딱따구리센:감마. 요거이 딱따구리 새:고, 황:새. 요것이 논에다가 집얼 지어놓고 알도 까놓고 그런다고. 뜰북샌디.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지[아이지]. 옛:날에는 그 말이 아이고. 꿩. 요건 꿩이구마. 암꿩. 수꿩. 까토리라고 현 것은 없:고. 시방은 까토리라고 그러지. 나팔꽃도 피고, 벨 것도 다 피지, 꽃언. 꽃언 봄이 되면 많이[마:이] 피제. 꽃이어서 갖고 오지. 꽃 속에 그식 있어, 놀:현. 꽃 피는 속이어서 찍어(?) 낸다고. 꽃봉오리. 봉숭아 이파리. 해바래기. 때월나무. 때월이 아니라[아이라]. 우리는 요것얼 옛:날에 때월이라고 그랬단 말이여. 속 알래이 빼 갖고, 알래이를 빼 갖고 놀:헤이[노:레이] 익으문 고놈을 빼내뿔고, 여기따 넣고 너:먼 요룽기 놀리면 공기를 들어가갖고 소리가 나오 그랬다고, 요것이. 우리는 나 알:기로는 때월이라고 그랬는디. 때월. 적도 부치 묵고 그런다고. 매와꽃이 제일 먼저 피고, 살구꽃도 피고. 살구꽃을 보고 그런 거인가? 봄에는 막 여러가지가 현꺼번[헝꺼번]에 피여뽕깨, 모르 …… 산수유. 진달래도. 봄에는 일찍 현꺼번에 다 피여뽕깨 머라고 말을 헐 수가 있어야지. 몰:라.[bm] 여 그치는(近處) 나 그런거 본 것이 없:는디. 있어, 있기는. 고것이 이름이 머이리야? 들러붙은 거 있어. 산에도 가도 있고 밭도 가도 있고, 있어. 도독놈까시. 마:

마:도 뿌리지. 마:도 뿌리여. 넝쿨이 나가고 그러문 칙인가? 칙뿌리? 칙뿌리를 짤라서 쟁으로도 먹고, 차를 낀이서 먹고 술에다 당가서도 먹고. 위장빙 [위장뻥]에 좋다고 먹는 것이라. 칙. 넝쿨이 나가서 그식헌 건 칙이라고 있어. 몰르겄는디. 냉이. 요즘에도 냉이라 그리고 옛날이도 냉이라 그래지. 시장에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 쑥곁은 것도 있고 그레. 쑥이 좋:제. 쑥.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몰라, 이름을 다. 요것을 근디 나 이름을 몰르겄어[bm]. 산에 가면 있어. 산에도 가면 있고, 논두력가에도 가면 있고. 캐먼은 밑구멕이 마늘매요, 마늘처럼 생겼어. 달릉개. 빠뿌쟁이는 틀리지. 빠뿌쟁이는 종내기가 틀리지. 빠뿌제이는 뿌리를 캐다가? 쇠물팍이라고 허는 것을 글현가[그런가]? 고것을 *에서 캐 갖고 뿌리만 약을 해 먹고 그러거든. 밥반찬으로도 묵은다, 뿌리를? 쓴나물은 무지허게 쓰제. 이파리 곁은 거도 쓰고 겁:나게 써. 먹제, 먹기야. 고것이 입맛이 좋:다고 해서 젤귀(?) 먹어. 쓴나물은. 밥맛이 돌아오기 위해서. 꼬두배기. 꼬두배기라고. 고사리 비슷현디, 삐비. 고것이 풀에서 풀이파리 나오는디, 속에서 대가 올라와. 으렁을(幻) 때는 먹으면은 달콤현디, 고것을 벗게갖고 먹으면은 달콤현디, 오래되면 고것이 피여뿐다고. 오래되면 묵지를[bm] 못:해[모:데, bm, '오'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거의 '丁'처럼 들림]. 고것이 있어. 삐비라고. 풀에서 올라오는 종내기가 있다고. 딸기. 산딸기. 산딸기 종내기는 틀리지. 작:아. 그 자체가 틀린다고. 산딸기는 이 밑에서 벌어져 갖고 가운데서 뺄그레이 있는 거이고, 요것은 그것이 아니제[아이제]. 하우스 속에서 나오는 딸기. 종내기는 마찬 가지는디(발화실수), 틀리지. 산딸기하고는. 쪘:간해. 산딸기는. 크덜 않고. 산도토리[산또토리]. 깨굼이란 것은 더 작:지. 도토리매이 생긴 게 아니라 깨굼이란 건 은행[으냉]매이로 생겼어. 은행. 은행알[으냉알] 흐현[흐언] 거 있지. 고것매이로 생겼어. 깨굼이란 건. 그러니 그것이 닳치(異). 산포도. 멜:구, 멀구라는 것은 산에서 나는디. 산포도나 똑같으지. 멀구, 다:래. 산포두. 산따래도 있고. 멀:따고(불분명하게 들림)? 감:보다는 작:은디? 모계는 큰디, 모계는 큰 것이고. 종내기가 작:다. 감:보다 큰 것은 모:개가 듭:는디, 멀버. 곰: 곰:이라는 건, 야, 곰보고 얘기 했:네 …… 감처럼 생겼는디, 작:지, 작:기는. 할배이가(?). 멀버. 곰:, 곰: 아, 그걸 보고 얘기허구마. 명감이란 거는 산에서 나는 명감이 있어. 쪊:깐해. 넝쿨 나가 갖고 거기 열은 종내기가 있

당개. 미^느:감. 넝쿨에서 나가 갖고 열매가 여는 명감이란 거이 있어. 가시가 있지. 줄기에가 가시가 있지. 사과. 옛날에는 능금이라고 했고. 배. 독배. 깍아서 먹지. 배껍데. 배껍데이라고 그러고. 베들이 있어. 밤: 베들, 자도를 그리웠는 거인가? 복숭아. 홍시. 과:일. 과:실나무라 그랬지. 추자. 까먹은 거. 호두하고 추자하고는 달룽지. 호두란 건 쪘깐해 갖고 그식헌 거이 고. 추자는 커. 호두보담. 손에 들고 댕김서 또그락 또그락 허지. 추자라고 그러지. 그러지 않지. 호두는. 호두하고는 추자하고는 달룽지. 웬만한 사람 덜은 겨울에 양쪽 손에 움직기리고 거식헐라고 양쪽에다 들고댕김서 호두는 잘쪽한[잘쪼간] 기운이 있고, 추자는 뚱글뚱글 허지. 그거이 추자당개. 고거이 추자고 요거이 호두고. 호두가 약간 모양이 잘쪽한[잘쪼간] 도토리. 도토리나무지. 상수리가 도토리라. 지금 쪼 절 걸은 데 큰 나무가 있지. 작은 것은 산또토리라 허고. 도토리나무랑개. 나무뿌리. 베 낸 뚱커리. 옛날에는 뚱커리라고 그랬지. 뿌리. 나무는 뚱커리라고 허는디, 베뿔고 나머지기를 특별나는 이름이 없다고. 순. 나무순. 옆에서 걸어나는(長) 거. 가운데서 순 올라 오는 걸은 건 나무 자치(自體)고, 여그를 짤라 뿐먼은 중간에서 이룽기 나오는 것이 나무순. 가:지. 가:지년, 가:지는 옆에서 이룽게 원 낭구에서 순이 걸어나 갖고 고놈이 크면은 가:지가 되고. 어래서(幻) 걸어나는 건 순이라 그러고, 고놈이 크면은 가:지가 되고 그러지. 나무 가:지가 되고. 나무 줄기는 나무 자체에서 <끝>

<테이프 15-A면>

소나무 이파리. 갈키로 가져가서 긁어서 우리가 *** 때제. 뻣(분명하게 들리지 않음)이다가. 갈키나무라 혜 가지고. 갈키나무는 갈키로 긁어오기 땀시 갈키나무라고 한다고. 나무 밑에 가서 이파리가 떨어진 놈, 고놈을 가서 갈키로 긁어서 갖고. 먼 나무든지 그러제. 그렇게 나무 종내가가 틀레. 소나무 까리도 있고 도토리나무 까리도 있고. 도:치. 높운 산. 산꼭지. 제일 꼭지를 올라가야. 중간에 왔일 때, 산 중틀에 왔일 때, 중틀이라고 그러지. 우리 여그서는 중틀을 산 중간, 중간에 내려왔일 때 산 중틀에 왔다. 그릉게 얘기를 허지. 밑에 와서는. 묘: 총광짜리(?), 말허자면 죽우면은 늘:을 늑기

전에 산에 가서 이 차리(자리)를 파지. 늘: 들어가게, 늘: 들어가게 파 갖고 묘:슬 쓴다고. 까풀레기진다. 까풀덜 안헌[안언] 데. 은덕을 넘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식인가. 은덕, 은덕. 꼬불딱 꼬불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낭떠러진데, 시방은 베랑이라고 그러지. 일해야 혀. 벨 다른 말이 없어. 자갈. 독:자갈. 독:은 큰 걸 보고 독:이라고 그러고. 모래. 모새라고 그러지. 참모래가, 모래를 다시 체이(챙이)다 쳐가지고 나온 것을 참모래라고 그레. 흑. 흑. 흑이라고 그러지. 잉끼, 잉낀가? 시펄:해('ㅎ'이 있음). 바우에 그식하면 잉끼가 시퍼레 찌였다고 그러지. 밥때. 아침 묵고 정심 묵고 저녁 묵고. 식전? 해가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란 건 날이 새기 전에, 말허자면 배깥이[배까치] 맑아지기 전에. 요것을 얘기하는 거이라, 동 트고 동 안 트고. 새복이란 것은, 그 앞에 말허자면 통 트기 전에를 새복이라고 하지. 낮이 있지. 해거름판, 해거름판이라고 그러지. 빨그러게. 별: 은하수[으나수]. 내일, 모:레, 꾸페, 어제, 아래란 건 밑이를 보고 아래라고 어제, 야:래, 그저께. 어치계 지내느냐? 요즘: 요즘:엔 어트계 지내는가? 설달그믐날. 설:이라고 헌 것이 아니라. 말허자문 머심살고 간 사람덜이 그날을 마감을 헌 거이지. 셰배. 이슬비. 가랑비. 가랑비가 말허자면 비가 이슬비에 조금 강하게 온 거. 쏘내기. 번개. 천동. 베락. 느리, 느리온다고 그러지. 흥수, 흥수났단 거. 가을, 겨울. 가실. 겨울도[겨울또] 맞고. 가을일[가을릴], 가실일[가실릴]. 진태. 소소리바람. 문지. 고것도 문지. 아르랑이, 아지랭이, 봄에 피는 거, 아지랑이. 안:약, 구석. 오른손에, 손에. 손 육에. 지붕 꼭지에 올라가 바라. 웃마을, 가운데말:이 있고 우로 올렸다. 밑이로 내렸다. 중간으로 내례라. 아래. 꾸부린다. 꾸부려. 앞, 뒤, 앞으로 꾸부렀지. 옆은 옆이라 그러지. 옆에 있거라. 절에 있으라 소리도 되고. 돌아가는 길. 집 모튀이를 돌아간다. 갈라, 갈라서 노눈다. 목씨도 되고. 목씨. 네 목씨. 너 으디('으'가 매우 낮음.) 가느냐? 재피먹는다. 니가 좀 땎아라. 땎은다고 그러지. 때킨다그나 따킨다그나 다 마찬가지라. 씨길(使) 적에 너 빨래 좀 헤라. 부탁을 헤라. 빨래를 만들아준다고? 모자를 씌어준다. 짐을 실린다. 차에 실어라. 올레라(使上). 폐지어서 맹긴다고, 폐로. 때가 많다고. 발음이 틀리지. 글. 토, 캐, 결, 수, 모 그러지. 귀. 느이 간다. 다섯이 간다. 왔옹개 혜 쥐야 할 일이제. 회이. 으견을 종합해서, 으논한다고 그러지. 줄기. 줄이 있는 거. 옷에[오셰] 꽃이 있으면 옷에 꽃이 있다

그리고, 웃에 거 그림이 있다 그리제. 무누가 있으면 무누가 있다고 그리고. 왕. 과:부. 건:투. 니가 재수가 없잉개 그런 거이다. 일. 일: 발음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야불지. 요거이 일이지, 일이고, 내가 꽤이를 가지고 일:을 헐 때는 일:이다. 일허고 이허고 많지. 글자[짜] 발음이 틀린가? 뛴다. 꾸부린다. 흰다고도 허고. 되박. 종홀(?) 허지. 종. 쌀얼 되박에다 풀 때, 각기를 하나로 헌다든가, 고봉으로 헌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종홀(?) 해서 헌다. 매짜리, 매초리, 매초리지. 매를 때린다고 해서 매초리. 벌을 받지. 벌:. 밤. 밤: 밤:이지. 눈. 눈:이지. 눈:. 눈(雪, 단음). 자기다리. 즈그가 잘 했다고. 연상이라고 허기도 허고. 저라고 그러지. 누구덜은. 인나그라. 자리를 좀 비어도라. 니가 좀 인나그라. 자네 좀 인나소, 인나서 가소. 앉으시씨요. 놀로 가자. 가세. 가십시오. 잘 큰다. 잘 캤네. 잘 허십니다. 잘 큅니다. 야, 오냐 안 오냐? 오니? 그런 수도 있지. 어이, 온가, 안 온가?

<테이프 15-B면>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는가? 어디를 가실랍니까? 장날이냐? 장날인가? 너 어디 갈래? 안 갈래? 안 갈란다. 못 갈란다. 비가 안 오드래도 안 간다. 비가 오면은 안 가고, 안 오면은 가자. (너무 바쁘신데) 글안해. 미안해서 으쭈까? <끝>

<테이프 16-A면>

그 양반은 우리보다도 나이는 많지만, 더 잘 알:고 그식힌다. 낚시밥[낙씨밥]([낙씨밥]) 나오는데, 이는 질문자의 발음에 이끌린 듯하고, [낙씨밥]이 한번 더 나옴). 고기를 낚울라고. 붕어 그시기구마, 말허자면. 새로 허먼 깃:이라고 헌디, 새는 깃:이라고 헌디. 미꾸라지, 붕어, 뱀:장어. 그런 것이 썩: 없어져 뿐렀어. 오염이 그식해서 그런가, 피리곁은 것은 물이 그식허먼 또 올라오고 그러지. 송사리. 여:는 그런 고기가 없었어. 송사리떼. 새비. 왕새우. 옛:날에는 오엠이 안 되고 이런디, 새우, 물에 가서 아침에 출: 직에 [찌게] 가서 뜨면은, 새우는 반대로 떠서 잡아. 안으로 새우가 들와서. 새우,

새비]. 지금은 새우 근디, 새비, 새비 잡으려 오라기 …… 여그는 없:는디, 짹: 짹 순:창 쪽으로 가면 …… 모:구. 모:기. 모:기 새끼. 깔따구. 깔:따구 걸은 것이 발동[발뚱]을 헤. 거:마리. 시방은 거:머리 그런디, 그 때는 거:마리 그 레지. 거:무 거시기는 달은디(異, [tal^əndi], ‘달르-’인 듯한데, ‘근근’의 발음은 아님). 벌컥지덜. 벌컥지. 꿈틀기려. 지네? 지네 말고 방에서. 고건 색깔도 지네보다 달라. 더 질에(濃). 짹은데. 야. 지네가 이魯게 독현[도컨] 거시 기구나. 옛:날에 지네가 독을 피워갖고 사:람을 죄이고 …… 아, 대나무를 이魯게 뻤:디, 대나무를 이魯게 딱 뻤:는디, 지네가 딱 반동가리가 났어. 내가 처음에 짤를 직에는 몰르고 짤랐는디, 봉개 고것이 그 대나무 구역을 내고 들어갔더라고. 대나무가 이거 겁나게 야문 나문디. 보통이 아니여. 독을 피워서 죄이게 허고 …… 지네가 독기가 있는 거이라. 고것은 몸에 형태도 작:고, 색깔도 짙허거[지터거] 나오고. 지네 비스롬 혀이 생짓잉개, 그 종류에는 안 속현디 쪼께 달라. 그거이 달라. 지네곁은 것은 우리가 약도 해 묵고 그러니까 고것을 알:고 그러지만. 지네를 말라서 하. 말라서. 대례서도 (다리-) 먹지만, 가리(粉)로, 말허자먼 쟁, 징미를 헤. 갈아서 꿔, 구워 가지고 정미를 헤서. 몸에 여러간대로 많이 다:(?), 그 지네 그시기는.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땅개빈미여. 그렇게 생짓구마. 나락밭에 그식해서 큰 땅개비. 날개가 커. 땅개빈미여, 땅개비. 풀, 이슬을, 풀에서 사는 거시기여. 메때기, 메때기는 나락 클 적에 나락 잎삭에서만 뜯어 묵고 사는 걸 메때기라 그리고, 땅개비는 땅개비도 나락밭에도 들어가지만, 풀, 풀, 인저 논두럭곁은 테, 아주 귀모(規模)가 커. 메때기는 보:약재라고. 시금자 농약을 헤뽕개. 상당히 커, 잘쪽해:[잘쪼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꿔:서 먹으면 그래도 한 입감이[한닙까미] 도ㅑ:. 꿔, 꿔서 먹어. 메떼기는, 논에서 인자 큰 것인디, 그때 농약을 안허고 헐 직에는 한 말만 잡아서 그석하면 보:약 맷 재 풍: 거보다('목-는') 낫:다는 거여. 요즘은 메때기가 나와. 일손이 바뽕깨 논에다 농약을 안허고 그러니까, 가을철에 우리가 추수헐 무렵 보문, 메때기가 많이[마:이] 있드마. 부른 이름은 모른디, 요거이 암컷은 커고 수컷은 때때기라고 현가? 아조, 아조: 작아. 길이는 지댄:현디, 때때기라고 그레. 요 형태로 생짓는디, 암컷은 몸 거시기가 두툼:현디, 고것은 얇포롬:헤이 가노롬:헤이 요런 것이, 요 형태로 생짓어. 수컷은 달라. 그거, 저 그시긴감마보네(구

성?, 사마귀 그림을 보여주니까 알아보면서 하는 말). 또 밤에 머 연:치, 연: 친가, 귀뚜래미도 있고, 연:치, 원:치도 있어. 연:치가 요통게 안 생겼어. 아까 땅개빈미(～[땅개빔미]) 그릉게 생갔는디, 연:치는 앞에 …… 빼쭉히([빼 쭉기])는 절대 아님. [빼쭉히] 정도로, ‘ㄱ’와 ‘ㅎ’의 모두 있는데, 유기음으로 축약되지도 않았음.) 있어 갖고, 상당히 예:민허게 그리야 갖고, 고거 비스 륨:히 그릉기 생갔구마는. 눈구먹[눈꾸먹]이 크못해:니[크무데:니] …… 사: 마귀. 이빨이 거석허거든. 막 뜯어먹어, 그거를. 뜯어머:면 쟁찮다, 그려 가지고 옛:날에는 으악(醫學?) 거시기도 없:고 순: 요런 …… 사:마귀, 사:마귀는 상당이 귀모(規模)가 커. 눈구둑이 큰 거 봉깨 그건가 바. 얼굴이가 머점: 났네, 사마구 났네, 사마구가 어디가 있네. 고걸 뜯어멕이더*(?) 사:마구 락허드마[사:마구라구드마], 그냥 사:마구. 먼: 벌레가 이러냐? 소금장시는 뒤에다가, 막 등어리에다가 업고 냉기고. 응, 물에 떠 냉게. 물방개[물방개]. 개똥벌레. 입망이라고. 지금은 보리를 안 갈고 어찌고 그리지만, 한쪽으론 보리를 갈고 한쪽으론 보리를 안 갈았으. 그러면 요리 쟁기질을 히 나가면 고놈 뜯어묵을라고 쟁기질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막을, 셰: 말허자면, 혀가 나오고 입을 거식해:야 …… 몰꼬 감서도 이레도 테제. 풀 뜯어묵우나리라고 따라오덜 안 형개. 쟁기질을 험서도 입망. 새끼를 꽈서 맨드는 것이 있어. 뿔따구에 걸어서 딱 짹매. 송아지조차 따리고(隨). 쟁기질험서도 그래. 요럴 때도 써도 돼. 길 가에가 풀이 있옹께로 말허면 내가 먹을 것이 있잉개 고걸 뜯어먹을라고제, 사람이 가잔다고 따라가덜 안 허거등. 그런 데 냉임서도 망:을 써울 수가 있지. 고놈 풀 뜯어묵음 빨리 못가. 쟁이질 흄서도 망:을 써어. 망:을 써어갖고 쟁이질을 헤야 …… 버릇이 안 사난(사납-) 것은 …… 작두. 짤리는(자르-) 기구. 풀언, 하:절에 풀을 그석허고, 겨울에는 여물. 여물은 뭐냐면은 집, 나락 홀터 …… 집허고 풀 말른 것하고 섞어서 집, 집만 허면은 너무나 소죽이 억세니까, 고것을 끓인 것. 돼지 키우면 꾸중물 …… 텁텁헌 거 부엌에 나온 거, 고런 거허고, 방아 찌면 부산물 제 겉은 거 나오잖아.[나오자내] 고놈을 여물허고 고놈허고 물허고 적당해 부서서 끓은 것이 소죽. 여물꽝. 뼈가리, 덕가리. 장테. (할머니 발화 : 가되서, [지] 밥을 으:서 먹었는가 모르겄어. 자네들보다[자네들쁘다]. 덕석. 어리서부터(幻). 망태. 끄레이. 쟁이. 까불라서. 지금은 도정공장이 좋:게 되어 갖고 저것이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징미기가 안 종끼로. 혼을 빼가룬다. 끈을 짬멘 거? 몽메라고 그러지. 몽메. 지금은 덧을 논다고(놓-). 쇠로. 토끼도 요거이 잡은 덧이 있어. 나무로 쪽쪽 영꺼. 영꺼갖고 딱 받차나. 받차놓고 여그다 토끼가 좋아한 것, 배추잎삭을 딱 놔 뒤. 그러면 고놈을 잡아땡기면 요네이 배추잎삭에다 ** 그 덧예가 꽉 헤 갖고는, 그 덧 있는 데가 큰 독:이 있어갖고 아니, 장치힐 직에[장치힐치계] 그릉기 허지. 몽메란 것은, 토끼가 잘 왕래하는, 그 길목에다가 끈을 해서 착 지내가다보면 걸리는 수가 있지. 노루도 그석허고, 걸리면 된 거이라. 덧도 있고. 다람쥐. 뒤지기. 요거이 혈암에 좋:고. 이 지구상에서 젤:로 내가 강허다 헌 거이라, 요것이. 바람허고, 태풍허고, 은진미의그, 은진미록을 암만 쎄게 태풍이 그식허고 *해도 안 넘어간디, 두디쥐가 그 은진미록 밑이를 구실려서 왔다갔다 그러면 넘어가 분다. 땅 밑얼[미철] 구실려서 미태를 구실려부면 넘어간다. 두더지. 매. 매:는 귀모가 작:고, 매:는 조께 귀모가 작아. 독수리가 있고. 부리가 강허이 생겼어. 거진 다 커서. 방:다리는 날개가 조께 크지. 스:스이 움직기리지. 방:다리 춤 춘다고. 뜰베이. 뜰베이. 뜰베이. 나라밭에서. 물에서 맹기지만. 딱다구리. 암꿩, 수꿩. 벼슬이 빨글허지[빨그러지], 수컷은. 때왈. 시방 저것도 꽃이 완전히 싹: , 시방 저거이 박디(?)꽃나무라곤다. 꽃이 완전히 학: 꽃만 싹 피고, 저거이 이울지면 꽃이 피드만. 꽃이 먼저 피고, 저거도 꽃만 싹 피고는 시방 입이 피잖아. 진두찰. 도동놈까시. 근디 요 나무는 진 두찰이라고(할머니). 도동놈까시는, 요것이 사램 지내가먼 웃이가 늘어붙어 불어. 도둑질을 허러 맹기다가 보면, 사:람은 질로 맹인디, 도둑질 혈랑개 그런 질로 맹게로, 도동놈까시라. 도동놈까시. 나팔꽃이구마. 넝쿨.

<테이프 16-B면>

최. 칙꽃이여. 칙넝쿨. 나팔꽃나무[나파꼰나무]도 감:꼬 올라가고. 댐뱅이 넝쿨도 있고. 댐뱅이 넝쿨이라고 고것은 사람이 먹든 안 허지만, 막 감:꼬 올라가. 말이 있어, 댐뱅이 넝쿨에 걸려서, (댐뱅이넝쿨이라는 것은) 거 가 노소롬:허이 실마이, 실마이나 헤. 댐뱅이 넝쿨에 걸려서 떨어졌다고 그런 그식이가 있어. 실매이 얄포롬:현디, 댐뱅이넝쿨 고것도 있고. 또 저, 약채에

들어간 거, 그 먼 넝쿨이라 그레? 잉덕넝쿨. 약채에 들어가. 땜뱅넝쿨하고 잉덕넝쿨하고 틀린 …… 씬나물이여. 냉이. 나숭개. 달착지근:해. 뿌리를, 말 허자면 입사기** 뿌리를 힙어묵어. 뿌리가 이것이 겁나게 단맛이 나. 나숭개. 씬놈을 싸랑부리. 싸랑부리가 맞아. 겁:나게 써. 식욕을 냉게. 싸랑부리, 씬너물 한 종류여. 싸랑부리도 내:나 마찬가지 …… (맛이) 쟁개, 본래 씬 맛이 나. 겁나게 쓰 뿌리가 크면은 뿌리가 쟁개로 뿌리를 떼내뿌고 입삭만 그식해서 먹고 그레. (꼬두배기라는 말을 질문자가 하였음.) 꼬두배기는 그 룽게 안 생겼는디. 꼬두뱅이는 고것이 입삭이 상추입삭매이 이魯게 생기갖고, 고것도 쓴 맛이 나. 꼬돌배기[꼬돌배기]라고 그런디, 엔,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 그식해서 그걸 꼬돌뱅이라고 고룽게 알아 아니, 옛:날에는 어트게 불렀는가 몰라. 꼬돌배기라고 그레. 진짜 꼬돌배기고. 꼬사리. 끊어다가. 씬너물. 꼬들배기는 입삭이, 입색이가 만드롬: 해. 때왈. 딸기. 때왈은, 본:래 산 때왈이 있고. 딸기하고 때왈하고는 완전히 틀래. 맛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그레. 요것은 딸기여. 요건 빼축허지만, 빼축헌 거이 없어. …… 씨가 하나씩 들었어. 여가 씨가 하나씩 다 들었어. 때왈. 큰때왈, 작은때왈. 산질 [산찔]이나 논두력질 그런 데 때왈나무 있는 데 …… 부못님(父母). 산질때. 눈이 아풀 직에 때왈 그걸 물을 눈에다 너. 뱜때왈. 비암때왈. 많이[마이]나. 비암때왈, 고것을 ****(?), 딸기미언) 물이 많이 나. 눈 아풀 직에 비암 때왈을 눈에다 짜 너. 비암때왈. 막때왈. 입사기가 가시가 있어. 자두. 빨글 헌 거, 고런 거? 앵두. 깨금도 있어. 까서 먹으면 꼬소롬: 해, 그것이. 꼬소롬: 형개 깨금이라고 허그든. 그 입삭도 깨금나무라고 허거든. 나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배우이(직접 질문자에게 하는 말). 멜:구. 고것도 넝쿨 나가. 잔잔해. 멜:구. 익어야 그석허지. 멜:구나무라 그러지. 포도맹이여 (할머니말). 콩만썩 해. 큰 놈이 콩만썩 허고 …… 아니면 뜯(팻). 또, 맹:감도 있어. 명:감은 색깔이 빨그레 해. 고건 더 커. 명:감은 멸:구보다는 아조커. 콩보다도 크고. 똥고름: 해. 익으면 빨글헌 색깔이 나. 넝쿨로, 겁나게 무거(重). 맹:감나무. 멜:구하고 명:감나무하고 멜:구는 묵는디, 맹:감도 묵기는 묵어. 근디 벨 맛이 없어. 겁더기만 있고. 맹:감이 아니라, 멜:구가 좋고. 뜰:감, 뜰:감. 콤, 콤. 콤:. 콤:감나무. 거그다가[거그따가] 거시기를 해. 고것이 원채 많이 여:니까, 고놈을 접촉을 씨기서 …… 콤:은 원채 숫자가 많이

열:어. 짤라서 적(접)을 붙여. 고것은 몰르겄구만.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할머니가 말하시길) 정, 정금인감마? (할아버지) 정금. 정금나무. 술에다가 많아[마:니] 당파서 묵고. 정:금이라고 그런디, 익으면 새콤허지. 새카메 쳐. 정금나무라고 그레. 팟, 팟마이나 허까? 콩보다는 작:야. 팟마이나 해. 지금은 술에다가도 많이[마:이] 당파서 먹어. 많아. 따먹고 그랬는디, 지금은 한 그석하고, 술을 거그다개[거그따개] 당파서 과:실. 과:실류. 껌질. 껌덕. 나무껍덕. 나무는 지지껍덕. 달걀껍덕([다갈껍떡]인지 분명치 않음, 'ㄹ'이 'ㄱ' 앞에서 분명히 발음되지는 않음). 달걀껍덕. 지금이니까 계랄 콩깍지. 메:물도 메물껍덕. 떨벼. 밤: 비닐을 벗기야지. 글안험[그란님] 뜹찝허거든. 비닐, 밤:비닐. 자두. 차두란 견 시방 유:자. 자두. 탱자. 자:두. 자두나무, 탱자나무. 추자. 지금은 호도라고 헌디, 호도하고 탱자하고 틀레. 옛날에는 추자, 지금은 호두. 지금은 호도라고 추자, 추자나무. 상수리, 상수리는 큰 도토리, 산또토리, 고결 생으로 나무에서 여:니까, 떡갈나무 거그서도 산또토리라고, 도토리가 나와. 산또토리라 헌 것이 열어. (할머니 : 멀라 적어가요?) 뿌리, 뿌렁구. 솔뿌렁구가 여까정 뺄쳤네. 솔뿌랑구, 뿌랑구가. 뿌랑구. 뚱컬. 뚱커지. 솔나무뚱컬, 뚱커지. 나락폭시, 나락폭시. 폭시. 나락포기가 좋:다. 나락폭시가 좋:다. 나락포기가 안 갈래 갖고 쟁기로 안 갈래 갖고 안 좋:다. 나락포기를 또 같아야 할 거 아이요? 자랄 직에도 나락포기가 참 좋:다 나락폭시는 틀리지. 원순. 원줄기라고 그러고 그러지. 갈키. (할머니 : 가릇나무) 지금은 뺄감[땔감]이라 그런디, 소나무 입삭만 떨어졌으면 입삭만 긁웅개 가래나무. 인제 가래나무가 머이냐면, 솔나무에 대해서 거이 아니래[아이라] 여러가지로 분산돼서 가래된 놈을 긁어 모은디야(?) 그래서 가래나무 그렁갑씨. 갈키가 긁어 모아. 가래나무. 산태나무, 산태밥. 가래나무는 존: 나무여, 뺄감으로 헤서는. 젤:로 높은 봉, 상봉. 산미루를 탔다. 중틀이니, 평:지, 뾰뚱, 메뚱. 뾰뚱. 뾰:뚱. 말허자면 야차리(?)가 그냥, 야찬 산. 은덕. 은덕을. 상당히 까푸라진다. 너무 까풀다. 산울림. 작:은 것은 자갈. 독은 독인디, 독은 독종률디, 왕바우. 봉근 거, 좀 몽글 쳐. 물이 죽 흘러서 거친 놈은 속으로 드가고 봉근 놈만 위에 나온 것 이 있제. 흑이지만, 모래, 모래. 요것은 흑이여, 흑, 황토흑이고. 차진 기가 흘러가쁠고, 요것은 모래. 요것은 모래고 그때는 모새. 잉끼. 잉끼가

쳤다고 아침, 정심, 저녁. 조반, 아침밥[아침빠]. 아저밥. 새벽, 새복, 새복. 새복부터서 멋:을 허까? 새복밥을 묵고 갔다고. 해거름판에 순산을. 해질 무렵에 저녁거름. 어둠거름[어둠꺼름], 초저녁거름. 별: 북두칠성. 은하수[은하수]. 태양하고 그식하고 가래져 갖고, 옛날에는 어저께, 니열, 지금은 내일 그런디. 니열, 모:래, 끄페, 끄끄페. 어저께, 그저께, 그그저께. 삼일 앞에 얘기한 거이지. 그끄페. <끝>

<테이프 17-A면>

느레, 느레라고 그레. 뜻밖에 기온이 하늘에서 변동되어 가지고 그거 땨시 농작물 피해 많이. 콩알마썩 막 떨어져 갖고 저 우에서 막 거식해갖고 밑에는 따순디, 담배 걸은 건 입삭이 구멍이 빙빙 뚫어져뿔고, 느레라고. 느레. 책 우에 있다. 책 우에 손이 있다. 손 우에 책이 있다. 손 밑이가 책이 있지. 밑. 손 밑이 책이 있으니까. 등장밑이 어둡다. 읊는(업-) 얘기 삼년 쟁는다. 뒷댕이다 업어 놓고. 똑 같이 짖았잉개(밟-). 누가 그 가사질을 했냐? 고자질을 했냐? 누가 있느냐? 누구나? 누구시요? 지(제) 뺨을 쳐. 지 뺨을 치고 있어. 서로 지:가 잘 났다고, 지:가 잘 했다고. 두 놈이 똑 같으다고 그러고 면: 일을 막 써:대써 허나?(서둘러 하다) (소문이) 아주. 고분고분 혜라. 잘 혜라. 차분차분. 야물게 치우라고 그러지. 야물게. 깨:끗이. 후딱 와라. 벨라도 쉽게 끝났다. 내 시계가 틀린가? 정확힌디? 허첫병 들었다고 그려. 허첫병. 티. (아이고, 오만 거 다: 시기네, 인자. 시간이 시방 다섯시가 다 뒤야 가.) 안경테. 테. 텃줄. 쥐, 쥐. 생쥐. 뿌리수티. 쇠, 쇠라고 안하고. 낫이나 도:치, 고련 걸 보고 세라고 그리고. 꿀. 꿀을 따와. 별:이 수꽃하고 암꽃하고 수정을 씌기고, 그 분갈이[분갈이]를 혜서. 꿀을 따. <끝>

<테이프 17-B면>

없음.

고전문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조편성 및 답사지역

고전문학반은 민병수 선생님,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1999년 4월 28일(수)부터 1999년 5월 1일(토)까지 3박 4일 동안 인천 광역시 강화군 일대에서 구비문학 및 문현 자료를 조사·채록하고, 문화 유적을 답사하였다. 조 편성 및 조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현반

민병수선생님, 김은정, 구본현(박사과정), 류하영, 이은주(석사과정)

구비문학반

1조 : 서대석선생님, 이민희(박사과정), 곽지윤, 엄윤주(석사과정), 서보영
(학사과정)

2조 : 류준경, 심우장, 서정민(박사과정), 천혜영(석사과정), 김동욱(학사
과정)

3조 : 장유정(박사과정), 나수호, 송재연(석사과정), 이윤정, 이영민(학사
과정)

4조 : 박희병선생님, 김아리, 정길수(박사과정), 서우종, 김하라, 박경남,
김수진(석사과정)

5조 : 정진희(박사과정), 박이정, 조성진(석사과정), 안준호(학사과정)

2. 조사 지역

1조 : 강화읍, 송해면

2조 : 천안, 수원 및 강화군 일대

3조 : 양사면, 교동면, 하점면

4조 :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5조 : 화도면, 길상면

3. 조별 활동 및 자체 평가회

국어국문학과 정기 학술 담사 고전문학반은 문현반과 구비문학반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문현반은 민병수 선생님, 구비문학반은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1999년 4월 28일(수요일)에서 1999년 5월 1일(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인천직할시 강화군 일대에서 구비문학 및 문현 자료를 조사·채록하고,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구비문학반은 4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신촌에서 집결하여, 조별로 출발, 강화도착후 바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1조는 서대석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등 모두 5명의 조원이 강화읍, 송해면 일대의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28일에는 강화읍 강화노인정에서 무속인과 노인들을 만나서 무속인의 내력과 설화 13편을 채록하였고, 29일에는 꽃창굿 보유자인 정정애씨를 만나, 굿에 관한 이야기를 채록하였으며, 또 노인정에서 10여편의 민요를 채록하고, 3조와 함께 석모도에 들어가 보문사를 답사하였다. 30일에는 광성보를 답사한 후, 마니산을 등반하고, 집결지인 전등사 밑 숙소에 도착하였다.

2조는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김아리, 박경남, 정길수, 서우종, 김하라, 김수진 등 7명의 조원이 경기도 천안시, 수원시와 강화군 일대를 답사하였다. 28일에는 천안 홍대용 생가, 묘소 및 시비를 답사하였고, 29일에는 수원 융릉, 건릉, 용주사 등을 답사한 후, 강화로 들어왔다. 30일에는 이규보 묘소 등을 답사한 후, 마니산 등산을 한 후, 집결지인 전등사에 도착하였다.

3조는 류준경을 조장으로 하여 심우장, 서정민, 천혜영, 김동욱 등 5명의

조원이 양사면, 교동면, 하점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28일에는 교동면에서 인간문화재인 이창호씨에게 서사민요인 범벅타령과 기능요인 모내기, 모심기, 상여소리 등 20편 가량의 민요을 채록하였고, 29일에는 양사면에서, 김진섭, 김귀남씨 등에게 신선바위 등 10여편의 설화를 채록하였으며, 오후에는 불은면에 군수를 지낸 구씨 댁을 방문하여 한적을 열람한 후, 저녁에 1조와 결합하여 석모도로 들어가 보문사를 관람하고 30일에는 광성보, 마니산을 들른 후,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4조는 장유정을 조장으로 하여 송재연, 이윤정, 이영민, 나수호 등 5명의 조원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28일에는 양도면에서 황인범, 이상이씨 등에게 산염불, 강화도령 이야기 등 민요 4편과 설화 2편을 채록 조사하였고, 29일에는 삼산면에서 고전희씨에게 보문사 관련 설화 2편을, 강화읍에서 한춘수씨에게 축원덕담 외 민요 3편을 채록하였다. 30일에는 마니산 등반을 하고, 전등사 밑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5조는 정진희를 조장으로 하여 박이정, 조성진, 안준호 등 4명의 조원이 화도면, 길상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28일에는 먼저 석모도에 들어가 보문사를 답사하고, 화도면에서 홍왕리 산신제 등의 유래담 4편을 채록하고, 29일에는 마니산 등산 후, 이건창 생가를 답사하고 화도면에서 신의하 씨 등에게 설화 3편을 채록하였다. 30일에는 길상면에서 병인양요 관련 설화를 채록한 후, 전등사와 삼랑성, 정족산 사고, 하곡, 명미당의 묘를 탐방한 후 전체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문헌반은 민병수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김은정, 구본현, 류하영, 이은주 등 5명의 조원이 김포일대와 강화도 일대를 답사하였다. 29일에는 김포의 정릉과 우저서원 등을 답사하고, 저녁에 강화에 들어와 영재 이건창과 하곡 정제두의 묘를 답사하였다. 30일에는 정수사와 이건창 생가를 답사한 후, 마니산을 등산한 후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조별 활동을 마치고 4월 30일 오후에 모두 마니산 밑에 모여 마니산 등산을 한 후, 집결지인 전등사 밑 숙소에 모여 민병수 선생님, 이상택 선생님, 김병국 선생님,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을 모시고 고전문학반 답사 활동에 대한 평가회와 저녁 식사 및 뒤풀이 모임을 가졌다. 다음 날 5월 1일 아침 식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강화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고전문학반 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비문학자료의 조사 방법과 요령을 체득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문헌과 설화, 민요 등을 열람·조사·채록할 수 있었다. 특히 강화는 구비문학 자료 외에 많은 문화 유적이 전하고 있어, 실제 답사를 통해 책이 아닌 몸으로 많은 것을 체득할 수 있었다.

자료의 조사, 채록 못지 않게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고전문학반은 선생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사이에 더욱더 긴밀하고 돈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전문학반 답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와, 격려의 말씀과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태, 김병국 선생님, 그리고 박종성, 김남기, 김동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적은 활동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조사 채록 자료

달맞이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채록자: 그 저기 금년에 뭐 비가 올지 안올지 그런 거 뭐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 ……?) 우리 지금 사람들이 무슨 쫌생이 뭐. (웃음) 그 전에 나가자라면서 봇텀두 에 정월 읍력, 정월 보름날이면 달 뜨는 걸 봐요 달 뜨는 걸. 그 때는 달 뜨는 것 두 아주 둉네 전체가 나와서 달 뜨는 걸 봐요. 그 왜 그랬나? 그리구 달맞이현다구 해서 짚을 요만큼씩씩 묶어가지구 거기다 달이 떠올라 오르만 불을 붙여 놓구 불들구 달맞이 한다구 절을 하구 그냥. (채록자: 헷불요?) 네. 그러니까 그 헷불이, 이, 솜방맹이를 넣구 꾸려져 가치구 철사를 감아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짚에다가 곡초, 곡초를 요로쿠 손목마냥 이러케 둉그렇게 말아서 쥐구요 끝에다 불을 붙이고 그걸 들구 그

냥 아이들은 전체가 다 나와서 그거 불들구 절하는 거예요 달을 보구. (채록자: 그게 벗짚이었어요? 제보자: 그럼요. 채록자: 벗짚으로 하셨어요? 제보자: 네. 채록자: 깻짚 아니구요? 제보자: 아니, 인제 깻, 그 동네마다 이 여기 이 강화쪽은 깻짚으로 안해. 다 벗짚이지. 예. 채록자: (청취불능)에서는 참깻짚으로 그걸로 나이 수대로 묶어 가지고. 채록자: 근데 여기서는)(풍습에 대해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어렸을 때 일이라고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채록자: 절을 했거든요. 제보자: 그러면 나가서 그 달이 달이 고 해마다 요 봉우리에서 금년에 요봉우리에서 떴 달이면 그 다음 해에서도 요 봉우리에서 뜨는 거냐 허면은 천만에. 틀려서 뜨거든. 채록자: 다른 데로 떠오른 단 말이죠? 제보자: 네. 그래서. 채록자: 음력 정월 대보름. 제보자: 네, 그래서 노친네들이 아 올해는 풍년들겼다 달이 참 잘 떴다 어쨌다 그래두 우린 그거를 (웃음) 말만 들었지 달이 어디서 뜨면 풍년들고 허는 걸 몰르지요. 그 인제 할아버지들이 아 금년에 달이 참 잘 떴다 그러구 그냥 으 풍년들갔 다구 그러시기만 했지 그래 그 달 뜨는 걸 제일 먼저 보만 이 인제 총각 보면은 총각이 아 너 장개가졌다 뭐 아 너 아들 낳겼다 인제 별소리가 다 많았더랬어요. 그땐. 근데 지금은 누가 뭐 달 귀경이나 해요? 뭐 보라 나가지도 않는 걸. 채록자: 저기 뜨는 봉우리에 따라서 밥봉, 죽봉, 떡봉 뭐 그런 말 짓진 않아요? 인제 풍년이 들어 떡먹겠다 그럴 적에 뜨는 봉우리를 떡봉이라 그러구 흉년이 들어서 죽먹는 데는 또 죽봉이라 그러구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 제보자: 그렇겠지요. 근데 저 나가 인제 보기애 듣기는 그런 건 그 할아버지들이 그러지 않구 아이구 금년에 달이 잘 떠서 풍년들갔어 어찌 이러시는 말씀만 들었지 허시는 것만 들었지 뭐 떡봉이니 죽봉이니 그런 거는 몰랐죠 뭐 근데 이제 뭐 내가 그때 어려서 그 말구선 지나가구서 부팀은 그냥 아주 달이구 뭐구 다 없어진 거예요 빨 것도 없구 누가 근데 지금도 촌에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꼭 보름날이면 그 냥반들은 나가서 보지. 채록자: 바닷물 가지고 뭐 알아보는 방법은 없었나요? 제보자: 어 뭐를. 몰라요 그건. 채록자: 아니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건지 그런 것들 알아보는 조짐이 없었어요? 뭐 그 색깔 보구선 비가 많이 올텐지. 그런거 뭐. 제보자: 그 때 그 냥반들 말씀만 들었지 우리는 그런 거를 몰르지.

난 여태꺼정이래두 그러구 나서 그거이가 거이가 계속 내려왔으만은 오 달이 무슨 색깔인지 뭐 어떻대는 걸 그땐 듣기만 했지 으휴 언. 이 놈의 달이 해마다 거기서 뜨갔지 으이 딴 테서 뜨나 허구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꼬해마다 올해 요기서 떴으믄 내년에는 요 요 또 비슷허게 뜨는 자리가 있구 그 그렇다 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두. 거기서 만날 거 동쪽에서 고기서 뜨갔지 허는 생각이지. 그래 그 노친네들이 아 금년에 쳐져 떴어 뭐 돈아 떴어 그리신 말씀만 들었지. 우리는 몰르지 거 돌아뜨는 거이 뭔지, 쳐져 뜨는 거이 뭔지. 채록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보자: 글쎄 나이는 많이 먹었어두 글쎄 그거를 명심해 듣지를 않구 거 그놈의 달이 아무데서 뜨거나 무슨 상관이냐구 으 채록자: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보자: 아 한 칠십 넘었죠 채록자: 아니 칠십 얼마십니까? 제보자: 칠십 셋이에요.)

제주도 무신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허항렬(67)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꽈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제주도에 내가 어려서 나왔는데 제주도 무신. 애, 만신들이요 무속인이 많잖아요. 뱀(?)도 많고. 유명하게 제주도는 당이 많아요 마을마다 하여튼 당이 없는 테가 없었어요. 옛날에 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채록자: 거기 심방이라 그러잖아요?) 심방. 그리고 제주는요 특이한 게 이 만신들이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점보는 사람이 굿하려 가고 그러는데 제주는 그게 없어요. 이 하여간 얘기를 낳아뿌른 삼신 할무이라나 뭐라나 그냥 아래 물 떠놓고 쌀 떠놓고 밥해 가지고 빌어주는 거 그것만 하려 당기지 이 가서 쌰소리 내고 이거 못해요. 큰 무당 다 있어. 예를 들어서 다 있고 화초 무당. (채록자: 예.) 그죠? 절에서 인자 본부(?)에 가 처녀 시집도 안간 처녀가 머리를 이만큼 땋아 가지고 한 걸이 하고 나믄 꽂바구니 들고 춤춰 가지고 인제 그 구경꾼들 그래서 인제 돌아댕기고 돈 넣어줘. (채록자: 예.) 그래 허

옇게. (채록자: 거기는 그 제주도가 사투리가 심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감수강 감수강 그러죠 뭐. 나도 오래 살았기 땜에 왜 모르는고 하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자 마눌을 보구요 여기 마눌. 우리가 마눌이라 그러잖아. 제주도는 국대산(?)이에요 이름이. (채록자: 국대산이요?) 예. 감자가 지슬. 감자가. (청취불능)보고 뻬이마눌(?)이라는데 그거 아나 모르겠다. 뻬이마눌. 제주도 본토말이 그래요. 궁께 그냥 감자 보곤 감자래는데 지슬, 고구마는 고구마에요. 그냥 고구만데 감자보고 지슬. 그거 누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여 부채 있잖아요. 원 제주도 본토말은 새울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게 어디 말인지 몰라. (채록자: 근데 그 제주도에서 푼채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하구 부채하구 푼채라는 그런 말이 책에 있더라구요. 궂한 문서에 보니까. 푼채. 그 부치는 부채하구 절에 모시는 부처하구 그거 그런 의미도 같을테 어떤 건지는 잘 푼채라는 말이 풍차는 아닌데.) 아니죠 하여튼 제주도도 말이 한립 다르고 서귀포 쪽으로 하여튼 다 다르니까 말이 같은 제주도 말짝은 비슷한데 거 말이 쪼끔씩 달라요. (채록자: 거 제주도 굿구경을 많이 하셨으면 그 새달자 하는 그거 들어보셨어요? 맨 처음에 그걸 그 뭐 날과 복 섬긴 뭐 그런 거.) 네. (채록자: 뭐 그렇게 하죠? 그게 이 날패길 밟는 그걸 그렇게 말하죠? (청취불능)닦음이라 그래 가지구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거를 (청취불능) 그력하고 또(청취불능).

제주도 칠월 칠석 이야기

그거를 말하는 (청취불능) 해녀들이 저 배에 부리는 사람들 2월 달에. 영주 (청취불능) 단오날이요 5월 단오날 아래 우리 보통 먹는 콩 있잖아요 콩. 그러구 가서 볼 수가 없어. 무서워서. 7월 백중 백중에 달떠? 7월 보름 달 뜨나? (채록자: 보름날 뜨죠)(웃음) 뜨죠? 7우리 백중에 하이튼 보름 때 그 인제 오월 단오날 콩을 나만 (청취불능) 콩알을 갖구 가서 산에. 산에 가서 심어 놓든 7월 백중날 가서 콩나무 밑에 그 견우 직녀 만나는 그 시간에 가서 콩나무 밑에 가서 그 산에 심었응께 나무 밑에니까 인자 풀이 장성하기 땜에 콩나물 되게 컸잖아요. 이렇게 커져 커져가 있을거 아니요? 그

밑에 가서 혼자 가만 누어 콩이파리 사이로 보이든 견우 직녀 이 다리 건너 가서 만나는 거 보인다 그래서 애들 가서 무척 심는데 보러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서워서 못가. (웃음) (채록자: 칠석날이 아니구 보름이에요?) 칠석날. (채록자: 칠석이면 7월 7일 ……) 칠석날. (채록자: 근데 견우직녀가 하늘에서 만나는 게 보인다고요?) 예. 콩나무. 저 콩 이파리 그늘 밑에서 눈 뜨고 보믄 겁을 주는 건지 그건 하이든 제주도 속담. 그대로 내려와요. (채록자: 하늘을 보믄요?) 예. 그냥 발랑 아래 드러누어 가지고 가만이 정좌하고. 누가 옆에 있으믄 안된다. 거기만 신경쓰고 콩나무 저 콩 이파리 사이로 이렇게 아리 보믄 다리 놔서 건너가는 거 보인다 그러거든요. 왜 까마구가 제주도는 진짜 그래요. 그 저기 애 견우직녀 그 칠석날 지내고 나믄 이 그거 아셔요? (채록자: 오작교 얘기.) 예, 저 …… (청중: 아니 그건 저 거기 제주도 뿐이 아니라 ……) 제보자: 까마구가 그렇죠? 청중: 그렇지. 제보자: 까치이 머리 벗겨 …… 제보자: 이 한국땅 까마구는 칠월 칠석이 지나가믄 대가리에 뭐 요 털이 다 빠진대. 제보자: 맞어. 왜 견우 직녀가 다리 놔 가지고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빠진다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아요 제주도가. 채록자: 그 견우 직녀 얘기는 유래를 아세요? 그것 좀 해 주시지. 제보자: 뭘 알겠어요? 그냥. 채록자: 아니 왜 견우 직녀가 일년에 칠월 칠석날 만 만난다문요. 제보자: 예. 채록자: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제보자: 글쎄요. 저가 저 제 생일이요 칠월 칠석날이에요. 채록자: 아 그러세요? 제보자: 예 그러기 땜에 애 그러니까 유월, 우리 어머니가 유월 그믐에 날 앤데 남으 달을 먹어서 유월 그믐부터 틀어가지고 7월 칠석날 가서 하필이면 그 시간 가까워서 났대요. 우리 할머니 말이. 그래 가지고 저 이름도 허항렬인데 남자이름이지 여자이름은 없잖아요? 채록자: 항렬? 제보자: 예. 채록자: 네. 제보자: 궁께 없지요? 여자. 남자이름이지 여자이름은 없어요. 채록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 저요? 67이요. (웃음) 궁까 그래서 그런지 칠월 칠석날 저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는 출세를 하는데 여자는 (청취불능) 안 좋대요.)

마마 이야기(1)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채록자: 저기 즈이 부모가 칠성제를 드리구서 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그 즈이 어머니가 열 하나를 낳아 가지구서 여덟을 죽이고 이제 셋을 건졌는데 제가 막낸데 그 인제 그 (청취불능) 이런 거 다 끊구 뭐 전부 담 낳긴 많이 낳아도 다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청중: 마마만 앓으믄 다 죽는 걸루 알구 그리구 그렇죠 채록자: 저기 굉장히 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래가지구. 청중: 하여튼 요즈음에 제주도에 인제 저기가 발달됐기 땜에 그게 덜 하는데요, 그 전에는 애들이 아프건 마마 앓건 금줄 치고 사람도 (청취불능). 채록자: 여기서는 인제 뭐 손님 뭐 마마 배송굿이라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옛날에 굉장히 노들 거기에서 강물에 띄워 가지구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걸 엄청 크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저 저이 다른 데서는 손님굿이라 그래 가지구 별상마마라구 그렇게 해서 그 엄청했죠 지금은 나오고 난 뒤에 사라졌는데 지금 동해안에서는 아직도 그 손님굿을 꽤 굉장히 해서 아주 손님신 나오면은 뭐 이 할머니들이 영 벌벌 떨죠)

그전에 옛날엔 마마가 동네 들만요 (청취불능) 우린 못봤지만 그때만 나도 어렸을 때두 매일 뭐 이 저 가마떼기애다 꾸려서요 삿갓이라구 여 강화에 있어 삿갓. 그거 쓰구 가마떼기애에 굴려서 겨드랑이애다 끼구 아이니까 쪼꼬마니까 그 매장지루 (청취불능) 하게 갔어요. 마마가 들만 부모가 어떤 줌 했나? 밤에 산에 아이들 (청취불능) 절을 (청취불능) 왜 허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촌에 (청취불능) 뱃짚을 입애다 물구 절을 해요 비는 거야. 그 아이께. 마마가 들만. 근데 마마를 못 씌어 보내면 곰보가 된다. 곰보. 나두 곰보에요 하여간 마마만 들게 하구 나사 오만은 곰보가 돼 그래가지구 짚을 물구 절을 하믄 뭐 몰라서 몰라서 그랬다구 그냥 빌구 절허구 그런 건

내 알지.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채록자: 글쎄 지금 마마신이 어디 대북서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참 옛날엔 그 마마에 아이들 다 쓸어가 다시피 했지요.

마마이야기(2)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허항렬(67)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왜 무서운 신인가믄 우리 저 내가 경험한 게 그 마마 않은 애가요 (청취불능)가 죽을라니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나 여기 개 물린 흉터도 있는데 내 외사촌 동생이 그랬는데 거 가서 만날 심바람하고 그라는데 동네 심바람을 나를 다 시켜요 이제 좀 빠르게 땡기니까 근데 누구네 집에 제사지내든 무슨 떡해서 김난다 누구네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찌든 고구마 찌는 냄새 나니까 가서 얻어오래요 먹지도 안아문서. 그래서 그게 (청취불능) 나 가지고 그런 거에요. 그래 가믄 영락없이 우리 집 있는데 그 마마 외가에 앓던 거 알고 큰 손님 왔다고 제사지내던 음식도 그냥 (청취불능) 가오믄 눈도 안뜨고 먹으라 갖다 놓으믄 그냥 손으로 꾀 밀어요. 그래도 결국은 지가 죽게 될게 막 예 뜯어가지고 지 뺄거이 난 데 막 먹어요. 그러다 죽는데, 우리 친구네 집에 한 저기는 옥수수를 찐다고 인자 가서 얻어오라는 데 그 개 이름이 베스이 아주꺼정도 안잊으려요. 하여튼 컸어 개가. 지둥에 다가요 큰 줄로 아래 묶어놨더라구요. 아래 꼬리가 아래 말려가지고 탁 아래 붙은 게 꼬리가 축 젖어서 이런데 가면서 베스이야 너 왜 묶여있니 이러고 절에 갔는데 왕 하고 달려들어서 여기를 물었는데요 그리고 그 줄 짤라 가지고 지가 태어나가 가지고 웅 열 아홉 살난 처녀도 하나 허벅지 물어 가지고 개도 광견병 들어서 죽었지 일곱 살 (청취불능) 아마 그러니까 광기가 덜 퍼졌을 때 나를 물었나봐요 그래 그 집에 할머니가 호랑이 빼래나봐 뭔지. 뼈를 아래 창호지 문종이에 (청취불능) 짜매 가지고 (청취불능) 굴러가

지고 침 넣고 부황 붙이고 그래서 여기 흉 있어요. (청취불능) 예 근데 독이 나는 덜퍼졌을 때 물려서 그랬나봐요 근데 금방 호랑이 뼈를 먹어서 그런지 부황을 붙여서 그랬는지 살고 석달만에 안죽으믄 삼년 만에 죽는다 해 가지고 만날 여기 뭐 개털 그게 인제 속담이죠 그 흉터에 개털 올라오면서 죽는다 해 가지고 만날 쳐다보고 맹기고 그런 기억이나 어렸을 때. 그게 열 세 살 때 열 네 살 때. (청중: : 그 털을 깎아다가 태 가지구. 제보자: 거기다 바르무 호랑이 뼈가 최고래요. 채록자: 호랑이 뭐 하여튼. 제보자: 그거는 먹으믄 산대요 죽을 사람도. 채록자: 호랑이 발톱은 귀신 못붙는다 구 그랬구. 제보자: 예 싸구 맹기구. 채록자: 미친 개 물린 데ن 호랑이 뼈 고기 소한테 반힌 데는 도끼 머리를 삶아서 먹잖아요. 도끼로 패 죽이니까. (웃음))

송해면 부자 이야기(대명신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꽈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저 송해면 부자가 하나 있드랬어요 그 사람이 이 객지에서 거기루 들어와서 사는데 옛날에 할 거 없이니까 곡초루다가 신발 짚새기루다가 신발 삼아서 갖다 장에 팔아먹구 사는데 한 날 가을에 곡초가 없이니까 농사도 안지으니까 곡초가 없이니까 거 딴 집이 가서 아 곡초 좀 달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보게 저 뒤 끝에 저 한 동 묶어 놨으니까 그거 하나 가져가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지게를 대구선 굴려내려서 지구선 오는데 그려줌 무겁드래. 그래 가서 즈이 집에다 갖다 끌려 놓구 그러니까 그 속에가 큰 대명이 들었더래 그래서 그걸 겨울이니까 초겨울이니까 그 저이 집 골목대(?) 다 갖다 놓구 터주가리를 해서 해마다 (청취불능)를 엮어서 터주가리가 상당히 크게 있더랬어요 그런데 그때 부텀 그냥 돈이 미기 시작하는 거이 송해부자 강화 일류더랬어요 그래서 집질을 하게 됐는데 돈이 메니까 집을

다시 지어야 될테니까 그 요로쿠 터주가리가 골목대가 요로커니 있는데 아 집을 요마치 요마치나 조그맣게 지었으면 될텐데 돈이 많으니까 이걸 누가 달래? 이것두 치구 이두 엉기구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지도 못허구 망했어 걸 다 짓지도 못허구 응? 근데 이 놈을 펴보니까 여기 그 그 갖다 뒀던 게 없더래. 근데 그 집 다 짓지두 못허구 망허구 떠났어. (웃음) (채록자: 아이 그러면 그 저기 그 대명이가 업이라 그러는 겁니까?) 제보자: 그렇죠 업이죠. (채록자: 네. 그걸 저기 그 업에 대한 지금 하신 얘기 같은 거 좀 더 해주세요. 그거 더 복을 갖다 주는 말하자면 신이잖아요?) 그럼요. (청중: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모시고 집을 적게 지을 건데 그걸 넘겨서 복이 그게 다한 거야. 채록자: 저기 성함을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자: 유운종. 채록자: 저 유자가 벼들 류? 제보자: 모로 도 유자요.)

도깨비 씨름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지금 우리계도 그런 사람 (청중: 아 할아버지 저 생이 매구 가믄 앞에 그 저(청취불능).) 우리게 지금두 그 사람네가 살지만 하과장네요. 하이장네. (청중: 웅.) 이장네가 우리 동네 맨 꼭대기 산 산밑에 집이야. 근데 그 하이장 아부지는 키가 크지만 그 어무이 닮아서 그런가 하이장 큰 형도 쪼그마해. 또 하이장 할아버지도 쪼그마한 할아버지에요. (채록자: 네.) 산 밑이니까내루 이 산이 다 저 내가면 조모시네 산이야 지금도 근데 이 산밑에 집을 짓고 사는데 쪼꼬만 그땐 뭐 초가집이죠. 요 밑으로 밭들이 있고요 산까지 있고 그땐 나무를 여기다 갖다 긁어 쌓놓고 그걸 갖다가 여기서 집에서 때서 밥해먹고 지금은 나무 때는 사람이 촌에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나무때는 사람이. 나무때서 밥해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라 볼 수도 없구. 다 깨쓰루 하구 석유루 하구 그저 그렇지. 아 이 할아버지가 밤에 저녁 때

여길 나무를 가지려 나갔더니 아 어떤 넘이 밤에 캄캄한데 나서서 이 놈 왜 오냐구 막 나 나무 가채록자라 온다. 너 이놈 나하구 쓰름하믄 니가 이기믄 날 죽이고 내가 널 이기믄 나가 널 죽이갔다구 아 그리자 아 근데 요 쪘꼬 만 사람이 아주 뭐 담력이 대단한 양반아예요 아주 근데 그 냥반을 내가 나 두 잠깐 본 거 같애 어려서 아 그래 썼냐? 썼다 그리구 불들구 밤에 그 둘이 거기서 거 산에서 썼냐 썼다 어찌구 그리다가 써라 그리구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놈을 미어 꽂았어 미어 꽂구선 지금은 그런 할아버지들 있는지도 모르갔는데 요 옆구리에 장두칼이라구 요만한 걸 꼭 차구 땡겼어요 장두칼을 끌구 꺼내서 깔고 앉아서 모가지를 들이 젤른다구 젤러놓구 칼두 빼가지 오질 않고 그냥 웠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물 갖다 제 방에 대구 그 이튿날은 그러니까 해가 논밭에 올르니까 이 놈의 새끼가 거기서 죽었나 하구 가 보니까 아 시상 없어. 그런데 자기가 꽂은 장두칼은 꽂혀있어 땅바닥에다 꽂혀 있는데 어디가 끼어서 있나 그러믄 지금두 도루깨라구 아시는지 도루깨 아버이 되는 고개 요 요기가 구녁이 뚫렸어요 네 고기다가 요론 걸 깎아서 끼어서 요기다 뒤후 갖다 매 가지구 이걸 이걸 쥐구 휘둘르만 이거이 노는 거야. 도루깨가 돌아서 가서 인제 벌이 마당 디러오고 그럴 때 그걸 치구 그런 도루깨가 있는데 그 도루깨 고 구녁에다가 어떻게 그 밤에 두 고 구녁에다가 그 칼을 장두칼을 놓구 꽂아놨는데 고눔이 발딱 꽂혀 있드래. 그러니까 누가 보길 했나 누가 뭐 그 할아버지가 그렇나 보다 해서 그런 얘길 하니까 그런 걸루 그랬지 누가 봤나요? 보지도 못했지 다 근데 그 이튿날 부텁은 밤에 길엘 딱 나서믄 아주 불이 환하게 켜진 (청취불능)모냥 뭐 그래 그 사람네가 살림이 자꾸 불어 그래서 그 아래다가 집을 사구 땅두 많구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손이 아들이 하이장 아부지가 돈 모게 했지 그래두 (청취불능)(A면 끝)

도깨비불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과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청취불능) 고랑을 파요. 그리운 그때 지금은 괴래는 거이 읍지만 그땐 그 물동이 채우는 대로 괴가 밤이면 기어내려와. 밤에 그 괴를 잡으라 나갔는데 낫가이 이렇게 쭉 있으믄 눈에서두 물 내려오구 냇갈에서도 물 내려오고 그런데 여기다가 발이라는 걸 엮어서 이런 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엮어 놓면 이러큼 발이 이렇게 돼요. 이걸 길게 이거이 냇갈이다 그러믄 이러큼 비슷허게 쳐야 저기서부텀 해서 내가 요기 가 앉았으믄 요리 오라구. 아 저녁에 그려줌 괴는 번질나케 자꾸 내려오는데 참 비바람이 쳐서 등이 그냥 자꾸 꺼지는데다 성냥을 켜대니 성냥이 떨어졌네. 그 캄캄하지 그냥 밤이니깐 자 이러쿠 바라보니까 저 냇둑 저기서 불이 와. 아 저 사람이 오마는 불 좀 불 좀 켜게 되갔다 그런데 만날 봐도 거기 있네 오질 않구. 오는 것 걸긴 헌데 근데 우리집이 저러쿠 냇둑으로 요로쿠 한참가서 올라가야 되거던 그래 막 기다려두 안오구 만날 불이 거기만 있는 거야. 예 엘병할 놈의 거 내가 여기서 괴 잡다 말구 그냥 두구 둑 새이루 그냥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니까 그냥 만날 거기 있어. 암만 가두. 그래 그걸 쫓아가다 말구 집으로 가서 성냥을 가지구선 불을 해가지구 여기루 오니까 아 나 괴 다 잡아 놓은 걸 딴 놈이 가다가 보니까 괴잡아 논 거 있으니까 다 가지구 그 사람이 먼저 갔어. (웃음) 아 이 나보다 더 날쌘 놈들이 있구나 그리 구선 그러니 밤에 누로 보고 하소연 해 봐야 소용이 없어(청중: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 도깨비불 한 번 봤네). 그래서 어 저거이 도깨비 불이구나 하는 거 알았지 어떠큼 생겼는지도 몰르지. 에 그거이 도깨비불이구나 했지 여태도 몰라요 그걸(채록자: 근데 그 도깨비가 괴를 좋아한대여요?).

신림동 도깨비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허항렬(67)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그 신림동에 있잖아요? 신림동. (채록자: 네.) 신림동 그쪽에 옛날에 그 집에 행팬없어서서 저쪽 비집어 올라가문 하꼬방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우리 있을 때 거기서 이 무슨 동네까? 서울 대학 못가서 그 논 벌판에 에 논있는데 거 하이튼 논두렁에서 물이 막 솟구는 샘 하나 있었어요 신 신림 동에. (청취불능)으로 올라가기 전 저 논 벌판으로 가보문 하꼬방집이 아래 둘이 있어 논 가운데 이 논둑에. 하꼬방집아. 황씨네가 살았는데 그 때가 신림동 또 한참 깡패들 유명했을 때에요 이름이 황다군데 달구라 그랬어요 어떠금 깡이 좋은지 달구. 이 애새끼가 개네 이북 지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 테 그 인제 나와가지고 그 하니까 논둑에 하꼬방집을 살아가지고 방 하나 요래 광방하나 그 집에 우리가 놀러 그 집에 마누라하고 잘 알아가지고 놀 러 자주갔는데 진짜 그 집엔 도깨비가 누울라믄 비올라믄 있어요 왜 있나 둔 아래 누고 자믄 비름박에 자갈을 자박자박 뿌리는데 말도 못해요 자갈 을 그 내가 내가 직접 당한 얘기고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신림동 얘기요. (채록자: 네.) 예 그 황다구 엄마가 아들 둘이 딸 하난데 딸은 참 이쁘기도 딸은 착한데 아들들이 다 깡패로 풀렸어. 매일걸이로 잽혀가고 영창살고 그 러니까 엄마가 타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친구 삼아 가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잘 냉기는데, 예 인자 지가 혼자 애들 다 나가고 딸 이 어리니까 나두 인제 신림동 가서 뭐 크게 자리 못잡고 이럴 때 개네 집 에 가서 잠도 많이 자고 괴로우니까 아래 들랬는데 그 집엔 진짜, 그 고이 뒷산에 아래 이 산에 들어 가 보믄 사람 아래 죽은 묘 파란 구뎅이가 많아요 그 쪽 그 산비탈에로 그 논 인제 저테 하이튼 도깨비 논다 하이튼 거기는 안좋아 좌우간 안좋은 동네데, 지두 그래 도깨비 땜에 대가 원간 세대요 지가 만신이라도 크게 해 먹을 사람이구 이러기 땜에 지가 거기 산대 논벌 판에 거 하꼬방집이. 근데 가서 누워 자는데 거 언제는 잠을 자는데 뭐 자박자박 소리나는데 아래 전드려요. 이렇게 무슨 소리 들리지? 그랬더니 누 가 저기 모래, 자갈을 왜 이 비릉박에다가, 하꼬방 집 비릉박이라야 그렇잖아요, 높게 안 졌기 땜에 후라시 비춰가믄 아무 것도 없어 진짜. 벽에 와서 떨어지는 소리가 짤랑짤랑 소름이 아주 그냥 이 막 땅이 날 정도로 그래요 그런가보다 이게 도깨비장난이구나 이랬는데, 언제는요 날저녁때, 요즘 그 때가 가을 시월, 아니 초가을 김장하기 직전 제가 놀러갔다가 술이 이만큼

됐는데 손님 왔어요. 그 집이 꼬치장하고 된장을 얼마나 맛있게 그 여자가 잘 담는지 내 것도 담아 이렇게 한 독 담아 놨대요. 그거 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손님와서 아래 부침질을 하는데 아래 뻥 그 논에서 뻥 돌아오믄 인제 주막집이 있거든요. 동네 큰 저 신림동 6동 동사무소, 고 바로 맞은 편에서 이렇게 가믄 그 인제 그게 어떻게 됐나 몰라. 한참 못가서 그땐 그 벌판에 다 논이었고 반이었어요(청중: 지금은 다 집이지 뭐). 다 집지었겠지. 그런데 가서 술을 사가 오래는 거야. 술을 막걸리를 주막집에 가서 두 되를 받아다 오래요. 이제 사가지고 오래 돈을 줘서 그래(누군가가 들어옴. 청중: 어서오세요). (웃음) 우리 회장님 여기 회장님이세요. 사러 갔는데 막걸리를 두 되를 받아가 오는데 신짝도 한 짹 없어 버리구요, 완전히 홀킨 거야. 신짝도 낡인 집이 어떻게 그 길을 가까운데서 왔는데 어디를 헤맸는지 몰라요 그건 내가 당한 일이니. 술을 들고 왔는데 그 도깨비가 술을 다 뺏아먹은 거라며요 술, 이렇게 왜 두되짜리 주전자 들고 오는데 왜 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차리가 집에 온 게 이 주전자 술이 하나도 없어요. 막걸리가 왜 그 왜 그래요 그거 그렇게 겁내고 횡달구네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무덤있는 거게 다 겁내구요. 인제 생각하믄 그 깨고 생각하니까 신발도 어데 가서 한 짹 벗어버리고 한 짹만 신었어요 그러구 두되 술 받으려 술사러 간 사람이 안오니깐 주막집이 애는 와서 술 갖다 맥여서 보낸 시간에 나는 어두워서 들어간데 웬 다드미 방망이 소리가 기가막혀. 산에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다드미 소리 뿐이지 아무것도 안보이는 거야 그러고 마냥 길에 그냥 땅기는 거야 주전자 들고 아래 술 두되 주전자는 이거 거머 재고 신발 한쪽 잊어버리고 정신차려 집에 오니까 온 후에 사흘 앓았대니까. 내가 사흘 앓구 그 집이 폐지돼 가지구 그 엄마 약 먹고 죽었어요 그 친구가 큰 아들 땜에 그냥 저 막걸리에다 무산 약을 먹고 죽은지 몰라 약 먹고 자살했고 딸만 잘되고 그 아마 선화교육대 달구란 애는 들어가 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 행방 어디 있대는지 소리도 못듣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6동, 6동 그 사모소 바로 맞은 편에 했는데 내가 당했대니까, 서울서. 그래서 그 난중에 깨고 앓았는데 그 이 만신 달구 그 횡달구 엄마가 다우 엄마가 바자지에다가 무슨 잡곡밥을 해 가지고 해서 막거리 봇구 해 가지고 풀어서 내가 낫긴 낫는대요. 막걸리 술을 다 이거 맥였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들어온 거라(채록자: 아). 예. 안그랬으면 나 거 길에 혜매다 죽었어요. 삼일 앓았대니까요, 정신없이(청중: 아이 나는 ……). 예 신림동 거기도 많이 놀아. 진짜 많아(청중: 도깨비래는 거이 마음의 도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야, 아니야 있어. 도깨비 있어요(채록자: 솔뚜껑에 (청취불능)).

전등사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유운종(73)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① 묘자리 이야기

그런 것두 저 얘기가 있어요 전에 봇텀두 지금 전등사 자리가 저 아랫녘 사람이 와서 땅기다 보니까 참 좋드래 즈이 그러니 그이 거 죄받지 살어? 아버이를 목을 쳐가지고 쓸고 왔으니 그럼 죄받지 죄 안받을 거야? 지금이나 그때나. (채록자: 전등사 얘기예요?) 예. 그래 거기다 가주구 오니까누루 거기다 목을 쓸리구 즈이 아버지 산 목을 쳐 가지구 오니까누루 전등사 절 닦을려 절터를 내리 닦으랴 그러니까누루 늦었지. 절터를 닦으니까(채록자: 거기다 못썼겠군요?). 못썼죠 절터를 닦은 걸 절 질려고 절터 닦고 있으니 거리다 들어가기나 해요?(채록자: 그 아버지 목 쳐 가지고 온 사람이 풍수였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또 뭐 산수 좀 보고 그러는 사람이죠 (채록자: 네.) 그 암만 봐도 저 죽는 날은 모른다구 아니 산 목 쳐 가지고 온 놈이 뭐 이 지금이나 그 때나 뭐이 잘되갔다고 그래요? 뭘. (채록자: 그 사람은 그 냥 망하질 않았어요? 그 아버질 죽여서.) 그 그놈 망했갔지 뭐. 여기 이까짓 게 저 아랫녘에서 왔다니까루 내막도 몰르지.

② 전등사 추녀 이야기

(채록자: 그 전등사에 또 무슨 이상한 기와집에 빨갛게 쭈그리고 있는 불상 얘기 있죠?) 인제 그 추녀 끝에 이 원숭이를 구테이 마다 시워 놨죠?

(채록자: 네.) 받치고 있는게 그거이 고 온 대목수가 질르구 거길 터를 닦구 거길 맡아가지구 짓는데, 거 지금두 그렇지만 공사가 큰 공사가 하나 퍼지믄 그 밑으로 음식점이 생기는 심으로 아마 그때도 그런 모냥이죠? 그 아래로 술집덜이 생기구 술먹으로 그 대목이 냉기구 구라니, 그 여자를 새겨 가지구 번 돈은커녕 즈이 집에 있는 돈 꺼정 다 술집 여자 다 갖다 줘서 빛겠대네요. 그래서 그거 이 여자는 괴물이다구 해가지구 별을 받아야 한다구 해서 그 추녀꼴을 그 눔을 시워 놨대요. 그래서 그 위서 내리 놀르고 있죠.

(채록자: 여잘 잡아다가요?) 아니죠. 그걸 잡아다 그랬나 그걸. (채록자: 비슷한 걸 만들어서요?) 그렇죠 맨들어서 거기다가. (청중: 무거운 짐이나 이구 평생 살아라 그러구선 그걸.) (채록자: 말하자믄 정인 아녜요? 그여자가? 청중: 그렇죠.) 그것도 누가 본 건가요? 뭐(청중: 전설이지). 전설로만 그렇고, 그냥 말로만 그렇고 떠내려오는 거지 본 얘기도 아니고.

복일지라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서원상(81)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어느 동네에 가난한 집이 살았는데 제사를 치뤄야 됐는데 뭐 가진 건 없구 아무것도 없단 말야. 그니깐은 그냥 거적대기에다 싸가지구서는 즈이 아버지를 지게에다 걸머지구 산꼭대기루 올라가 가지구 산꼭대기에서 내려굴리면서 아부지 편안한 데로 가서 누으십시오 그랬단말, 궁까 이 송장이 데굴데굴데굴데굴 굴러내려가다가 틱 가다가 어디 가서 꽉 엎어져서 있드란 말이야. 궁깐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그거 보구 파구 자시구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갖다가 산소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아 그리구 나서 그 집이가 아 그냥 불일어나듯 일어나는데 아 몇 년 안에 큰 부자가 됐더란 말이야. 그래 아들이 가만이 좋은 집에서 살구 참 먹구 살기 좋으니깐 아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갖다가 엎어진 채로 갖다가 묻었시니 이

거 이제 살만큼 됐시니까는 다시 가서 가서 바루 모셔야되겠다 라는 생각 으루다 가서 모셨단 말야. 아 그랬더니 뭐 그때서부턴 한 삼년 삼년을 못가 가지고 홀딱 망한 거야 이 집이 그래서 그 복인이 복일지라 라는 소리가 그 당시에 나왔다는 거야 그거니까 그럼. (채록자: 거기는 까꾸루 돼야.) 그렇죠. 어푸 옆에 모셔야만 이제 제대루 모시는 전대 바루 모셨단 말야 궁깐. (채록자: 복인이?) 복일지. (채록자: 그럼 복자가 복복자 그건가요? 복있는 사람이?) 복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주 상주의 복이 있어야 복인이 복일지라. (채록자: 이제 성함 좀 말씀해주세요. 제보자: 저요? 서. 채록자: 예. 제보자: 으뜸 원 서로 상. 채록자: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보자: 저요? 청중: 나이 많아요. (웃음) 제보자: 기미생. 삼일운동 일어나던 해죠.)

죽었다 살아난 할아버지 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허항렬(67)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저기 (청취불능) 그 뒤에는 팬찮은데 그 밑에 아들들이 뭐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아무일 없으믄 삼시간에 진짜 눈에 보이도록 망해 뭐가 안돼, 안되고. 이 저 그 할아버지 옛날 백 아홉 살 먹고 백 아홉 살 껴정 먹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거던, 제주도에, 거 오래된 애긴데요, 진짜 그 할아버진 그러셨는데. 그 손들이 제주 멘장도 해 묵고 좀 이래 팬찮다. 육이 오 때 그 멘장 집은 망하고 그 할아버지는, 이 그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육지에서도 그 할아버지 덕담 들으러 많이 오셨어요. 배운 양반들이 그 할아버지 저승 갔다 온 얘기. (채록자: 네.) 들으러 이리 많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7남매? 7남매에 막냉이 아들이 장가를 하나 안갔는데, 할아버지가 칠십 아홉엔가 칠십 아홉엔가 여덟엔가 그 할아버지가 죽었었어. 그 할아버지가 덕담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일장 보통 요즘에 사람 죽으믄 3일 만에 나가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

고 그렇대까요? 근데 그 집엔 9일장이 난 거야, 9일장. 그래 그 자식들하고 연대가 이리 안맞아 가지고 인제 죽은 할아버지 방안에 인자 관안에 9일동안 들이 놔뒀다 9일 만에 나가게 됐는데, 큰 아들 하고 아들은 상주의 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작은 저 막냉이 아들은 그냥 잠만 자고 옷을 안입는 거야. 옷을 안입고 그냥 그냥 잠만 자고 이러다가 내일 아침이든 내일 아침에 내일이든 제 아버지가 인제 (청취불능) 나가 문을 건데요, 9일 만에 죽은 할아버지가 깨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진짜 그 집이 손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육이오 때 그 때 다 망했어. 그건 진짜야. 제주도 제주신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든 산에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가야 될 건데도 그 막냉이 아들이 그냥 미쳐서 설치는 거야. 그 관 해 놓은 거 송장이 썩었어도 벌써 9일이든 다 부패가 됐을 건데 못질한 걸 뽑고 이거 이거 아버지 죽고 미쳤다고 그냥 누가 말릴 수가 없더래. 그냥 하믄 자빠 관 그 막은 걸 때놓으니까 아버지가 온기가 돌아서 살아난 거야. 9일 잠자고 일어나신 거야, 아버지가. 궁께 막냉이 아들이 건져낸 거지 아버지를 그래 살아가지고 백 아홉 살 꺼정 사시다가 백살 하고도 아홉 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제주시 이 제주 한림에 인제 거 공원됐어요. 옛날에 거 한림면에 면장도 거이 인자 나라이 국가집이라 해서 면장도 그 집에서 살고 그랬는데 참 시설이 잘 돼가 있었어. 그 집이 그 할아버지 별장같이 지어 가지고 높은 데 이러 케 밑에 냇가를 물가를 폭포수가 그 위에 만날 앉아 가지고 그 저승갓다온 얘기 인제 이래 하믄, 인제 그 때만 해도 제주도 요즘 같이 발달안됐을 때 육지에서도 비우는 학자들이고 그 할아버지 얘기 들으러 꼭 제주시 제주도 만 도착하믄 그 할아버지 찾아보고 한 대요. 백 아홉 살꺼정 먹도록 귀 하나 안먹고 이빨 아금니 두 갠가 빠지고는 이빨도 다 갖고 사셨다가 백 아홉 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었어, 제주도에. 그건 진짜야. 한림에 근데 그 인제 그 집에 그래 가지고 묻고 내 잘 그래 하다가 누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딸들도 쪼꼼 딸 3형제 말은 별로 없는데 거 인제 두 째 그 막냉이 그 아들, 그 인제 지 아버지 귀한 아들이 그 면장 한림면에 면장꺼정 오래 했었어요. 근데 육이오때에 육이오 당시에 그 집에 딸만 하나였는데 이 딸이 대학교 1학년 땐데 뱤갱이, 그 인제 제주 제주 뱤갱이지 거기 물들어 가지고 맨날 산으로 이래 가는데 이 경찰들이 그 면장 딸을 두 번 잡아다가 학생이고 이

러니까 놔줬어요 아버지도 면장이구 이러니까 놔줬는데 세 번째 불들려 가지구는 이 뭐야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총살시켰어 그 죽였데요, 그 그 죽이고 난 뒤에 그 집에 멘장 그 엄마 아부지는 그 자기 집에서, 그러니깐 딸만 빨갱이지 아부지 엄마는 빨갱이가 아니잖아, 딸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다가, 빨갱이가 내려와 가지고 자체 빨갱이지 그러니까 제주. 그냥 죽여 가지고 그 앞에 엉두나무, 그 정원에 나무에 그냥 그때기, 그 진짜 제주도에 가서 오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6.25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짤라가지고 나무에 다 걸치 놓고 그냥 그러고는 다 망했지. 제주시에 그 한립면에 그 왜 이제 시방 공원이야, 한립공원. 공원 그 멘들어 논 바로 고, 고 언저리에 고개 멘장살던 집이. 그런 집이 있더라구. 그 109 살꺼정, 죽어서 9일만에 산다는 건 끝이가 안 들려. 진짜라니깐. 해서 아무 것이 하면 고罵이 할아버지가 저승에 갔다가 나와가 109살꺼정 그 살았는데 이러고, 안직꺼정 제주도에 있다고 그래 그 집이 손들이 그리 잘 됐다가 딸 하나가, 외동딸인데, 딸 하나가 잘못 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더라고(이야기를 마치고 강화 노인경 함구경(?)씨를 소개하였다. 채록자가 술을 권하며 민요와 이야기를 이끌어 내려고 말씀하셨으나 노인분들이 거절하였다).

꿈이야기

장소 : 강화 장수노인정

제보자: 박숙자 (66)(연백 원쟁면 칠리, 강화읍 관청리 775)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1999. 4. 28.

내가 지난 거는 (청취불능) 얘기 조금 허까요? 지가 어릴 때는요, 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청취불능)구, 아버지가 개성군수에, 개성군수에, 인제 딸이구, 아버지두 공부를 많이 허시구 어머니두 공부를 많이 허셔가지구, 인제 서루 골래서 스물 한 살에 장개가구 시집갔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주 늦게 갔어요. 과년헌 처녀로 시집 못간다구 그렇게서 시집을 인제 아부지구

서루 저거다가 말꽁지를 뭐 가, 가꾸루 끈대요. 이렇게 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먼저 장개를 가면 말꽁지를 가꾸로 끌어낸대요. 근데도 아부지가 그냥 이유도 없이 난 장개 안 간다 그러구. 상대자가 맞는 게 없으께 그러나 봐요. 그렇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양반 하나, 우리 외조 할머니가 양반 하나를 보구서 시집을 (청취불능), 개성군수예요, 무남독녀외딸인데. 양반 하나를 보구선 밀양 박씨, 전주 최씨 해서 밀양 박씨를, 개성서에 토성으로 시집을 보낸 거죠, 우리 어머니. 그래갖구 시집을 보냈는데 입이, 이 대문이 이렇게 외로 달아졌드래요. 몰르구 양반이든 양반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고, 무남독녀 개성군수의 외딸, 외동딸인데 그 시집을 보냈는데 너머도 어렵고 이렇게 비참한, 비참한 집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양반 하나만 알구. 그래갖구 연백 그 벌판에 오나가지 구 드렁에 가 앉아서 우리 외조할아버지가 개성군순데, 옛날에 개성, (청취불능)군수면 백마타고 다닐 때여. 그래서 앉아서 드렁에 가 앉아 울었대요, 아버지가요. 딸로두 그저 이렇게 골래서 주나, 대문을 중말 열 두 대문 집에서 살다 이런 데서 시집을 그렇게 보냈나 허구서는 아버지가 이제 땅을 사주시구 저거 허셔서 이제 아부지가 살기 시작해가지구 증말 (청취불능)가 두 양반이 이혼허셨어요, 두 양반이. 그리구서는 참 그러구서 사시면서 차차에 그 시동생들, 그냥 전부 다 사형제, 오형제 되구 시누들 많구 그래서 그걸 다 시집 보내구 사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나 사난지요, 우리 친정에, 친정에 저기 부잣집서 시집 왔다구 유세를 한다구, 작은 메누리, 시누들을 초마 자기 거들 초마 옛날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짤라주만요, 다 벤겨서 그냥 물통에 갖다가 잡아 넣는대요. 너희 친정에 부자라구 유세허구 오나서 이력허구, 이런 거 입구 일을 뭇한다 날라리걸은 다 찢어진 초마 입어야 일을 허지 이런 긴 초마는 일을 못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뜨물 찌카기를 그냥 이렇게 해 갖구선 죽 쑤구 그 나마지 앙금마치마는(?) 고걸 톡톡 털어서 어머니들 그냥 작은 어머니, 간데 어머니 입에다 다 넣어준대요. 이제 이 일꾼들 다 부시구 난 다음에.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어머니가 증말 53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한 5, 6년 넘은 담에 고 담에 할머니가 83에 돌아가시구 우리 어, 우리 아버지가 정월에 돌아가시구 또 엄마가 유월에 돌아가셨어요. 일 년에 시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일 년에 시 양반이 12살 때, 나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냥 진짜 우물 있잖아요. 이 아들 하나, 우리 오빠가 하나, 하나가 인저 (청취불능)기 때문에 인제 좋은 짐을 하나 이 층을 짐을 지어서 인제 아들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인제 우물이 둘이드랬어요. 그 우물 둘을 그냥 미구서는 짐을 진 거야. 게 우물 민 자리는 짐을 안 진답니다. 절대 짐을 지며는 망한대요. 게 우물 둘을 미구서는 이 뒤엣 물 하나를 갖구서는 이거를 짐을 지구나서는 바로 그냥 짐 진 지 얼마 안 돼서 3년내지(?) 시 양반이 달아 거 돌아가신 거예요. 잘 짓구요 돌아가시구 나니깐은 뒤에는 갑재기 시 양반이 돌아가시구 나니깬은 언니는 저 건너방에 있구 일꾼들이 다 있구 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집안이 망해가니까 삼촌들이 이렇구 저렇구서 허니까는 그냥 다 뿔뿔이 지금 우리 시 오누이가 남았댔어요.

우리 작은 언니하구 오빠하구 나하구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는데 저기 제서, 이 이 방을 이렇게 졌는데, 여기 오시리가 있어요. 오시리라구 왜정 때는 이렇게 여 다듬이 방이라구 따루 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놓 다놓는 거죠 근데 거 오시리 안에서 홍두깨 굴리는 소리같이 나더니 그냥 막 그냥 아주 또그락때까 또그락때까 허구 그렇게 아주 다듬이를 잘 두둑지어요. 그런肯 오빠들아 이거 다듬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청취불능) 그러니깐 오빠가 뒷집이서 그 다듬이 허는 거가 여기가 들리지. 그럼 우리 오시리 안에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냐, 저 문 열어 보자 그러니깐 오시리 문을 열어 보니깐 거 바깥에서 나오, 집 바깥에서요. 또 이 방에로나 요렇게 앉으면 또 거기서 또 이 다듬이 방에서 나오. 게 내가 무서워서, 이상한 생각이, 도깨비래는 모두 (청취불능)들 쪼꼬매서 들은 이름이 있어서, 도깨비 그러는 거 아냐 그러니깐 아니래요, 오빠가요. 게 언니는, 또 우리가 나구 7년이 원데두 언니가 아주 쪼꼬맸어요, 키가요. 인제 아주 더 우리들보단두 성숙허질 못해요, 나이 먹어서두. 근데 또 그렇게 그렇게 방아찧는 소리도 허구 아주 쿵쿵쿵 이렇게 있다가 또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딛고 또 다듬이도 허구 그래요. 그러니肯 오빠 이거 도깨비 노는 거 아냐? 그러니깐은 오빠가 아냐아냐 그러더니 돌아서 울드라구요, 오빠가요. 돌아서 울고 아냐 그러드라구요. 게 오빠는 그 도깨비라는 걸 알았죠, 뭐. 아주 똑똑허구 그 때 오빠가 17살인데. 그래갖고 그렇게 해 놓구서는 지 바깥에서 이 굴뚝대, 그 굴

뚝대 창문 뒤에서 그냥 막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애요. 그리니깐은 저기서 누가 우는데 오빠 나가보까? 누가 엄마(?)가 우는 거야? 그러니깐 그걸 뭘 나가 보겄나 그래. 아냐 그래도 누가 아마 그 쟁겨나서 매맞아서 쟁겨나서 우나 본데 우리집이 우나서 자자 그래, 도깨비도 노는 것 겉으니 그리니깐, 그냥 안 나가요. 그러니엔 내가 막 뛰어 나가는 거야, 우리 집이 가서 자자고. 막 뛰어 나가서 이 굴뚝대 이층 창문 넓은데 그 우에 집이구 길인데 거길 가니엔 그냥 머리를 그냥 풀어 헤치구 하얗게 그냥 산발한 웃 해(?) 입은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가서 여보쇼 매맞았으므는, 그리니께 그걸을 내가 몰랐죠, 12살이니깐. 매맞아서 못들어가면 우리집이 들어가서 자자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도 그냥 앉아 울어요. 그러니엔 우리 오빠가 나오고 나서 우리 언니도 날 잡아뗐겨 끌고 가요. 그러니깐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방 넓구 집두 넓구 그러니엔(?) 빨리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엔 안 와요. 안 오구 머릴 풀려 헤치구 그렇게 그냥 하얗게 울드라구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오빠가 끌구 들오구 나서 방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콩닥콩닥하는 거예요. 꼭 맞방아를요 콩콩콩 치다가 또 콩닥콩닥콩닥콩닥 콩닥 쟁구 또 그냥 저기서 홍두깨 굴리구 그래요. 게 하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 오빠 그러면 오빠가 그거이 쥐가 그래 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밤을 새구 밤을 새구 그랬는데, 그이튿날 아침에 가서 뒷집에 가서 어저께 보리방아 쟁셨어요? 보리방아 밤에 쟁었냐고, 낮에 더우니까 김매려 나가고 그랬으니까 보리방아 쟁셨어요. 그리니께 안 쟁었대는 거야. 그 이유제 사람은 다 가서 물어보니까는 다 안 쟁었대요. 게 웃집에 가서 또 누가 어떤 (청취불능)엄마 겁나게 맞고 그렇게 울었냐고 그러니까 안 나갔대요, 밤에. 물론대요. 그래서 그냥 아 이것이 진짜 도깨비인 거구나. 그러구서는 도깨비나 보다 그러구 오빠 그거이 도깨비가 놀아, 노난 거나 봐. 아이들 이야기가 도깨비가 논대, 그리니깐 도깨비가 놀았나 봐, 내가 그리니깐 오빠가 아냐 쥐가 그랬어, 쥐가 그랬어, 그래요 그렇거다 그 생활을 그렇게 하고, 집이 크니깐 그냥 도깨비가 많이 놀드라구요.

그러다가 하루밤은 꿈을 꾸니깐 그냥 이 강이,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강 건너 난 여기 있었구 그 강 건너 바라보니엔 그 엄마, 우리 엄마가 있더라

구. 그런데 그 강 건너 가니깐 우리 엄마가 있는데 그냥 별별 뛰면 우리 엄마가(청취불능) 오지 말라구 흔들어요. 그냥 이 강 줄기를 따라가는데 나두 이렇게 따라가니깐(제보자: 지송합니다) 그냥 달아나요. 달아나니엔 나두(청취불능) 달아나다가 산이 닥쳤는데 산으로 엄마가 갔으니까 나무가 꼭 쳤는데 (청취불능)비질 않아요. 게서 요즘 엄마가 이리 해서 이렇게 가미는 저기 이리 갈 거니깐 내가 이제 (청취불능)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라다 보마는 뵈갔지. 그리군 밭으로 막 뛰 내려가서 거기를 이렇게 바라다보니깐 참나무, 야참나무, 이거 소나무, 야참나무 있는 데루 가더라구요. 그러니엔 그 앞으로 가로질러서 가 가주고 막 꽉 붙잡았어요. 붙잡구서 엄마 어데 가면서 나를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러면서 붙잡구 우니께는 우리 엄마가 날다 허는 말이 넌 못온다, 나는 안두리 치두리를 간다, 그래요. 안두리 치두리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두리 치두리는 어디야? 그러니엔 안두리 치두리는 우리 어머니가 기서. 넌 우조할머니지. 그런데 그 안두리 치두리를 나 가니엔 넌 못 따라와. 그러구선 그냥 확 뛰물팔아서(?) 그냥 도망가시더라구요. 게서 그이 주저앉아서 얼마나 슬어서 막 울었는데 우리 오빠가 자다가 깨더라구요. 넌 왜 그렇게 우냐? 그러면서 이렇게 깨니까는 깨아보니까 꿈인데 세상(청취불능) 뭐예요?(청중: 12살 때?) 네, 게 기냥 막 울었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슬퍼서 슬퍼서 그러구선 울었드(청취불능) 꿈을 꾸 구 그러는데, 안두리 치두리가 뭔가 난 그리구, 그걸 얼마 있다가 할머니들 테다가 안두리 치두리가 어디예요? 하니 다 몰른대요. 어디 어떤 사람들아, 어떤 아저씨들아 안두리 치두리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오빠도 모르고 언니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다 모르는데 안두리 치두리 어딥니까? 근깨는 개성 폭포에, 그 폭포물 쏟아지는 옆구리 쇠사슬을 쥐고 올라가며는 거기 안두리 치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혼 만신만 몇 개 있는데 이 사람들 우파를 허만 거기다 갖다 우파를 헌대요. 그리는 안두리 치두리가 백연 폭포수 이 물 떨어지는 데, 물이 하방수로 돌아가구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안두리 치두리다 그래요. 게 그건 왜 물어 보냐 그래구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신다고 그랬는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가 어린 아이 꿈이라두 부모가 그 안두리 치두리가 니 할머니가 계셔서 갖나 부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들었구, 그러구 났는데 얼마 있다가 공부가 그렇게 공부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됐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깐요. 부모가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키구 이력하다 일 년 있다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뭐 저기 전쟁이 났잖아요, 왜정 때요.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어느 날은 공부를, 자꾸 공부만 하구 싶어요. 난 어디 가서 심부름꾼으로 노릇허구 (청취불능)으로 노릇해두 공부만 시켜 주면 할 거 같애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책이 안 되니까는 책은 쥐고 비틀어 가지구 그냥 산에 가서 울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엄마 엄마 나를 데려 갈래면, 나를 어서 데려 갈래면 엄마가 나를 데려 가구 살릴래믄 지대로 살리구 나를 데려가면 데려 가슈. 그리구 산꼭대기서 우니까는 이 산이 메아리를 치드라구요. 메아리 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리구 나서 메아리 치구 있는데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는 큰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요 아래를 보니깐 요만한, 요렇게 꽃이 천지강산에 진달꽃이 피웠는데 요만한 삼태같은 거이 요렇게 요렇게 앉았는데 고기에 냅쭉 앉았어요, 엄마가요. 고고 꽃밭 가운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엄마 엄마 나두 거기 내려간다면서 거기서 굴려 내려 올 거니까는 내가 그리 갈 틴깐 너 오지 마라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거짓말 그래니깐 아니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다 보니까는 그리다 그걸루 그냥 엄마 엄마 그리구선 그리구 거기서 아주 낭떠러지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찾아온다 그러구 내려 갈 수두 없구 양금양금 이렇게 허다가 그냥 꿈을 인제 깼어요.

해서(?) 또 한 번 크게 구원허구 그렇게 났는데, 언젠가는 꿈을 꾸니까는 어 저기 하늘에서요 그냥 광목필이 쏟아져 내려 와요, 광목필이요. 근데 전부 콩을 상에다가 쏟아 놓으며는 왜 까만 콩이 쪽 이렇게 골래잖아요. 요렇게 그 저 벌레 딱일려. 근데 그 넓은 벌판이구 어디구 그냥 깜장 콩알처럼 깜장 콩으로다 그 무슨 저기 콩나물 길른 것 걸은데, 가만히 그 높은 데서 산에서 이리 내려다보니까는 깜장 콩 천지예요. 그래서 가보니엔 사람 머리 통이예요. 뒷머리통예요, 다. 이 얼굴은 안 보이구 뒷머리통이 다 까만 콩알 걸드라구요. 그리면서 내가 허는 말이 이렇게, 이력하면서 이 활을 쏘기 전에 다 가라구, 내가 그러니까 웨델 그렇게 (청취불능)저걸 구경을 현대요. 아 뭘 구경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대통, 대로다 옆은 통 있잖아요, 광폭이 속에서 이렇게(배터리 교체). 또 어젠가 꿈을 꾸니까는 그냥 이 어느 성 밖에, 성, 성이 이렇게 큰 성이 한 열 길도 넘는 성인데 거기를 그냥

잔디가 요만하게 돋았는데, 하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서쪽 하늘이 서쪽에가 전부 그 성 둑 막은 테가 물이예요. 그 그 허지 벌판한 다 물인데 그 물, 물에서 성까에가(?) 양 요만한 거 둘인데 요만한 곳방을 두 개, 곳방을 두 개를 똑같이 맹걸얼려. 고거를 요 손에다가 고 두 마리를 요렇게 붙잡아서 곳방을 두 개를 붙잡는데 아주 똑 같애요, 요 거리가요, 요고 양 두 마리가 곳방 맨 거요. 요 곳방 맨 거를 요렇게 들구 내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 그리구 노래를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 그리구 노래를 허니까는, 하늘에서 그 지금 행사할래면 꽃불이 퍼져 나가잖아요, 이렇게요. 그 총으로 쑬 가지구 행사할려면 (청중: 군포식으로?) 네. 근데 그 이제 꽃 피던 산골 그리구 이랑구 움직이면서 노래를 허니깐 그냥 그 입김이 하늘루 이리 퍼져 나가구 저리 퍼져 나가구 입김이요.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그냥 그 성모 마리아 탄생 그 허는 그 노래가 하늘루 퍼져 나가요. (청취불능) 퍼지는 데루 이리 퍼져 나가드라구요. 그렇게 퍼져 나가는데, 아주 하늘에서 천지가 다 울려요. 노랫소리가 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러더니 쑤 하니 번개에서 내가 아니라 울지 마라, 내가 아니라 울지 마라 그러드라구요. 내가 아니라 울지 마라, 하늘에서 그러드라구요. 그럭허다가 그 꿈을 깼어요. 깨고 나면 언제나 허망해져. 슬구 허망허구 그냥 꿈이 실정(?)이 하나도 없어. 실정이 하나 두 없어, 그 꿈이. (청중: 그게 다 12살 때 얘기야? 제보자: 네, 12살부투م 이렇게 쭉 내려 온 얘기죠 청중: 쭉 올라갔겠지. 제보자: 쭉 올라가, 그러면 쭉 언제 현 게 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그냥 바다물이 또 성깍길을 가는데 바다물이 이렇게 막 밀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산을 돌아서, 우리 집을 이 산 뒤를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가 갈라고 그리는데 바다에서 큰 물이 이렇게 덮쳐 오드라구요. 덮쳐 오더니 그냥 아 청룡황룡이 그냥 그 쏘이어서 나더니 청룡황룡이 떡 허면 이렇게 입을 양 속에서 쟁 일어나 가지고는 이렇게 입을 벌기면 서루 황룡청룡이 입을 딱 벌기구 이렇게 싸움(?) 빽 떨어졌다가 딱 속에 들어갔다가 딱 올라오나 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고 그러드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까에서 아유 무서 그리구 아유 무서 그리구 그냥 송덩이가 주저 앓아서 가았다 가았다 그리면서 아유 가았다 그거 참 무서서 어떡허나. 그리구 가았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허드라구요 용이요.

그리면서 이렇게 허더니 그냥 차 그냥 그 황룡청룡이 그러더니 꺼먼 먹구름이 말이렇게 내려 앉더니 그냥 그 청룡황룡을 다 싣구 가더라구요. 그래 그러구서 오는데 그냥 허방지방 이렇게 빗발이 치는데 허방지방, 다리가 허둥지둥 해요. 그러니까 내 옷이 다 이자 비를 맞구 이렇게 해서 오는데, 아 그냥 이렇게 높은 계단으로다 그 비오는 데 내려오는데 나두 미끄러워서 그냥 미끄러워서 내려오고 나니까는 빨간 옷티을 입을 아이가요, 한 세 살이나 두 살 먹은 아이가 그냥 딱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아이구 나두 젖어서 이렇게 처럭처럭헌데 저 이렇게 아이를 살려야지 어떡허나 그러구서는 그 아이를, 젖은 아이를 안구서 물은 자꾸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이를 어떡허나 그러구 내 가슴에다 이렇게 안구 그 아이를 안구선 산에다 갖다가요 산기슭에 갖다놓구선, 자 이걸 어떡허나, 누구께다 맷겨야 허까, 이걸 누굴 줘야 허까, 임자두 안 오구 이걸 어떡해야 허나 그러구. 그 산기슭에 자꾸 물은 위로 올라오구 자꾸 올라오니깐 쫓아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갖다 놓구 인저 그럭허구선 나선 앉아서 그걸 어떡하나 허구 아이가 탈 나면 어떡허나 이러구 그렇게 깻거든요. 깨구났는데 그 때서부터 이렇게 그냥 내일, 내일 무슨 일이 날래끄는 오늘 꿈을 꾸드라고, 이렇게요. (청중: 그 때서부터 이 상으로하는(?) 뭐가 왔었구마. 근데 그 때가 몇 살이야? 제보자: 그러니까 쭉 오면서 이렇게 청중: 아니 근데 그 꿈을 꾼 지가 몇살이야? 제보자: 아이, 아이 이렇게 허는 꿈요? 아이 허는 거는 거반 사십살 닥쳐서, 사십살을 못 닥쳐서죠. 청중: 사십살? 제보자: 사십살. 청중: 그럼 피난을 언제 나왔서? 제보자: 그러니까 나는 저기 저 1.4후퇴 때 열여덟. 청중: 열여덟? 제보자: 네, 열여덟 때.)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살다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죽게 아프게 됐는데, 죽께서 이년 반을 밥을 못 머서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여기가 물이 한 공기가 들어갈 정도구, 이 소구락 말라가지구 성냥가치에다 비니루 하나 씩워 논 거 겉에요. 게 사람들이 날 볼 때 아휴 저 광태 엄마는 여태 고생하구 살았는데 안 됐다 다 그래요. 그래 내가 우리 이제 아버지더러 가서, 여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죽, 나는 그 때 그걸 그걸 몰르구요 얼마나 죽게 됐는지 저기 이렇게 남들이 지나가면심 여태 고생하구 살았는데 안 됐다 그런 말을 가는 데마다 혼다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냅

다 일어나면서 허는 말이 어떤 연놈들 그래, 그냥 그리구 일어나요(청중: 광태 아부지가?). 네. 이 어떤 연놈들이 그래. 그리구 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당신 날 안 가르켜 줘? 내가 그러니깐은 죽은 병이 들은 게 아냐, 어떤 연놈들이 그런 소릴 해. 아주 대래. 그래 내가 아니라구. 아 건너가서 (청취불능)부릴까봐, 그 사람 그러더라(청중: 술 먹구 와서). 맹깡 부릴까봐. 아 아니라구 아니라구, 그냥 그냥 지나가는 몰르는 사람이 그랬다고. 이리구 그랬어요. 그랬는데 언제는 죽어 가게 아픈데 이렇게 김을, 우리 밭에서 김을 매는데 (청취불능)풀을 콩잎을 이렇게 뽑을라구 그러마는 홀랑 뒤집어 넘어 가요, 이거아요, 몸때가요, 저리요. 그러니깐 아유 동네 사람이 누가 보까 허구, 아이구 어떡허까 그 넘어갔은 걸 원 이 남들이 봤으면 얼마나 쟁피했겠시까. 게 또 앓아서 또 매구 그러니깐 홀랑홀랑 넘어가요(청중: 바싹 말랐을 때?). 네, 게 홀랑홀랑 넘어가요. 그랬는데 그 때 아유 김은 매야 갖구 다리를 이렇게 뻗치구 앓아서 이렇게 매니깐 그 때야 인저 안 넘어가요. 그리구 났는데 (청중: 그 뒤에 저기 뭐야 이 곡식은 어떻게 하구. 다 깔구 앓아서?) 깔구 앓아서 매는 거지. 뭐 여기 이 이 새루다가 콩 이런 건 이렇게 이 새루다 하구 요긴 도랑에 가 앓는 거지, 뭐. 그러니깨는 홀랑 넘어가구 홀랑 넘어가요.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구 있는데 (청취불능) 가서 뜯는데, 우리 인제 딸하구 우리 아랫집이 아이하구 딸하구 이렇게 둘이 우물가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개는 한 살을 더 먹구 우리 딸은 한 살 덜 먹었는데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집애 둘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랫집이 어무이가 거기서 애길 (청취불능)허구 해서, 야 은주야 은주야, 아이들을 여겨두 하나 때리주구 저기두 하나 때리주구서, 저기 하나씩 띄여 놔. 내가 그랬다고 여기서 악을 썼어요. 다 죽어가면서두 그랬는데. 그럭허 구 나니까는 이리는 거야. 저 아랜데 이 꼭대긴데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뭐라느냐면 거기에 인제 여러 아주머이들 처녀 들두 많이 있었대. 이러드래. 저런 씨부릴랄 년, 짐장병으로 다 죽어 가드니 살아서 떠벌거리네 이리드래요. 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이 (청취불능) 맞았대. 근데 그 아래서 밭이 두 개 아래 우물인데 그 소리가 여기다 들리는 것 같애요. 여기가 굿구녁에 들리는 것 같애요. (청중: 그러니까 욕하는 소리가?) 네, 그냥 여기다 객(?)허는 것 같애. 그래 내가 요기 나는 여기 앓아

서 주저앉아서 이거를 김을 뽑는데 요 우이에서 또 꼬추밭을 매는 여자가 있어요, 짚은 여자, 나보담 한 5년 아래. 근데 아 요렇게 그 죽어가면서 그 거 다 죽어가구 밥두 이년 반을 못먹구 언덕도 못 올라가구 밭밖에 모 올라 가는데 요렇게 요렇게 재주를 넘드래요. 저기 그거 우물 있는데 밭 두 개 이에 언덕두 있는데 그거 내려가는 걸, 홀랑홀랑 재주를 넘어 가드래요. 그러니깐 우이에서 꼬추밭을 매든 여자가 하유 죽었어, 다 죽어 가는데 정말 죽었어 그러곤, 히미를 팽가쓰곤 막 뛰어 저 이 신랑들아 광태 엄만 죽었어. 죽었어 얼른 좀 가 봐, 가 봐 그러니깐 아니 죽은 걸 어떻게 가보래는 거야 허니엔(?) 가 봐 그래도 죽었나 죽진 않은 걸 봤는데 죽었나 가 봐 그래서 그 이가 왔는데, 홀랑홀랑 재주를 넘어가 가지곤 가가지곤 그 여자를 요 요만치 힘두 없구 다 죽어 가는데 꽈 머리끄댕이를 꽉 붙잡더니만 탁 이렇게 기냥 확 꼬라비(?) 깔구 앓드래. 잡자쿠 이렇게. (채록자: 어, 그 욕한 여자를요) 네, 착 붙잡더니 그 여러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착 붙잡더니 쭉 허더니 다리를 딱 던지 깔구 앓았는데, 아주 여자가 짚은 여잔데 막 궁내는데도 못 일어나드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깔구 앓았는데 이 소리만 허드래요, 깔구 앓더니. 잘못 했다구만 그래, 잘못 해 그면 놔 주께 그래. 잘못 했다구만 그래 놔 주께 그러드래. 근데 우리 방에 전방에 있는 샥시들 뭐 다 가서 이 손을 기냥 다 잡아 꺾어두 안 펴지더래요, 이거요. 탁해서 아래 췄는데 안 펴지드래요, 이거를. 이 몸때 낫이도 들라 그래도 안 들리드래요. 꽉 앓았는데요. 아직 요렇게 말랐는데. 그러니깐 이 전방 샥시들 (청취불능) 손을 다 잡아 꺾어 이걸 죽었드래 막태기 모냥 불었드래, 이렇게요. 그리구 그러는데 이(청취불능)드래요. 그래서 시 샥시 니 샥시는 화가 나서 아니 힘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불었버렸냐구. 짚은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아 이 어무이가 이상하구나, 그리구서는 그 때가 이거를 피라 그러다 다 필라 그러다 못 피구, 그냥 엎던 채 갈아 뭉개구 코 뭐 다 갈아냈어요, 아주. 근데도 이건 안 놓드래요. 그러니깐은 할머니네 잘못, 내가 대신 잘못했다구, 대신 잘못했으니까 이걸 놓라구 놓라구, 그러니깐은 그 할머니가 어 놓라구 놓라구 그러니깐 그 때 요거 하나하나 펴나는데요, 요만큼 피가 돌드래요, 새카만데요. 하나하나 피가 도는데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펴나서 가까스로 요거를 펴나서 야중에 펴나구

이거를 놔 주드래요, 그 할머니가 수두 없이 비니깐. 그랬는데 그 날밤에 이 얼굴이 다 찢어지구 그랬으니깐 얼마나 야단났았시껴? 신랑이요(청중: 그렇지). 신랑이 오나가지구, 어 우리가 그 테레비를 이렇게 놓구, 처음 테레비를 갖다가 놓구서 동네 사람이 테레비를 못봐서 보는 날 동네 사람들 이 다 왔는데, 테레비를 보는데, 그 전에 남자가 오나서 무조건 나한테다 이래잖아요. 아줌니 우리 마누라는 아줌마한테 댔(?)다 그래서 얼굴을 다 갈아놨는데 그거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시니까 그렇게 물어 봤 으만 내가 사분히 여사무사하다고 그랬을 건데, 무조건 들우드니 그냥 들우다가 저게 갖고 작시를 갖구 오나서, 왜 우리 마누라를 다 갈아놨어 그리구 막 나무끼를 가지구 이러구 들우드래. 그러니까 내가 그 죽어가면서 그 마루 끝에 조금 앉었었다가 허는 말이 내 얘기 좀 들어보구 때려두 때려, 이리 와, 여기 앉어 앉어 그려드래. 그러니까 안 앉어 그려드래. 그러니까 앉 어 앉어 그려드래. 앉지구 나서 때려두 때려 그러니까 안 앉어 그러니까는 딱 일어나더니 아버이가 그 (청취불능)댕기느라구 하얀 고무신, 그 땐 하얀 고무신들을 이쁘게 신었어요 고걸 짹 짹 닥아 놓은 거를 하얀 고무신짝, 그 건 남자여, 딱 쥐구 일어나더니 부시는 거이 아주 그 뿔다구를 하나 손질을 허구(?) 그냥 짹 짹 다섯 개를 부치니까이 뭐 이 고개가 돌아가도록 부시드 래요. 나무 개를 때리는 거보세요 짹 짹 부시드래요. 딱 불잡구서 짹 짹 부시는데 그 여러 사람이 한 20명이 더 테레비를 보는데 엄청났대요, 다 죽어 가는 사람이 그걸 부시구 밥두 못 먹구 이력허구 있는데. 참 별상났다 그랬 는데. 그 때는 더 분해 가지구 이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책가방을 학교 갔다 오다가 탁 두면서 허는 말이 탁 이렇게 놓구 우리 어무이를 놓구 무슨 격투를 격투를 허나 본데 당장 거 들어가는 사람 딱 이 뒤를 보라구, 만약에 우리 어무이가 다치는 날에는 내가 용서 안을 턴께 뒤돌아 봐 그러니엔, 그저 우리 아들이 뒤돌아보니깐 올라가지도 못허구 내려오지도 못허 구, 그럭허문서 어무니가 다 돌아가시는데 그거 딱 나무끼를 가지구 들어가니 뭐 하는 짓이냐구,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는 잠자쿠 시찌(?) 그러구 셨는 데, 거 봐 살 길은 다 있다구 어서 가, 억울해두 더 맞기 전에 또 와두 맞을 거니까 가 그려드래요. 그러니까 그 건너방 남자가 야 이건 무슨 기적인지 두, 으 이게 무슨 일인지두 몰랐대. 그래갖구 건너방 여, 남자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밤중에 한 시에 나와서 마곡사가 어딘지 좀 대 쥐 그러드래. 우리 아들 떼, 이나 영감은 마곡사가 어딘 게 물론대.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머니가 꿈을 꾸셨다면 마곡사라면 큰 절이갔죠, 쪼꼬만 절이 아닐 텐데 아주머니 지도책을 좀 갖구 나오세요 그래드라구. 그래 들어가서 아들 지도책을 갖고 나와서 께 보니께 공주에(?) 160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 여 이나왔네요, 그렇게 큰 절인 줄 알았 그러드라구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서 인제 수행을 완 거야, 우리 건방을요. 근데 그 밥을 한 숟갈 먹으면 변소에 나가다가 확 뿌려놓는 거야, 이게 밥을요. 이거 그냥 밥을 해서 하얗게 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허나구 냄 드럽게 지지 않구(?) 콜로거리구 쓰러지구 그래요. 그랜데 고걸 내가 곤쳐줬어요. 미나리 허고 쑥하구 맨날 찢어서 이거를 해줬더니 그게 나았어요. 인천 영종도서 살고 있죠 (채록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약일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해 줬어요. 이걸 먹어서 내 내 드런 거를 남에게 드럽, 속에 병이 있던 안 있던 내 드런 거를 남에게 자꾸 비니깐 이렇게, 보이지 말게 병을 곤쳐야지 않냐. 그러면서 맨날 그저 미나리, 그 돌미나리를 케다가요, 쑥 그거 찢져 가지고 그걸 먹여서 났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아직두 거기서 이렇게 순금을 했다고 그래서 났다고 참 아들들을 취직을 잘 해주갔다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깐 산소자리를 이런 거를 그냥 꿈에 변소간에 가 서서 구녁을 이런 기둥이 있으마는 구녁을 파만 그 구녁을 파고 요만하게 파마는 그 구녁을 요렇게 들이다 보마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럼 그렇게 꿈을 꾸고 나마는 인제 그 이튿날 아침에 누가 불리요. 아무댁 아주머니 나와 보세요. 나가 보마는, 내가 뭘 안다고 나를 데려와, 날 뭘 안다구. 젠(?) 아줌마 가세요. 가마는 만날 밭에 가서 거 이거이 우리가 차돌백힌 걸(?) 사는데 이걸 좋을라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거이 (청취불능) 이 남풀이 우리가 소를 맷여도 좋은가봐요, 그러마는 뻥뻥, 날더러 뭐를 갖다 알지도 못하는 거를 시워 놓구 날더러 보라 그래. 그리구 뻥뻥 돌구 (청취불능) 육모초 그런 거 있으만 그 육모초만 쑥쑥 뽑아서 겨드랑이에 탁 끼면서 약초만 좋은 거 있어서 잘 뽑아가게 됐다. 나 이리구 가서 이리구 진짜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라 그러드라구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구서는 결국은 거기서 육모초를 한아름 다 뽑아가지구 날더러 뭘

보라 그러니, 이걸 보라 그러니 이상하다 그러구서는 이렇구서.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보면 그 요만한 구녁을 뚫어 논 데를 디다보고 그 나무께를 파구 구녁을, 이만한 기둥이죠. 그러구 구녁을 파구 거길 디다보고 산이 뵈요. 그런데 그 저 그걸 여기다 앙구선 맹맹 돌아보믄 그 산이 딱 뵈요. 아 이 집은 이렇게 쳐야 하구 뒤팡을 이렇게 지야지 지금 이렇게 짓, 뒤팡을 지든다 망한다, 이 사람이 이 땅 핸 사람이 이 소 먹이구 돼지 먹이논 거 다 망해 같다. 빛덩어리를(?) 갖다. 그러니깐 너희는 이리 허구 돼지똥물을 이리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리 흘려 보내라. 이렇게 지면 성공한다. 한데, 그 걸 사가지구 뒤지 먹지이두 않구 큰 돈을 벌었대네요, 저 통박키(?) 사람이요. 그렇게서 여기서 저기서 불르러 오라요. (채록자: 지금 그 그러면 산자리두 보시구 뭐 거 병두 고치시구.) 네 이 집, 집터 자리 그거 다 보려 땡겨요. 맨날 나가는 거이 그거 나가는 거예요.

(채록자: 꿈만 꾸시구 인제 그렇게 아주 바싹 말르도록 그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회복되셨는지요?) 그런데 저기 그 다 죽게 되구 2년 반을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래는 걸 먹을 수가 없어서 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무에서 더 좋은 거 없어요. 인삼이 뭐 좋음니까? 무이루다가 살았어요. 무이를 이쁜 걸 요런 걸 맹맹한 거를요 사구 묻었놨다가요, 윁스마는 남의 꽁다리 박은 것두 다 뽑아 와야 돼요. 그걸 먹어야 사니깐요. 꽁대기 박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때 되만 꽁다리 이렇게 나오죠?(청중: 씨 받을라구, 씨. 제보자: 씨 스물라구요(?).) 그 무를 그 뱃겨가지구 고거 요렇게 요렇게 딱 도막을 쳐서 인제 하루 하나래든가 먹는 거루다 요렇게다 해서, 요거 사흘을 먹겠구나 그러구(청중: 하나가지구?). 네. 그렇게 먹구 살다가 인제 과일 있잖아요, 과일. 참이하구 참이하구 저 그 인제 줄요, 굴하구 사, 그 참이하구 그 거루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이 언덕을 삼 년을 못 올라갔어요, 우리 저 부산 그 언덕요. 못 올라갔는데 이 아버이하구 나하구 첨에 시작해서 산 거는 개로기 있잖아요, 개로기요. 더덕걸은 거 있어요. 도라지 말고 인제 (채록자: 잔대.) 더덕말구 (청중: 잔디라구 그러죠. 제보자: 그거이 잔디라구 그러니까요? 채록자: 잔대) 기러기 껍질이 두껍지. 그르구 나면 이게 아무것도 맛대기두 없잖아요. 게 나를 양편쪽에서 인제 업구두 가구 숨차다구 또 놔 두구 이렇게서 언덕에 올라 가서 절에 갈 때는 아버이하구 아들허구 이

렇게 겨드랑이에다 끼구 서로 하 들구 산꼭대기에다 나를 올려 놔요 나를 앉혀 놓구서. 그기다 앉혀 놓구 아들하구 아바이하구는 그 겨루기 기냥 쿵 매요(?). 그래서 이만치 케가 오마는 그걸 죄다 깎어 가지고요 그 삶아 가지고 그 물을 먹구 사는 거예요. 그 물을 먹구 살(채록자: 그러구 회복이 되신 거예요? 제보자: 네. 채록자: 근데 마곡사 가셔서 뭐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셨어요?) 그리니깐 그 때 어느, 마곡사 갔을 때가 은제냐 하마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땐데요, (채록자: 네, 79년요. 제보자: 네) 근데 거이 마곡사를 그렇게 가바라 그래서 가니까는 이렇드라구요. 이렇게 가는데 꿈에 저 백마를 타구 큰 장군복을 입구서 막 오드라구요. 막 뛰오드라구요, 서울서 온다구. 근데 나는 그 물에서 이렇게 시수를 하구 이렇게 보니깐 장군이 백마를 타구 뛰어 오는데 자세좌를 바로 잡으라 그러구 악을 쓰드라구요, 그(채록자: 박정희 대통령이요? 제보자: 아니요, 장군이요.) 그리니엔 그냥 그 신하들이 가서 쭉 서드라구요. 근데 난 시수를 하구 아 저기 뭣 때문에 이렇게 저 장군이 말을 타구 뛰오난나, 그러구서 시수를 빡빡하구 인제 대법사를 들어간다 하구 들어가다가 깨구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데 쿨쿨이 이것저것을 다 그렇게 알려주드라구요 그런데 거지 어디 마곡사에 가가지고 일단 쌀을 닷 되만 가지구 끌구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쌀루다가 치성 점 받치만 어떻습니까 그리니까는 한 가마 치성을 바치야지 고거 가지군 염도 못 현대요 한 가마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니까는 대법사에 갖다 놔야 합니다 그러드라구요. 그리니깐 쌀은 일단 거기다 놓구선 그 절을 이렇게 아래 웃절이 이렇게 일굽개가 있던 걸요 탁 꼭대기 먼저 이렇게 쪼그만 데를 올라가니까는 요렇게 스님 기세요 그르만 문을 요렇게 열어 보는데 꼭 삼십 살 먹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게 지주 스님 밑에 공부를 허나 봐요 신발 하나에다 요만한 책상, 나무께루 짠 거 하나에다 책 하나 놓구 공부허드라구요 그래서 스님 저 좀 말은 할 줄 모르나 말 좀 물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니깐 왜 그러시죠, 나오면서 그더라구. 그래서 마곡사에 내가 완전히 내가 꿈을 꾼 거는 이 게 법당이 이렇게 안 앉어야 할 건데 앉았습니다 그리는 거야, 글쎄. 응. 그러니 글쎄 말두 할 줄두 몰르면서 법당은 이렇게 앉지 말아야 할 텐데 앉었습니다 헌엔, 그럼 보살님 어떻게 앉아야지요 그래

요. 그래서 여기 보니깐 남향으로 앉았습니다. 대법당이 어딥니까 근젠 대법당이 이렇게 앉았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대법당이 이렇게 앉는 게 아닙니다. 대법당이 잘못 앉았습니다 그려는 거야 글쎄. (채록자: 그냥 말이 나오는 거군요.) 세수허구 쌀 갖다 놔두고 꽁대기 질 꼭대기 올라가서 꼭대기가 질 높으거니 허구 갔지, 그런데이 그거이 아니구 그 아래 큰 대법사가 있드라구. 근데 거기서 법당이 이렇게 안 앉을 테 법당이 잘못 앉았습니다, 스님 그려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그 저 스님이 보살님 대법당에루 내려가 보세요 그러드라구. 그래서 왜요? 대법당이 잘못 앉았는데요 그러니까엔 내려가서 보구 말씀허세요 그러드라구. 그래서 음 저 아래 가자 그러드라구. 그래서 그 사람이 앞장 서구 대법사루 내려 가니엔 법당은 남향으로 이렇게 졌을망정 이 대법, 그 불상, 이게 부처님이 아주 취기두 되는데 그 양반이 동향으로 앉었드라구. 아이 그 때 내가 절을 허구 억제 일치적으로 집두 그렇게 앉혀야 되두, 그렇게 부처님은 바루 앉으셔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구 이 거 집을 이렇게 지어서 좀 마음이 편안칠 않은데 이렇게 이 부처님은 이렇게 앉었으니 고맙습니다 그러구 절을 허는 거야. 그러니까 히이가 이상허단 말이지, 날더러. 그래 갖구 거기서 또 내가 허는 말이 백마장군이 자세를 잡아야지 바, 자루 못 잡으믄 다 모가지 쳐야 된다 그러구 웅데는(?) 그란께는 저기 오시다가 저전짝으로 오셨습니까 이리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리, 바리 이렇게 왔습니다 한겐, 저리 큰 문으로 들어가셔서 조기 어드메래 이렇게 오셔야죠 그래. 거기를, 그러만요 그러닌겐, 거기가 그 백마장군이 기십니다 그래요. 갔다 오시구 말씀을 허시죠 그래. 그래서 그 양반 거기 있구 나는 거기 계속 내려가야 돼. 게 내려가서 후루루 밑에 가서 고기 가보랜, 가보래니엔 기냥, 아주 큰 백말, 그 저기가 있어 가지구 저기가 딱 들어 앉았는데 기냥, 뭐 술 먹은 사람은 뭐, 술장사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뛴띠려서 해 놓구, 또 뭐 그 잘못헌 거 무덩은, 또 이렇게 그냥 응 무덩은 그냥 옆어 놓구 이렇게 다 발루다 밟구 있더라구요, 그 백말, 장군, 저그 해서 말이요, 백말. 아 그러구서 에 그 때는 가서 내가 내, 지가 순서를 잘못 드루 왔죠 그러구선 이렇게 인사를 하구 나를 자세를 얼굴을 볼래믄 거기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우 거기서 마리 말씀허시지 저리 들어가시죠, 천불사가 기신 데 가서 당신 찾아보만 됩니다 허드라고. 그

래서 또 내려가서 천불사, 불사가 천개가 있더라구요, 거기서 나이를 이렇게 대래요. 그래가 보니까 내가, 내가 생긴 얼굴이 있구, 우리 아빠 나이를 대니엔 그게 나오드라구요, 얼굴이. (청중: 천불사에 끼어 있어? 제보자: 네.) 거기서 나, 꿈대로 가, 그거는 물어본 거지요, 내가요. (청중: 실지로 물어본 거고? 제보자: 그렇, 그이 실지루 그 꿈을 꾼대로 가서 물어보는 거지요. 청중: 아아. 제보자: 내가 꿈을 꿼으니께는 그런 가서 죄 그렇게 명을 물어보는 거야.) 그리구 순서에 일, 일곱 개중안에 일곱 개중안에 인제 대법사가 여기 있으니께는 기 중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구 그 이 이 물을 건너서 상탕, 하탕이 들어가는데 상탕, 하탕이 어딥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저리 오셔서 그 강을 건너서 왔잖습니까. 그 다리가 요렇게 있더라구. 고 강 건너 오는데 고거이 하탕으로 씁니다, 그 물이요 그 물이 흘가는 물이죠, 좀 깨끗합니까, 그 물이 하탕으로 씁니다 그래 갖구 이리 들와가지구 인제 저 사무실 옆으로 가면 중탕이 있어서 중탕에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구 고리 들와서 인제 상탕으로 들어갑니다 하구 딱 알켜주드라구요. 그래갖구선 그날은 거기서 그렇게서 얹었는데 저는 그거 쌀을 갖다가 다라이에다가 닷 되를 갖다가 그 대법사에다 놓구선 절을 허구 선 해가 저물어가가지구 묵어 가까요 그러니까엔, 아이 얼마든지 묵어가시라 그러드라구. 그래서 그 식모하구 같이 이렇게 묵었는데 그러구나서 그 날 꿈을 이렇게 밤에 자구 새벽에 시 시에 딱 일어나니엔 일곱 살, 여덟 살 먹은 그 인제 상좌중이요 종을 탁 치드라구요 내 처량하구 그걸 볼 때 아주 처량하게 그 인제 상좌중, 조끄만 중이 탁 치드라구요 여기서 먼저 치면 저기 치구 저기 치구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그 상좌중더러 저는 대법사에 기도 좀 드리구 갔으면 좋았는데 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갔지요 물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헌데, 우람우람하게 무섭지요, 뭐 그 속안에 들어가면은요 생전, 우리요 친정 아버지는요 개벽, 왜정 때 개벽 그렇게 해서 천도교인이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몰르다 이거를 꿈꾸고 쳐드가는데 아주 우람우람하게 그 넓은 데가 무선 사람들 많구, 그럼요, 근데 내가 여기를 온 이상에 꿈으로 온 이상에 이거를 들어가야 한다 허구 대법사를 탁 들어가시, 들어가야지 마음을 잔뜩 먹구 들어가는데 상좌중이 요렇게 불을 탁 주드라구요, 쪼그만 (청취불능) 들어요. 그래서 대번 들어가서 무조건 가서, 옛

날 그 이백 년 전에 살(?)자리래요. 살자리 깔아 있어요. 이렇게 살자리루다 거냥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 끓구 옆더서 그냥 대법사에 앉아서 저는 이렇게 대법사님을 그저 무조깐 꿈에 뵈오가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오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깐은, 그렇게 옆던데 한참 있다가 옆더서 눈감고 옆덮다가 기도를 허고 뒤를 돌아보니Ken 한 오십 명, 육십 명이 쭈루룩 앉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루 온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낮에 갔을 땐 읊는데. 아주 그냥 꼭 찾드라구요, 문턱까지요(청중: 스님들이? 제보자: 스님이나 인제 아주 전부 기두하는 사람들이요 청중: 어). 아이 그래서 나는 기냥 눈을 감구 후찌(?) 아무데도 안 보구 눈을 감구 옆드려서 기두했는데, 얼마나 기두하구 그러구선 그냥 무릎을 끓구 꾸 끓어 쪽구 끓구선 요력허구 앉아서 그냥 꼭 옆더서 요거는 요력코서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가 허께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나갔지 그랬어요. 아주 소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인제 돌아보니까는 전부 들우만 잠자코 허께 그냥 수문없이 들와서 기돌해서 보니까는 사오십 명이 넘었드라구요. 근데 거이 대법사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 탁 이렇게 허구나서 또 그 저기 지, 지주 스님들, 뭐 서기가 및씩 되드라구요. 예 아주 그냥 둘러보니까는 그냥. 그리구 왔는데 그 날 묵어 왔는데, 가가주고선 내가 꼬추두 쓸어서, 착착 쓸어서, 거기는 파를 안 머어요. 인제 꼬추를 쓸어서 양념을 허구 다 허는데, 고른 글 허구 오이를 전부 씨를 갈라서 거를 상차를 다 해 놓고 인제 남은 꼬추는 뜯어서 나물두 해 놓구 다 그렇게 해 놓으니깐요, 그 지주스님까지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허드라구요. 보살님 어디서 오셨는지 아주 손이 영글, 영그신데 더 묵어 가시믄 안 됩니까 허드라구. 그래서 애들 있구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룻밤을 더 묵었어요. 그리고 죄 놓구 오이 따다가 짠물김치두, 인제 오이지두 둥메루다가 콕 다시 눌너 놓구, 아주 죄 주고 왔어요, 여 인제 식모는 둘이네. 그랬더니 그냥 못 가게 현데, 그냥 비가 댁줄기처럼 이렇게 내려 쏟아지더 라구요, 비가요. 그런데 그냥 비가 오구 그렇게 개가지고 그 이튿날, 이틀밤을 탁 자구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인사하구 간다 허구 나오는데, 저기 그 보초서는 데가 있어요. 그 인제 그 절에 들어가는, 이제 보초 그 서, 그 저 절에서 나오는 보초서는 데. 그 인제 식당에서 무슨 관리하는 사람요, 높은 사람요. 스님, 저는 바쁜 시간안에 인제 보살님을 여기를 만나러 나왔습니

다 이리드라구요. 근엔 저는 무슨 말씀을 들을랴구 그러니구 그러닌겐 스님, 나는 아니 보살님 나는 잘 봤습니다 그러드라구. 그러더니 딱 보초 양편짝에 서는데 탁 이렇게 해갓구 저거 허더니 나의 갈 길은 뭐네는 거예요. 날 더러 갈 길을 내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는 저지허지를 않아요. 딱 내가 말하길 지금 이렇게 절에를 들우셨으니 어띠합니까 여기서 그런 법도는 가르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께는, 법도를 어기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깐 내주세요 그러드라고. 그러니께 사가에 나가셔서 한 한 날을 기시다 들와야 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기 그냥 이렇게 묻는 말에. 근께 사가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겐 돼지고기와 비계를 많이 먹으래는 거예요, 글쎄. 아 글쎄 중들 하구두 높은 사람들, 그 말허니 내가, 말이 안 되요? 아주 그냥 그걸 묻는데? 그거를 한 달을 복용, 복용을 허시구, 그러니깐 절에는 못 있구 허십니다. 나가서 그럭 허셔야 그거를 이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깐, (청중: 그게 나두 몰르게 그렇게 말이 나온 거야? 제보자: 그렇죠. 난 첨엔 그렇겠어요.) 그랬는데 용사세요, 내가 말핸 걸 용사세요, 절에 뭐 옛날서부터 중두 새우젓을 먹니, 중두 새우젓을 먹니 그런대는데 고기꺼지 먹으라 그랬으니 내가 죄를 지구 가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허니께는, 이 양반이요 딱 불잡구서 보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드라구요. 근데 쫓아오면서 얘기가 자기는, 그 때 시방 결핵이 무섭지 안잖아요, 자기는 결핵 3기가 올라 갔대는 거죠 그래서 절에 들오나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이 그렇게 암만 기도를 허고 그렇게 해도 낫지를 않는대는 거야. 사가로 떠나서 고기를 먹게 그러나(?) 반드시 보살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드라고. 누가 병이 있는지 뭔 줄 알어? 이틀밤 자구 잠깐에 그거 갔다 오는 사람 델구선, 죄를 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구 자꾸만 이렇게 오는데, 아니예요 그러구 잡드라구. 그러더니 꼭 그럭해야 씁니까, 그래야 납니까 그러니께 그게 납니다 그러는 거야, 글쎄.

아 그리구서는 거기서 오나서 빼스를 타구서 서울까짓 오는 빼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메냐 하믄 지금 용산요, 용산 오나서 됐어요. 그런데 오는데 그냥 이놈으 건 노자돈을 주먹에다 쥐구 잠에, 잠에 깊이 들어가지구 천지강산에 저건데,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차가 기냥 돌자갈로 그냥 길을 새로 이렇게 뾰꾸레이로 판 거데서 막 혼들리구 이런데두 사람들이 우습다구 고

개를 이렇게 들어놔두 모르구 이렇게 들어놔두 몰르드래요(잠들어가자구? 제보자: 예). 근데 깨두 그려드래요, 그냥. 아주 몰르드래, 아무것두 몰르드래.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루, 그냥 끌려오드래. 그래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주먹에 쥐구 오는 사람이, 이 돈 쥐고 온 것도 옆에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갔어요, 텅년이요. 그리고선 서울에 용산까지 도착했는데 아주 희한하게 대낮에 그런 꿈을 꾸구 왔어요. 꾸구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꿈을 꿼어요. 그 꿈에서 혀어나질 못했는데 그랬는데, 딱 허니 이렇게 집으로 와 가지구 치동제 있잖아요, 저거, 치동제, 저기, 저기(치동제가 아니라 기동대.) 대진 공업사, 대진 공업사, 그 경찰소 옆에 사. 그 사람네를 딱 갔어요. 그 사람네를 딱 갔는데 이 양산면 면장인지 누구누구 오나서 이렇게 싯이 앉았는데, 아유 나는 지금 오는데 이상한 꿈을 꿼어요 그랬다구요, 가서. 그러니엔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려드라구, 그래서 내가 글쎄 하냥 금새가, 하늘루 금새가 펴져서 하늘루 하늘루 날라 가는데 그냥 이 구름이 전부다가 빨갛구 노랗구 그런 구름이 그냥 막 뭉개뭉개뭉개뭉개뭉개 올라가는데 그냥 금새가 그렇게 날라요, 새가 그께. 근엔 그 빨간 구름에 이제 노란 구름에 이렇게 해서 그 새가 그 비쳐서 그렇게 날라 가더라구요. 그냥 하늘은 지동하고 그냥 뭉개뭉개 그냥 이 구름두 날라가는데 그냥 아주 아찔하니 사람들이 산으로만 산으로만 올라가는데 피난가는 거 모냥 사람이 집이는 안 있구 전부 다 꽃을요 화병에다 이렇게 담아가자구 요리허구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주 골짜기나 뭐나 한데 꼭 찼어요. 요렇게 꽃을 요렇게 안구 올라가드라구요, 한없이. 그래서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깐은 그 치동제가 나라가 뒤집힐 건가, 왜 그런 꿈을 꾸었, 꾸었냐구 그래요. 그래 내 말이 아이 그런 소리허지 마라, 게 박정희 대통령 짹인데 얼마나 무서와요. 아이 그 그 꿈 얘기 허니까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깐은, 자점이 꿈 꾸는 거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애, 그러니까 자꾸 보통이 아닌 것 같애,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뭐이가 보통이 아녜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구서 오다가 아 마음이 그냥 이렇게 미칠 것 같애요. 오다가 아는 아주머이들을, 우리집이 들오기 전에 아는 아주머이가 우리 동네 있어, 아줌마 난 이러저러해서 꿈을 꾸구 하는데 어쩌면 아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냥 세상이 기지개하구 이러더니 이걸 어떻게 했

겠니. 왜? 그래서 그런 꿈 애길 했더니, 야 그런 꿈은 대통령 죽을 거야 또 그래드라구. 또 그랜 게 내가 기간 언 그 소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두 못허겄네. 이리구 동네를 그러구 왔는데, 떡 허니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는 치동체루 당장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줌니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무식, (청취불능)나 세력이 있기까 무이 있시까. 그런 꿈을 꼈으면 관가에라도 어디다가 하는 모두 미친 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니 제대로 들어 갔습니까 하면서 그러드라구. 그리구나서 그렇게 꽃이 그래 그냥 군청으로 그냥 나라면으로 가고 서울루 가고 그러드라구요. 이 사람들이, 동네 아주머이들이요 거이 내 이 해석이 맞었지, 내 해석이 맞었지, 전부 그러는 거야, 아주머이들이. 그래서 그래두 아 꿈얘기는 여기 비치지두 말라구 내가 그랬다구요, 꿈얘기는 비치지 말라구. 그럭해서 오늘날까지 이력해서 꿈을 미리 인제 주면 산자리를 내일 보러 그러구들 와요.

신내린 이야기

제보자: 정정혜(68)

채록자: 서대석, 이민희, 곽지윤, 엄윤주, 서보영

채록일: 4. 29.

(채록자: 그 저기 처음에 왜 그 신 모실 적에요, 그 이 신병이라 그래가지고 좀 편찮고 그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그 얘기 좀 해줄 수 …….) 네, 신병이래는 거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저는 이거 지금 저기 이렇지만 열 살 먹든 해에 정월 초 여드레날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세요. 돌아가셔 가지고 인제 정월 열 엿세 날루 으 저 청량리 부황동이라는 데 남의 숭딸루 보내주시드라구요. (채록자: 예.) 숭딸루 보내주셔 가지구 거기서 있다가 남의 숭딸이, 남의 부모가 곁에 가서 있는 거이가 그래 싫더라구요. 남의 슈엉딸이다 그 소리가, 우리 어머, 어머니 돌아가신 것두 억울한데 남이 인제 엄마들아, 엄마라는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드라구요, 우리 엄마 생각만 나구. 그래 갖구 인제 뛰쳐 나와가지구 인제 저기 뭐야 서울, 저기 뭐

야 거기가 아현이든가 거기 인제 부황쪽에 뭐야 그 군자역(?)에 갔어요, (청취불능)주식회사에. 거기 들어갔다가 열 네 살 먹든 해에 나와 가지구, 나와 가지구서는 우리 아부지가 어무이가 돌아가셨으니까는 훗어른 두실 거 아니예요 두는데 너 남의 부모 손에 있으니 민며느리으로 시집을 보낸다고 열 다섯 살에 절 민며느리루다가 애 양도면 능내리루다가 광산 김씨네다가(채록자: 예.) 예 저를 민며느리로 보내주셨어요(채록자: 예). 그래 가지구 열 여섯 살에 결혼을 해 가지구 살니까, 먹구 살거이가 없으니까 뭐 말이 아니죠 우리 아부지가 너 시집 못 살구 나오만 너하구 나하구 가(청취불능) 있어요. (청취불능)에 나가서 (청취불능) 있었거든. 거 앉아 죽자. 너 죽구 나 죽으마는 세상은 끝나는 거다. 그니깐 그 살기(사이)에 제가 죽어 두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살다가 지가 열 여덟부텀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 까(?) 먹구 살아야 돼니까요. 그래 가지구 허다가, 이 만신의 세계는 저는 아주 애에부텀 적극적 그게 싫었드랬어요. 저기 만신들이 오마는요 아이 저기 무덩 와 이력허구 소래길이라두 논두렁을 (청취불능)어라두 그 사람들하구는 마주치, 마주치지를 않았던 사람이예요, 지가. 그래 가지구서는 열 아홉에 (우리 큰 아들, 큰 며느리입니다. 인사드려, 서울에서 온) 그래 가지구성은 열 여덟, 열 아홉에 가선 지가 인제 아들 낳구 6.25 나가지구 피난 나갔다 들어와 가지구 먹구 사는 데만 아주 인제 그래 가지구 장사만 했었어요. 장살 인제, 저 솔직히 말해서 뺑을 십 년을 했습니다. 뺑 장사를, 군뺑 장사를. 장마다 강화 장돌백이(?) 뺑기면서 장마다 빼니면서 십 년을 먹구, 세상 안 해본 장사가 없었어요. 먹구사는 거만, 우리 아부지가 너 죽고 나 죽자, 너 못살구 나오만 너 하나하구 나하구 둘이 끝나믄 된다 이 소리에 십 년을 못가는 거예요, 어렵다 소리 못허구. 우리 아부지가 부자라구 속여서 보냈는데, 느이 농사 마이 졌냐? 네. 우리 아부지가 와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네, 백 몇 가마 났냐, 했냐 나는 백 몇 한 가만지 쉬 보지 않아서 몰라요. 먹을 거 아무거두 없는데두 가서 아버지 편안하게 해 드릴래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해 드려야죠. 그래 가지구성은 살다가 인제는 장에 너무 땅기는 게 지겨우니까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길에다가, 길섶에다가 구멍가게, 남이 집을 읊어가지구 고기다 달아가지구, 우리 바깥 양반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고기다 달아가지구 구멍가게 하나 내 가지구 인제 담배가게 내구 인제 그러구

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나는 그 옆에서 빵 굽구, 우리 시동생이 불구자예요.
 (채록자: 예.) 예 불구자니깐 우리 시동생이 인제 고길 해서 구멍가게 들와
 서 거길 나는 빵을 굽구, 인제 이력허겄다 했는데, 그 서른 지금 서른 니살,
 서른 다섯 살 먹든 해에, 네 살 먹든 해 설달 초엿새 날 우리 시누님네가
 굿을 핸디구 오라 그르시드라구요 그래서 나는 굿하는 데는 싫다, 그러니
 깐 우리 시누이 냄편이요 와서 아주 애원을 해요 우리가 육고간을 허구 응
 저 지점을 허는데 누가 아무도 불 가서 일헐 사람이 없으니까는 아지매 나
 살려주는 여자(?)로 와서 일 좀 해달라구 그랬는데, 거길 가서 저 선원면
 리를 가서 일을 허는데, 아 만신들이 굿하다 말구 뛰어내리면서 우리 시아
 벼지 조상이 오셨다구 나를 어루만지면서 불가서 일허는데 끌구 들어가요.
 가뜩 만신들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자두 아니구 남자 박수가 인천서 왔대
 는데 짚은 사람이, 나는 그때만 해두 나는 짚었는데 나를 와서 어루만지는
 게가 쟁피스럽드라구요 그러니까는 그냥 부엌이 있는데, 큰 시어머니, 시이
 모님들 인제 모두 다 가셨구 우리 바깥 양반두 가서 계시는데 지점을 허구
 그런 짐이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시골서. 에 굿힌다 허니깐
 그냥 돼지 잡아 허니까 사람이 많으니, 많은데 그 중에서 부엌에 있는 사람
 을 끌어다 나를 어루만지니까 그러니까 그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올구 앉았으니까 우리 큰시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그러셔요.
 아이 저 사람들 왜 일허만 허지 왜 불엘 나와서 날 이렇게 망신스럽게 자꾸
 그냥 그냥 그러느냐구.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홀딱 벗어던지구 난 죽어두
 못허갔다구. 그러더니 또 딴 할머니가 허시드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큰시누
 님두 계시구 작은 진두, 인제 우리 시누이두 있구 그랬는데 자꾸 그냥 그리
 드라구요. 근데 그거이 싫어가지구 아이 밤으로 집으로 오까, 근데 멀어서
 거기서 한 삼십 리가 되니 갈 수두 없구 그래 가지구 그냥 있는데 밤 열 두
 시가 넘으니까 자꾸 구역질이 나드라구요 그러니까 연탄 깨스 맡아서, 연
 탄불이래는 거 생전두 몰르다 거가서 연탄 거기서 자꾸 일을 해서 연탄 깨
 스를 막아서, 먹어서 그렇디구 동치미국물덜만 퍼다주시드라구요. 그래가지
 구 밝으니까 그거구 싫구, 그것두 싫구 저것두 싫구 그냥 집이 가지구 그냥
 그래 가지군 집이 나와 가지군, 이 그니깐 설달 초엿새 날 드러누은 것이
 그냥 집이 들우만 드러누어 가지구 못 일어나이 정월 초일날꺼정. 그래서

지가 정월 초일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구 그냥 하두 그래니깐 우리 시누이 남편이 돈을 대줘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집이 왔다 병 나셨으니까 이제 굿하는 걸 비용을 (청취불능)님이 다 맨 거예요. 우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 가지구 내가 원래 싫어허니까 집이서 떡방아두 못 뺏구 딴 데 가서 뺏 가주와선. 내 이 하체를 못 썼어요 밭이 이거이 오그라 들어가지구, 안아 일으키구 안아 덜이놓구. 그거이 멀쩡현데 이 밭이 이게 폐지지를 않는 거예요. (채록자: 거 앗을뱅이 병이 걸리시 (청취불능)네요.) 그렇죠 요 기가 그냥 요길 텁으로다 쓸어가지구 빽빽 굽는 것 같애요, 이 뱃속을. 너무 아프니깐 그냥 병원에 댕겨두 안 낫구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들 그냥 의논들 허셔 가지구 거길 갔다가 그 때 무슨 아마 살을 맞았나 부다. 그러니까 굿을 그러니깐 한다. 근데 집 걸러서 박수가 살았더요. 유이(의?)식씨 라구. 그런데도 그 대문턱을 안 가봤어요, 저는. 그거이가 싫어가지구. 으그랬는데 이제 와서 굿을 한다구 이제 별안간에 두구두구 그냥 바깥에서 소리가 나더니 만신들이 왔더라구요. 아 이거 뭐냐구 말이야, 정신은 말짱 허니까, 이거 뭐냐구, 저 양반들이 왜 오냐구. 그러니까는 고 동네 참 교회 잘 댕기시는 분이 나하구 아주 친형제모냥 지냈어요. 아이 병균어머니 저기 저 왔어, 왜 왔어 그레니깐 아이 나두 모르갔네 아이 펜찮아 가만 있어 그래구서는날 머리를 쥐구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구성은 있는데 굿을 한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냥 막 울었죠 굿을 뭘가지구 허냐, 애들하구 먹구 살 기두 어려운데 왜 굿을 허냐 말이야 내가 굿 해 달라구 그랬냐구 그러니깐, 그 때 우리 시누이 남편이 들우셔 가지구서 두 손을 꼭 붙잡구 울면서 개성서 피난 나오셨거요. 나는 아주머이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길이지 아주머이가 이렇게 들어누웠으면 나는 뭐가 되냐, 우리 집에 왔다가 병이 났는데. 그래 가지구 굿을 했어요. 굿허구 나니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석 달 스무 달씩 그냥 굿을 허는데. 죽는 걸 왜 허냐구요. 그런데 그 그 사람들 들우기 전에만해두 아파서 일어만 못 났지 그렇게 몹시 고통은 안 받았거든요. 굿을 허구 나니, 굿허구 나서 아침에 보따리들 싸가지구 가는데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수 불렀죠. 아주머니라 그랬거든요. 아주머니 이리 좀 들오시라구. 일어는 못 나두 들어 누워 가지구 그러니깐 우리 바깥 양반이 나가더니 들우셨어요. 불라 가지구 오셔가지구 이력허구 앉으셔서 고개만 빼

딱빼딱해요. 그래서 나 아주머니 어저께 허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날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왜 했냐, 어저께는 그래두 내가 이렇게 아파두 이렇게 껴정은 고통은 안 받았는데 허구 나서 나 더 죽갔으니까 이걸나 아주 고쳐 놓고 가라 허구, 여기 들울 때는 마음대로 들왔지만 같 때는 못 간다고 지랄했어요. 응 나 살려 놓구 가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참 희한하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없대는 거죠. 죽는다군 했잖냐구, 어제 그 소리 들었다구, 죽는다구 했으니까 나는 죽을 거니까 왜 그거를 허구서 죽을 거를 왜 했나. 그러니까 이 양반두 곤란하죠 그러니깐은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에 우리 이모님이 인천 인제 저 거기가 수도국산에 우리 인제 이종사춘이 신을 받았어요, 팔월 달에.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 이모가 가자 그래 가지구 그래두 우리 혈육이래니까 거길 쫓아갔드랬어요. 갔는데 그 신어머니 이래는 분이, 지금 인제 신어머니래는 걸 알지 그 맨 신어머니두 모르죠 날더러 재검을 하나 해다 주라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내가 해다드리리다 허구성은 왔는데 농사 쪘서 장리하구 뭐 하구 다 주고 나니까 우리 베피 한 가마 가지구 들어왔는데 뭘루다 해서 그 재검을 해다 줘요. 그러니까 그 걸 못 해다 줬는데 그 때는 그 생각이 부뜩 나더라구, 아 내가 죄를 받아서, 인제 지금 벌이래는 걸 모르구 죄를 받아서 내가 이런가 하구 이 양반한테 그런 얘길 했어요. 그러니깐은 이 냥반이 그러면 그걸 해다 줘라. 그러니까 우리 바깥양반이 언제 해다 줘야 되냐 물으니깐 저기 뭐냐 정월 초이래 날 해다 주라 그러시드라구. 초이례날이든 우리 친정어머니 지삿날인데 그런 걸 해다 줘가지구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깐 그런 얘길 허니깐은 그러면은 초여드레 날 해다 줘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돈이 없으니깐 우리 이모님네, 저 하도 창완이라는 딸 사시는데, 우리 이모낼 가셔서 그런 얘길 허니까 우리 이모가 응 나 조카딸 하난데, 우리 이모님이 진짜 우리 오빠, 인천 강창길씨이래는 그 오빠를 열 여덟 살에 낳셔가지구 그냥 홀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물, 스물 한 살 재가를 허셨어요, 저 창완에루다가. 근데 거 가서 손을 못 낳신 거예요. 그러니깐은 그 집두 낳던 집인데두 손을 못 보니깐 딸이래는 건 나 하나죠, 조카딸이래 두. 그러니까 이모가 까짓거 내가 돈 내서 물어 가나구. 인천, 날 황준병원에다가 갖다가 입원시키구, 거길 또 그걸 해 가지구 갔었나봐요. 그러니까

은 거기서 굿을 잘못했다, 웅 굿을 잘못했다 그러니깐 우리 이모가 까짓거
그러믄 해라. 내가 또 거기서 아흐례를 거기서 굿을 허는 거예요. 게 굿헌
다구 날 데리가믄 내가 안 가갔으니까 거기서 뭐 좀 얘기힐 말 있다구 날
좀 데려 오랜다구. 그레가지구 택시를 타구서 가니깐 굿을 차려 놨더라구요.
그러니깐 난 얘기 날 때 심들, 인제 부축을 해서 업구 들어갔는데, 요 방은
요렇게 쪼그만데 우에다가 지금 범당을다 할아버지 모셨드라구. 근데 아랫
목에다 날 덜이넣는데, 치다 보니깐 얘기낳다 꼭 심이 쥐이지는 거마냥 칵
심이 쥐이져요. 심이 쥐이겼으니까는, 나는 심이 쥐이져서 심을 줬는데 보
는 사람은 내가 죽을려구 기쓰는 거가 됐지요, 인제. 죽을려구 인제 기쓰는
거이가 됐지요. 그랬는데 우리 바깥양반더러 가지구 가지구 그냥 여길 그냥
꼬집어두 안 듣구 안 들드리구요. 가만히만 있으라구 있으라구. 이러구 우
리 바깥양반 말씀이 나는 그걸 몰랐지만 내가 인제 죽었다 펴났다 죽었다
펴났다 인제 그려드래는 거죠. 그려구성은 거기서 허는데 가만히 들어누워
서 이렇게 받다 보니깐 꽃에다 쌀이 짹쫙 끼얹혀지드라구요. 꽃, 꽃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쌀이 끼얹혀져지길래 불러 가지구,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
두 허지 말구 저 꽃에를 가봐라, 저거 쌀이 막 끼얹혀진다. 그러니까는 가
보더니 여기서 해서 들온다구 뭐 밥해서 그거 붙이구 현대는 거만요. 우리
바깥양반 여기를 물었어요. 시간은 보니까 시간은 벌써 막배가, 그 전에 강
화 옌보도로다 냉겼거든요. 막배가 떨어지면 모두가두 못할 턴데 병원에서
퇴원도 안 한 상태에 그냥 집에 가자 그냥 여길 막 물었어, 아주 그냥. 뭐
심이 쥐지는데 도대체 감당을 못허겄더라구요. 그래두 이 신에 대해서는 아
주 천혀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막차를 타구 오니깐 송동을 건너
오니, 그 송동을 와서 배, 배를 탈려 그러는데 서해가 내리 밀려 가지구 옌
보도로다 뾰쓰가 못 가니까 사람을 내려서 가라 그려드라구요. 그래 가지구
성은 내려서 눈인테 어떻게 업구 있는 것두 한 두 참이지 갖구재 다리 고거
건너오는, 강 건너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업구 있는데 그니깐 못
업구 인제 한참 있는데, 그래두 구인을 만난다구 그 때 당시 우리 바깥양반
이 저 창고허구 정미소 설비 그런 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
형제를 해 가지구 그 양반들이 정미소 그 승강기 짜 달라고 우리 바깥양반
을 처남매부가 데릴라구 오는 도중에 그 옌보도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그래두 우리 바깥양반허구 의형제현 사람은 오바를 벗어서 눈 우에다 땅에다 깔구 처남 꺼 내께다 이렇게 덮어주구 옌보도에서 이렇게 있는데, 옌보도가 딱 이렇게 돌아서니깐요 산봉오리가 보이더라구요. 그래두 그 때는 무슨 산인 줄두 몰랐죠 지금은 보니까 갖구재 만수당이예요 예, 그 때는 만수당이 뭔지두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서니까 막 혼들려요 혼들려도 추워서 혼들리는 건 줄만 알았지 신해서 혼들리는 데는 건 전혀 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타구 눌르는 거죠 그냥 떨구 있으니까. 그래 가지구서는 와가지구 막 차루다 나왔는데 그 유이식씨래는 양반이 차에서, 아 기현 엄마는 어떻게 됐어. 우리 큰 아들 이름이 기현이 거든요 기현 어무이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 바깥양반이 여겼다 그러니까 아 참 거 클났는 걸, 이리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곁에 와 손이라두 만졌으면 살 거 걸애요, 그 때 당시에. 그래 가지구성은 집이가 우리 마당 길섶인데 우리 차 종점 인제 내리는 인제 정류장에 요기가. 그래 내렸는데 찬등에 우리 바깥양반 엄혀 들어가면서 영훈네 아버지 좀 집이 좀 들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잠자쿠 안에 들어가서 덜이뉘드라구요. 영훈네 아버지 좀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려나구 그려나기는, 그 양반은 저 삼성리루 굿허루 간다구 내렸다구 이러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울구성은 그 날, 그 날 그 때 당시에 두 내가 신 받을 걸 몰르니깐 나하구 그 친절한 양반, 교회 지금 혼산가 그렇게 돼요 그 양반더러 (청취불능) 불러다 나 좀 살려 달라구, 그 때는. 그러니까 가더니 영 고만이예요, 안 와요. 그러니까 게 지금 (청취불능) 어머니더러오랬는데 안 오네니깐 아 당신 죽으만 그냥 죽었지 그거는 싫다. 우리 바깥 양반이 죽으만 그냥 죽지 그거는 싫다 이리드라구요 그런데 그 이튿날 자구 나니깐 정혁현 아주 열 시예요, 시계를 치다 보니까 열 신데. 집 안에서 그냥 병원에 갔다가 금방 뒤둘러 왔으니깐, 모두 정월이니깐 먹을 거를 가져 오는데 내가 먹나요 먹는 거래는 건 국수 한 봉 가지구 삼분에 일두 못 먹구 한 달리이래는 세월을 냉겼는데. 누구든지 못 먹었냐는 소리 만 안하만 그 길에 참 이쁘구 고마워요. 먹었냐 허만 싶구. 그러더니 그냥 손뼉을 치구 나선거예요, 그 길에. 그래가지구 그 유이식씨네 뛰들어간거예요, 이 다, 나두 몰르게. 바람에 불려가는 것 같애요. 뭐이가 뛰미는 것처럼.

그래가지구 들어가자구성은 거기서 그냥 들어, 그간 막 굿허구 와가지고 정월이니깐 박수는 거기서 손님들받고, 무꾸리꾼들이 많이 왔으니깐. 만신 들 가는 걸 그냥 가방을 그냥 뺏어서 그냥 던지니깐 마루, 저 뒤주 밑구녕 으로 들어가드라구요. 그래 내가 그냥 전안에 들어가서 뛰니깐 그 양반들이 장구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두 몰르게 인제 됐는데 유이식씨 그 박수가 들오니깐 나두 몰르게 머리를 그냥 확 잡어, 뭐 이랴 그러는데 확 잡어 가지구 땅에다 끓어 놓구, 이놈아 날 몰르냐 말이야, 나 조장군님이시다, 니가 이놈아 물론다 그러구 날 몰라 보구 이놈아 그러냐구 그냥, 그 때 그냥 막 내리 밟는 거예요, 남자를 밟을 수가 있느냐구요, 예. 그러니까 그 때 잘못 했다구 비니깐 그 때는 신이 내렸는데 또 마찬가지죠, 드러누워 가지고 일 어나질 못 허는 거예요(채록자: 어, 뭘 적에는 팬찮은데). 그렇죠. 그 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리구 나니깐 그이현테 말하자면 항복을 받은 거죠. 그리 구 나니깐 그리구 절을 허니깐 그 때는 내가 내려 가지군, 그러나 뭐 또 꼼 짹을 못 허는니깐 드러누웠죠. 그랬더니 그 집이 마누라하구 처형허구 아 나 집으로 가갔다 그러니깐 부축을 해가자구성은 인제 그냥 매달려서 나와가 지군 요렇게 디리누이는데 벌떡 그 안동네 육형정이라고 그 집이가 사는데, 거기를 뛰들어가 가지고 내 대신 찾으라구, 대신할머니 달라고 우물을 뻥뻥 도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놓고 어 내가 물에다가 놓면 물에 들어가고 불에 다 놓면 불에 갈 줄 아냐. 이래가지구 거기서 내놓라고 하두 드러니까, 그 집이, 기와집이 육형정의 어머니가 그 땐 절을 허면서 잘못 했다고, 그리구 서 거기서 대신반을 해주시드라구요. 그러니까 대신반이 뭔 줄두 나는 모르 는 거죠. 상에다 그 양반들이 쌀을 놓고 주발에다가 실 한 태하구 숟갈을 꽂아서 주니깐 그걸 이구 나와 가지구 집이서 그냥 서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 땐. 그러니깐 우리 바깥양반은 그 때 또 화가 나니까 그 순간에 인제 유이식씨하구 같이 땅기는 만신네 집에를 쫓아 나가는 거야, 자전거를 타구 서, 길상면 온수리를. 너희가 굿을 잘못 해주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뒤 집어 놨나, 그러니까 살려 놔라, 웅. 그래가자구성은 그 양반을 실구 들우는 데, 그러니까 화도 마니산 나가는 고 삼샌리 길에, 고기 쫌 오니깐 그 가겟 집 할머니가, 아이 기현네 집은 사람들이 팔짜시슷(?) 허게 뛰어 가냐고. 그 러니까 우리 바깥양반이 그 때 에 이제 죽었구나 하구서 그냥 재전거 그냥

던져 버리고 그리구 만신두 거기서 내려 놓구성은 올려 오니깐, 누가 오는 도중에 시골선 좀 저기해요, 조금만 저기하면 사람들이 꽉 모이죠. 그러니깐 뭐 이깐 빼기구 들우와보니깐 내가 그 짓을 허구 있으니깐 들우더니 그냥 웃을 그냥 확 찢어 버리두라구요, 그냥 확 찢어버리드라구요. 그러니깐 나두 몰르게 그냥 뛰어 나가더니 짚을 갖다 한 웅큼 갖다 입에다가 틀어막아 가지고 그래요 우리 바깥양반 입에다가. 그래구 업드려 절허라구. 그런 허구성은 그 이튿날 난리굿해가지구 열 사흘 날서부터 굿대 가지구 냉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 무덩될거라는 소리도 한 마디 못 들어보구 이렇게 되셔요, 난 그거이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신 받을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었어두 들 억울허대는 거예요.

(채록자: 그러면은 그 저기 이 축원하구 뭐 그러는 그 문서는 어떻게 알게 돼셨어요) 어떻게 아르켜주느냐구요? 왜냐 하믄 그렇게 해가지구 또 그 양반들이 정월 열, 열 하룻날 신굿을 해줬는데 내 성에가 차지를 않았어요. 차지를 않아 가지고 밤에 외포리를 뛰어 와 가지고 당에를 올라갔어요. 당에를 올라가지고 이월 그니까 초닷셋날 가 가지고 난 여기서 신굿을 다시 해줘야지 내려가지 안 내려간다. 그리구 그 지금 외포리 당에를 가 앉어서 있으니까 어떻게 그니까 이월 초엿셋날 그 아래서 지금 조화순씨가, 그 어머니가 인제 굿을 차려 가지고 당에 와선 신굿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래 가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불리는 거니까요. 그래두 첨에 신의 신령님은 남들은 뭐 또 잘 들우구 뭐 신령님이 나가구 또 오구서는 아버지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헌데 저는 전혀 그걸 아직꺼정 몰릅니다. 그냥 애에 푸양줘서 내린 그 신령님 그냥 그대로죠.

축원덕담

장소 : 강화읍

제보자: 한춘수(남, 78세)

채록자: 장유정, 송재연, 이윤정, 이영민

채록일: 1999. 4. 29.

-한춘수 옹이 개성의 권본선생이었던 유금덕씨에게 배운 소리다. 소원성 취를 비는 소리로 '고사소리'라고도 한다. 이 소리는 명당풀이 과거풀이 액풀이 삼재풀이 살풀이 비단풀이 농사풀이로 이어지고 있다. 한춘수 할아버지는 이 소리를 짧게 만들어 가지고 대회에 나가셨던 바도 있고, 이 소리로 방송에 출연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다. 한춘수옹을 찾아가서 이 소리를 들려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주로 방송에 나왔던 테잎을 틀어주시고 스스로 고사소리를 녹음하신 것을 재녹음시켜주시면서 부분부분만을 직접 불러주셨다. 고사소리는 한 소절이 끝날때마다 팽가리 장단이 들어간다.

이씨한양에 도읍시에 삼각산이 기복하야
 석벽산 낭맥이 뚝떨어져 정주춤 나진줄제
 고음하게 생겼으니 고매등에다 터를 닦고 강을 둘러대 어보를 짓고
 내고을 밖은 육조로다
 무후황산은 짹도읍시고 왕심산은 정녕되고 후대가로는 백호가 되니
 이씨한양에 홍국하여 오백년 늘여갈때
 건명에도 이택전엔 집안식구가 계신대로 동서사방 출입을 하시면
 선왕살 이미 대퇴하지 선왕살을 불들어 보자
 오다가다가 선왕살 거리거리가 선왕살 구릉구릉이 선왕살
 돌무더기도 선왕살 고개고개가 선왕살 명산봉에도 선왕살 장자봉에도 선
 왕살
 바다를 가며는 삼신살 들로 가며는 들종살 도시로 가며는 교통살
 공원나무에 동태살 스님제상에 수장살 아기를 나며는 삼신살 방신끝에는
 부정살
 도둑이 들며는 돈재살 불이나며는 화재살 동네방네 불안살
 서왕터전을 잡았으니 약한 파장은 자랑없들 대문삼간 접어드니 대문삼간
 에 문장살
 구름 마루에 동풍살 마루대청을 접어드니 마루대청에 성주살 건년방에는
 운종살
 안방 상간 접어드니 아랫목에는 이덕살이요 이벽저벽이 벽화살 내외지간

에는 공방살

대퇴끝에는 넝마살 어떤 나무에 걸렸나 대춧전 영감마마 입으시다 걸어
둔 바지저고리 고급양복

오험령에도 부인마마 나들이치마는 열두폭 집안 치마는 여덟폭 두폭 세
폭은 행주치마 벽벽이구 걸어놓고

실밥에도 묻어들고 가오리밥에도 달아둔 작대작신 휘몰아다 의주 월강으
로 손멸하고

일년을 나시자 하니 일년 또 액이 두렵구나 일년 또 액을 불어낼 때
정칠월이면 이팔월 이팔월이면 삼구월

삼구월이면 사십월 오동지 육섯달

일년허구도 열두달 한달하고도 서른날 하루하고도 열두시 시시때때로 드
는 액을

정월달에 드는 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액맥이 연으로 막아내고

이월달에 드는 액은 이월이라 한식날 한식차례로 막아내고

삼월달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새끼 망마구리 망자초리로 막
아내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부처님전에 연등놀이로 막아내고
오월달에 드는 액은 오월이라 단오날 그네 줄에다 막아내고

유월달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일날 비강천등으로 막아내고

칠월달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가 막아내고

팔월달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날 노리색편에 싸서내고

구월달에 드는 액은 구월이라 구일날 비만벌이로 막아내고

시월달에 드는 액은 시월이면 상달인데 고사밥에다 막아내고

동짓달에 드는 액은 동짓달이라 동짓날 동짓팥죽에 막아내고

섣달에 드는 액은 섶달이라 그믐날 흰떡에다 팔미를 쳐서 막아내고

일년 열두달 드는 액은 의주 월강으로 손멸하니

일년치 운수는 대길하리라

일심으로 정녕 극락세계라

오우후~암이로다

연불이로오~온 동창

구서자방에 만민치류님네
 평생 심중닦은 마음
 복난하신 백발노인 일평생을 잘사시고 잘노시라
 영생극락으로만 바론 바오
 젊으신네는 상남바른
 없는 아기는 생담하고
 있는 애기는 수명장수
 축원이 갑니다 덕담가오 건국건명은 이DAC전에
 일평생을 사시자하니 어디어데 출입들을 하십니까
 상봉일경은 불법만재
 권재구설 삼재환란 우환질병 걱정근심을 입어다가
 무후인덕이 분승중에다가 두니 휘이 두둥실 가버리고
 소원성취를 발원할 때
 봉사나팔 양취일랑 오동나무 상상지에다 오황같이 두음질하고
 쓰러져선 만세여의라
 우세목숨 들금덜여 천만세를 두음질하고
 이제까증 대통합체
 규정당에다 집을 짓고 수녕당에다 우물파고
 아들을 나면 효자낳고 딸을 나시면 효녀로다
 돈방석에 날들고
 강태공의 명을 빌어 선팔십 후팔십 일백육십을 두음질하고
 소혹승에 복을 빌었다
 올복은 홀러들고 누렁복은 숙어들 들고 족제비복은 빌어들제
 이씨가문에 만복래요 일이 일소지는 황금출이라
 일심종기요 인간노복 몸수태평을 빌어다가
 이런 아들 따님 절다전법하니 어진 성현이 선남자되어 오리라

한증관음(관암소리)

-개성의 권본선생에게 배웠다는 또 하나의 소리, 당시 한춘수 응과 세

명의 사람이 함께 배웠다 하나, 세분 모두 돌아가시고 이젠 한춘수 옹만 남았다고 한다. 한증관음이란 한증막에서 그 뜨거움을 견디며 부르는 노래로, 지금은 모래시계를 써서 시간을 재지만 모래시계가 없던 당시에는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서 시간을 쟁다고 한다. 이젠 세상에 이 소리를 보유한 사람이 당신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한춘수 옹께 제자를 삼아 전수를 하시는지 여쭈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어디 이런걸 배우려 하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다.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열관암이요.
 열이로다 열이로구나 열녀춘향 성춘향은 송죽같이 굳은 절개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률관암이요.
 물이로다 이십이로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구 웃지마라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서른관암이요.
 서른이면 삼십인데 삼산반란 모란봉이고, 이수춘풍 병나더라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마흔관암이요.
 마흔이면 사십인데 사시행차 바쁜 길에 준승참이 늦어만간다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반백이로다.
 반백이면 절반인데 절반이 넘어 다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만무로구랴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이흔관암이요.
 이흔이면 육십인데 육환장짓고 절 찾아가니 풍경소리가 처량도하다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일흔관암이요.
 일흔이면 칠십인데 우간칠십 고백이라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여든관암이요.
 여든이면 팔십인데 팔도를 들면은 유사한 객이지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아흔관암이요.
 아흔이면 구십인데 구추삼경 달 밝은 밤에 너 어디 가면 잘 살손가
 관암둘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백관암이요.
 백이로다 백이로구랴 인간백년을 다 살고봐야 병든 날과 잠든 날 빼면
 반사십밖에 못 살 인생 어제 오늘 성튼 몸이 저녁 나절 병이 드니 우나니
 오마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구랴

관암둘 쉽니다녀일곱여덟아홉열관암이요
자진 관암으로 넘어가요
열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물관암이요
물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설큰관암
설큰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마흔관암
마흔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반백이요
둘 쉽니다여일곱여덟허니이흔관암
이흔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일흔관암
일흔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여든관암
여든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아흔관암
아흔한둘 쉽니다녀일곱여덟허니백관암이요

강화도령 이야기

장소 : 내가면

제보자: 이상이 (남, 82세)

채록자: 장유정, 송재연, 이윤정, 이영민

채록일: 1999. 4. 28.

(강화도령 이야기를 재차 묻자) 예, 우리 누님이 강화도령네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가 보니까는 매형되는 사람도 좀 강화도령의,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화도령이 나라왕으로 됐어요. 자기가 뭘 아나, 뭐. 한 이십 넘으니까 외가로 들어갔어요. 그 가짜외삼촌이 나왔어요. “내가 너 외삼촌이다” 해 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그 저 가짜외삼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진짜 외삼촌인데 나라왕이 북을 치게 되면 억울한 사정을 다 봐준다 했단 말야” 군수가 (진짜 외삼촌에게) 그걸 일러줬어요. 아무 날, 이 길로 바로 어느 주막집에 들어갔단 말야. 진짜 외삼촌이 주막집에 들어가서 “나는 밥 두 그릇 값을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왔다간 사람 없다고 해라” 가짜 외삼촌이 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 여기 들어온 사람 없다” 그러자 가짜 외삼촌이 그냥 나라왕한테 올라

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외삼촌이 그냥 서울로 걸어올라갔어요. 걸어올라가서 이틀사흘 올라가서 나라왕에게 떠난다, 하니까 사람많은 데 가서는 그거를 그랬단 말야. 길을 가로 짤르고서는 나라왕이 “아, 무슨 연고인고” 나라왕이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아, 내가 진짜 외삼촌이오” “뭘 가지고 증명하려는가” “나, 우리 이 금반지로 증명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증명못한다. 강화군수 증명서를 받아와라” 강화군수가 와서 증명서를 가져온 거지, 나라왕한테. 이렇게 됐지. 나 그것쯤만 알고 있어요. (웃음)

현대문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통산 10번째인 학술답사를 위해 4월 23일 금요일 1동 203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위한 간단한 준비절차를 숙지한 후, 답사지역에 대한 간단한 예비 안내를 받았다. 답사 목적지는 경상북도 안동, 영양 일대였으며, 대상 작가는 이육사, 이원조, 조지훈이었다.

(1) 기간

1999년 4월 29일 ~ 5월 1일

(2) 지역

경상북도 안동군, 영양군 일대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 오세영 · 조남현 선생님

인솔조교 : 전봉관

박사과정 : 강삼희, 천정환, 배개화, 강명효 (이상 4명)

석사과정 : 이학영, 배주영, 이영아, 손유경, 강심호, 소래섭, 김승민, 오인석, 김지미, 김미지, 류동현, 박진우, 이선영, 이경재, 전우형 (이상 15명)

학사과정 : 신형철, 이한별, 장두영, 이영석, 안용희, 박성욱, 조연정 (이상 7명)

2. 답사 일정

1999년 4월 29일 반포 뉴코아 백화점 후문 주차장에 집결하여 관광버스

를 이용 당일 오전 8시 30분 답사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12시경 1차 목적지인 안동 민속박물관에 도착한 답사반은 박물관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후 민속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이곳에서 안동대학 한문학과에 재직하시는 주승택 선생님을 만나 안동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주승택 선생님을 모시고, 범홍동 고성이씨 종택과 신세동 칠층전탑을 답사하였다. 예정보다 늦은 4시경 이육사 생가터에 도착하여 시비를 견학하였다. 이곳에서 오세영 선생님의 이육사 시에 관한 소개의 말씀을 듣고, 영양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숙소에서 저녁을 먹고, 이육사와 이원조의 문학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육사에 관하여 학부생 신형철은 「이육사의 생애」를 석사과정 오인석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초월 - 이육사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원조에 관하여 학부생 장두영은 「현실, 이념 그리고 문학 - 이원조의 생애」를, 박사과정 천정환은 「1930년대 이원조 비평에 나타난 비평의 정당성과 반성의 문제」를 발표하였다.

답사 이틀째인 4월 30일 오전에는 조지훈 생가 마을인 영양군 주실 일대를 답사하였다. 한양 조씨 동족촌인 주실은 뿌리 깊은 양반 마을일 뿐만 아니라 현대 이후에도 박사 30명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제보자 조세락 선생님을 만나 마을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지훈의 생가를 답사하였다. 이 마을은 우리 학과 조동일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기도 했는데, 제보자의 안내로 그곳도 확인하였다. 이어 마을 어귀에 있는 조지훈 시비를 견학하고 그곳에서 조지훈의 시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학부생 이한별은 「조지훈의 생애」를 석사과정 소래섭은 「조지훈『청록집』 시와 한시의 형태 비교」를 발표하였고, 조지훈 문학에 대한 오세영, 신범순 두 분 시전공 선생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영양읍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전세버스편으로 일월산으로 출발하여 황씨부인전을 답사하였다. 황씨부인 설화는 조지훈의 「성문」, 서정주의 「신부」의 배경설화가 되는데, 신범순 선생님은 한국의 무속과 황씨부인설화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촉박한 일정관계로 일월산 등반은 하지 못하고, 곡강팔경 척금대를 향했다. 척금대에서 답사 일정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 숙소까지 4km 남짓한 거리를 산보하며, 답사의 일정을 정리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답사의 성과와 의의에 관한 종합토론을 가졌다.

답사 마지막날인 5월 1일에는 아침 식사 후 간단한 토론을 끝으로 공식적인 답사 일정을 마치고 안동으로 이동하여, 열차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